

복된 기억의
파이지이 스바토고레츠 장로
말씀

제4권
가정 생활

목차:

서문	8
인생의 갈림길에 선 젊은이들	12
가정 생활과 수도 생활 모두 축복받은 삶입니다.....	12
젊은이들이 선택한 길을 걷는 것에 대해 느끼는 불안.....	14
우리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소명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15
삶의 길을 선택하기 위한 결정.....	17
젊은이들의 학업과 그들이 선택한 길로의 진입.....	20
선택한 길을 올바르게 걷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영적 삶입니다.....	24
1부. 단단한 가정을 만드는 법	26
제1장. 화목한 가정에 대하여.....	27

가족 생활의 좋은 시작.....	27
성격의 차이 속에 신성한 조화가 숨어 있습니다.....	28
부부 간의 존중	31
부부 간의 사랑	33
제2장. 인내가 가족을 해체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에 대하여	35
인내심은 사람을 신성한 은총으로 채워줍니다.....	37
충실한 아내	40
해체된 가정의 아이들	42
부부 생활에서의 “옳음”과 “잘못”	43
2부. 부모와 그들의 의무에 대하여	47
제1장. 자녀의 탄생에 대하여.....	47
성 요아킴과 성 안나 — 가장 무아지경에 빠진 부부.....	47
결혼 생활에서의 절제	48
자녀의 출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논리.....	50
출산에 관한 어려움	53
부부 불임	55
다자녀 가정.....	58
낙태는 끔찍한 죄입니다	60
제2장. 자녀 양육에서 어머니의 역할	62
어머니의 사랑	63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올바른 태도.....	64
어머니의 인내심	66

임신 및 수유	68
일하는 어머니	69
가사 관리와 어머니의 영적 생활	70
제3장.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	73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73
아이들의 영적 부흥	75
부모의 모범	76
부모의 집에서는 아이들이 다정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78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79
환경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82
형제자매 간의 사랑	83
기업은 아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84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아이들을 돕는 일	85
아이를 언제 꾸짖고 언제 칭찬해야 할까	87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89
분별 없는 지나친 부모의 사랑	91
유산 분배	94
제3부. 자녀와 그들의 의무	95
제1장. 아이들, 그들의 기쁨과 어려움	95
유아기	96
수호천사는 어린 아이들을 지켜줍니다	97
성세례	98

고아들	101
아이들이 성숙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그들을 제한해야 한다.....	104
아이들이 학업 중에 겪는 어려움	105
제2장.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107
자녀가 부모와 어른을 존중하는 것	107
자녀들이 자신의 가정을 꾸린 후에도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109
노년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110
노인 돌봄의 보람	112
부모님의 축복	115
제4부. 영적 삶.....	117
제1장. 가정에서의 영적 삶	117
사람이 불평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자신을 더 파괴한다.....	117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도록 합시다.....	119
이웃을 위한 아픔이 가족에게 힘이 된다.....	120
가정에서 미덕을 기르는 법	123
가족의 기도.....	125
부부의 영적 삶	126
아이들과 영적 삶	128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	130
명절의 유혹.....	132
제2장. 일과 영적 삶	133
노동은 축복이다.....	133

직업 선택	134
일에 대한 사랑	136
각자는 자신이 가진 은사를 영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138
일과 마음의 불안	139
노동의 성화	140
직업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141
제3장. 일상생활에서의 절제	143
금욕을 통해 사람은 육체가 없는 천사들과 닮아갑니다	143
어린이의 금식	147
호기심 어린 게시물	148
가벼운 배의 즐거움	152
제5부. 우리 삶의 시련에 대하여	153
제1장. “불과 물을 뚫고 지나가리라...”	154
시련의 십자가	154
시련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155
우리가 아플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156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157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들을 보시고 가슴이 아프십니다	159
슬픔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160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른 유혹과 고난	161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은망덕	164
우리의 작은 시련과 이웃들이 겪는 큰 시련	166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	167
제2장. 질병에 대하여	169
질병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169
질병에 대한 하늘의 보응	170
고통 속의 인내	172
고통에 대한 태도	175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기	178
환자 간호	179
환자의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182
아픈 아이들	184
환자가 건강해지려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185
병자들을 위한 기도	187
제3장. 신체적 장애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190
신체적 장애에 대한 올바른 태도	190
신체 손상에 대한 천상의 보복	192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	193
정신 질환	195
자녀의 장애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태도	197
제4장. 영적 법칙에 대하여	198
영적 법칙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198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200
영적 법칙과 하나님의 사랑	202

제6부. 죽음과 내세에 대하여	205
제1장. 죽음에 대한 태도	205
죽음을 기억하라	205
죽고 싶어도 죽지는 않는다	208
임종을 앞둔 환자들	210
자살	213
제2장. “다른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216
아이들의 죽음	216
슬픔에 잠긴 이를 위로하며	218
죽음 — 불과 몇 년간의 이별	222
제3장. 사후의 삶에 대하여	223
정죄받은 죽은 자들	223
고인을 위한 기도와 추도 예배	224
고인을 기리는 가장 훌륭한 방법	228
의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담대한 기도	228
다가올 최후의 심판	230
내세	231

서문

제4권은 복자 파이시이 장로의 『말씀』 연재를 이어갑니다. 이 책에는 가족에 관한 장로의 가르침과, 우리 시대에 가족이 겪는 위기로 인해 사람이 직면하게 되는 시련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장로는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편지를 받았다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사람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것과 자만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말하길, “삶이 더 평온했고 사람들은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누구를 보더라도 마치 라이터와 같습니다. [불꽃을 튀기며] 단 한 마디도 참아 내지 못하죠. 그리고 그 뒤에는 자동적으로 이혼이 뒤따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교회의 위대한 가족에 성실한 일원으로 들어선 장로는, 더 이상 자신의 작은 [육신의] 가족에 속해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제자매로 여기며,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했습니다(빌립보서 1:8). “노인을 보면,” 장로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분은 내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노파를 보면 ‘이분은 내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만나면 내 어린 조카처럼 바라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 기쁘고, 다른 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너도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장로님 자신도 매번 구체적인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아들이자, 형제이자, 아버지이자, 할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꾸밈없는 사랑은 장로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장로는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아픔을 안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간청에 응답하여 말로써도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수도사로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의 가장 민감한 문제들조차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1947년부터 1994년 서거할 때까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온 질병의 시련 속에서 단련되고, 유혹의 불길 속에서 시험을 겪은 이 장로는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연민을 느끼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오로지 스스로를 돌보고 찾아오는 이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만 신경 썼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고통에는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병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느님을 감동시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병든 사람들에게 먼저 치유를 위해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한 다음,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부분은 하느님께 맡기라고 조언했다. 동시에 그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들이 자신의 병을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우리 모두가 “나그네와 이방인”(참조: 베드로전서 2, 11)임을 잊지 않으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본 책은 우리 대목자이신 카산드리아의 니코디모스 대주교님의 축복 아래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서론과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중 상당수는 우리 수도원의 원장 수녀님과 몇몇 수녀들이 스승님께 드린 것입니다. 스승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영적 지도자에게 보내도록 축복해 주셨지만, 종종 원장 수녀님이나 선배 수녀님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난처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심각하거나 복잡한 질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답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장로님께 상의하곤 했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장로님 자신도 수도원 전체 모임이나 수녀님들과의 개인적인 대화 중에, 우리 수도원 공동체의 생활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우리가 던진 질문을 계기로 삼아, 세속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종종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장로님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 애트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스승님께서는 수도사들이 누리는 유리한 영적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사신 아버지나 어머니들의 삶을 예로 들곤 하셨습니다. 이처럼 파이시이 신부님께서서는 우리가 더 큰 신앙심으로 수련에 힘쓰도록 독려하셨습니다. 장로님의 답변 중 일부는 그 편지들이 수신되었던 사제들과 경건한 평신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편지의 발췌문으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이 책은 “인생의 갈림길에 선 젊은이들”이라는 서론 장으로 시작되며, 이 장의 목적은 삶의 길을 선택하는 데 망설이는 청년과 소녀들을 돕는 데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 교회가 제시한 두 가지 길, 즉 가정 생활과 수도 생활이 모두 축복받은 길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소명과 능력, 그리고 신앙심에 따라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부추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느님을 신뢰하며 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순결하고 영적인 삶은 수도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그들이 선택한 길에서 성공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이 책의 여섯 부분 중 첫 번째 부분에서는 가정이 서 있는 토대, 즉 배우자 간의 고귀하고 너그러운 사랑과 존중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하는 역경 속의 인내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부모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다루며, 특히 부모의 모범, 즉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말 없는 교훈’의 중요성과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된다. 장로는 또한 부모의 다정함과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자녀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발달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다.

이 책의 세 번째 부분은 아이들에게 할애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이들의 기쁨과 어려움은 물론, 부모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제4부에서는 가정 내 영적 삶에 관한 장로의 간단하고 실용적인 조언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조언들은 자녀와 부모가 집이든 직장이든 상관없이 매일 복음의 가르침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장로는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 끊임없는 마음의 불안으로 그를 괴롭혀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의 영적 성숙을 돕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겪는 다양한 시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장로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련을 단순히 참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지를 강조한다. 질병, 장애, 중상모략은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 축복입니다. 사람은 겪는 고통을 통해 자신의 죄를 갚거나, 천상의 상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부분에는 죽음을 어떻게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장로의 답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안이 무엇인지 설명하며, 고인의 안식을 위해 거행되는

추도 예배와 기도, 자선 행위가 고인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합니다. 장로는 미래의 최후의 심판과 영생에 대한 그림을 단순하면서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이 책에 수록된 장로의 가르침은 한편으로는 신앙 생활을 실천하는 평신도들이 큰 신실함으로 자신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참조: 디모데전서 6, 12).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르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고통받는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그들 안에 교회의 의식 있는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불태우며, 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영적 삶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장로님은 결혼 생활에서 “무겁지 않은”(요한일서 5, 3).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의지를 희생하고 상대방에게 순종한다면, 그는 사랑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므로 억압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달콤한 위로를 경험한다.

아마도 오늘날 사회의 “느슨한 법”에 익숙해진 현대인에게는, 파이시이 장로의 일부 견해가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실현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장로의 말씀을 살펴보면, 독자는 그것이 복음을 정확하고 타협 없이 표현한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장로가 항상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함입니다. 그러나 신의 계시로 깨달음을 얻은 그의 목회 활동은 인간의 연약함을 오래 참아 주며, 성부들의 이코노미아를 활용합니다.¹ 물론, 이 과정에서 죄와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과거 시대의 삶의 예들을 통해 장로는 현대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고린도전서 12:6)임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그분은 미래의 삶에서 상을 주시는 분이므로서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서 활동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작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조금만 수고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이 작은 수고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신성한 도움으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실 권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¹ 정교회 신학에서 “이코노미아”란 예외적인 경우에 성스러운 규범의 정확한 의미에서 벗어나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자비와 인간애를 본받아 이코노미아를 행사하며, 이를 적용하는 목적은 인간의 영적 유익과 구원이다. (이하 그리스어 판 편집자들의 주석은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인용한다.)

출간 전 이 책의 원고를 읽어 주시고, 정중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며 책을 더 나은 작품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특히 하나님의 계명을 잊거나 짓밟음으로써 고통받는 가족들이, 장로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어 정교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소명을 발견하고, 부모와 자녀가 이미 이 생에서 낙원에서 살기 시작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2002년 9월 16일

성 대순교녀 유프미아의 기념일

성 사도이자 복음서 저자인 신학자 요한 수도원의 원장 필로페야 수녀와 그리스도 안의 자매들

자녀를 낳아 육신을 부여한 부모는 가능한 한 자녀들의 영적 부흥을 돕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스스로 해줄 수 없는 일은 나중에 교사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모와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 외에도 영적인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영적 아버지들은 사람들의 영적 중생을 위해 수고하며, 자녀들의 양육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선 젊은이들

가정 생활과 수도 생활 모두 축복받은 삶입니다

— 게론다, 수도 생활이 가정 생활보다 더 낫냐고 묻는 청년들과 소녀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 무엇보다 먼저 그들에게 인간의 소명이 무엇이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제시한 두 길 모두 축복받은 길임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선택한 이들이 하느님의 뜻대로 산다면, 이 두 길 모두 천국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순례길에 나선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잘 닦인 큰길을 가고, 다른 한 사람은 오솔길을 간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람을 기뻐하시고, 두 번째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신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오솔길을 가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큰길을 가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일 때뿐이다.

수도 생활을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수도사의 사명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의 사명은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즉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사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리스도께서 사두개파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² 그래서 어떤 매우 경건한 청년과 처녀들은 수도사가 되어 이미 이 땅에서 천사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단지 수도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각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거룩하게 살았는지 여부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삶에서든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성공하거나 실패하도록 미리 정해 놓지 않으신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스스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성공하는데, 이는 신성한 은총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어떤 가정주부들은 매우 덕스럽게 살며 거룩해집니다. 가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성한 돌봄에 이끌린다면, 영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은 자녀들에게 미덕을 심어주고, 선한 가정을 꾸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두 배의 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청년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마음에 품어야 한다. 즉, 열정을 가지고 마음의 불안 없이 정진하여, 자신이 선택한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혼하고 싶다면? 결혼하되, 성실하게 노력하여 훌륭한 가장이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라. 수도자가 되고 싶다면? 수도자가 되려 떠나되, 훌륭한 수도자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잘 헤아리고, 어떤 삶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시험해 본 뒤, 그 결론을 바탕으로 선택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젊은 여성이 수녀가 되기에는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겸손히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사람이라 수녀처럼 살 수

² 마태복음 22:30 참조.

없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결혼하여], 제가 선한 가정을 꾸리고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결혼하여 좋은 가정을 꾸리고 복음에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심에서 비롯된 열정으로 많은 고행을 감수하며, 수도 생활을 선택함으로써 그분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분께 바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 배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즉, 가정 생활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지극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수도자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이는 하느님을 크게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자신의 동기가 매우 순수하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자만심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이 조건을 지킨다면, 하느님께서는 그의 모든 어려움을 해소해 주실 것이다.

젊은이들이 선택한 길을 걷는 것에 대해 느끼는 불안

— 게론다, 청년이나 처녀가 결혼이나 수도원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불안해한다면, 그 원인은 그들의 불신 때문입니까?

—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종종 자신이 선택한 길에 어떻게 더 잘 들어서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지 고민하며 애타해 하곤 합니다. 이는 [정신적] 건강의 징표입니다. 만약 청년이 선택한 길로 들어서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다면, 이는 무엇보다도 그가 무관심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결과 당연히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나 수도 생활에 대한 고민이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귀는 이러한 고민을 왜곡하여 영적 불안으로 바꾸고, 청년과 처녀들의 마음을 끊임 없이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이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정한 아버지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서두르지 말고, 어떤 길을 갈지에 대해 성숙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매우 불안해하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애쓰는 젊은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혼란에 빠지고 학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해야 할 시점에 가정 꾸리거나 수도권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합니다. 그 결과 학업에 뒤처지고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며,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를 돕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파악하고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학위를 취득하고, 그다음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청년들의 경우 이 외에도 군 복무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성숙해진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하느님의 도움으로 결혼하여 좋은 가정을 꾸리거나, 수도 생활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선택한 수도원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부 중이며 이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으니 공부를 계속할 것을 권합니다. 나중에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숙되어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권합니다. 만약 그들이 선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수도원에서 지내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서서히 깨닫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소명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에는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귀하셔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며, 각자가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길을 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대식 규율에 따라 모든 사람을 일렬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자유가 깃든 영적 공간 속에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들이 ‘누구’나 ‘누구’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본받으려 한다면, 이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길을 선택할 때 사람은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부모, 영적 지도자, 교육자들은 젊은이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소명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삶

의 길을 선택하는 결정은 젊은이들 스스로가 내려야 합니다. 우리, 즉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오직 젊은이들의 영혼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것뿐이다.

때때로, 인생의 진로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그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만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그들이 올바른 길과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해로운 것은 모두 배제하고 선하고 거룩한 것만 남겨,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며, 영원한 삶에서는 더욱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든 어떤 삶을 선택하든, 저는 어떤 경우든 기쁠 것입니다. 저는 그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똑같이 돌볼 것입니다. 단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교회 안에서 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저는 그를 제 형제로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우리 어머니 교회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특히 기쁩니다. 이 천사 같은 삶을 따르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이 미끼로 달린 악마의 낚시바늘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한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를 원치 않으셨기에, 수도 생활이 완전함에 이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수도 생활을 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나오는 한 청년이 그리스도께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을 때,³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대답하셨습니다.⁴ 청년이 그리스도께 자신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며 “*내가 아직 미처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이오?*”라고 묻자,⁵ — 그리스도께서 대

³ 마태복음 19,16; 마가복음 10,17; 누가복음 18,18 참조.

⁴ 마태복음 19, 17. 마가복음 10, 19 및 누가복음 18, 20도 참조.

⁵ 마태복음 19, 20.

답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아직 미처 이루지 못했도다⁶: 만일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와서 나를 따르라...”⁷ 즉, 그리스도는 그 사람이 정결함을 지녔음을 보시고 그에게 완전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완전함으로]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수도 생활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불태우게 되었을 것이며, 많은 이들이 분별 없이 서둘러 수도사가 되려 했을 것이고, 이는 악으로 이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완전한 삶]의 불씨를 심어두셨을 뿐이며, 적절한 때가 되어 수도 생활이 등장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자신만을 다그칠 권리가 있을 뿐이며, 그마저도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청년에게도 “결혼하라”거나 “수도원에 들어가라”고 단호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묻는다면, 나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되,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만 하면 된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 청년이 세속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답하면, 나는 그 사람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기 위해 수도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삶의 길을 선택하기 위한 결정

세월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젊은이가 갈림길에서 오랫동안 망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과 열정에 따라 두 길 중 하나인 자신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라. 가정 생활이든 수도 생활이든 그 나름의 괴로움이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그 괴로움을 달콤한 예수님께서 달게 해 주실 것이다.

서른 살이 지나면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젊은이는 결혼이든 수도 생활이든, 선택한 삶에 적응하기가 더 수월하다. 어른은 모든 것을 상식을 바탕으로 저울질하고 가늠하기

⁶ 마가복음 10장 21절.

⁷ 마태복음 19장 21절과 누가복음 18장 22절.

때문이다. 그에게는 이미 굳어진 성격이 있는데, 마치 주조된 콘크리트 구조물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라: 젊은 나이에 가정생활이나 수도생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들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간직한다. 나는 젊은 나이에 결혼한 부부를 알고 있었다. 아내는 말투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남편과 닮아 있었다. 젊은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의 모든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말투도, 행동 방식도 말이다. 하지만 서로에게 적응하는 것도 [늦게 결혼한 사람들보다] 그들에게는 더 쉬웠다.

“젊을 때 결혼하든가, 젊을 때 수도자가 되든가”라는 속담이 있다. 여자에게는 특히 스물다섯 살이 되기 전에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물다섯이 지나면 결혼하거나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여자는 타인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여자가 나이가 들수록 변덕과 고집이 더 많아진다. 도대체 누가 그런 여자를 원하겠는가? 그리고 이미 시간을 허비한 뒤라면, 그녀는 더 이상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누군가의 보호와 보살핌 아래에 있기 위해 결혼을 원하게 된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끊임없이 “나중에”로 미루다 보면, 세월이 흐른 뒤에는 짝을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관찰됩니다. 젊었을 때는 스스로 선택했지만, 세월이 흐르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을 꾸리는 데에는 때때로 약간의 무모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은 눈감아 줘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산속 강줄기를 따라 물이 흘러내렸다. 강둑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건너편으로 가야 했다. 한 사람은 매우 영리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비가 그치면,” 영리한 사람이 생각에 잠겼다. “물이 빠질 테니, 그 후에 내가 건너편으로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기다리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강을 건넜다. 물론 그의 옷은 흠뻑 젖었지만, 그는 가고 싶던 곳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는 그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다. 물살은 거세지고 물도 불어났다. 결국 똑똑한 사람은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기가 이미 위험해졌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쪽 강둑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만심과 이기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해마다 아픈 산을 찾아와 제 칼리바에 들르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신부님?”이라고 묻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들은 수도사가 되지도 않았고, 가정을 꾸리지도 않았습시다. 마치 그들이 금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 평범한 철조각처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쓰일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에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게론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도사가 될까요, 아니면 결혼할까요? 제 소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당신 스스로는 무엇을 원하나요?”라고 제가 묻습니다. “결혼도 하고 싶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기도 해요.” 즉, 그들은 둘 다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예를 들어 그들의 소명이 가정생활이라서 결혼을 하라고 조언했다가, 정작 가정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나중에 그들은 저를 찾아와 불만을 토로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길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 게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 자, 가령 한 청년의 소명이 가정생활이라고 치더라도, 그는 수도 생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결혼한 후 그가 소홀히 하여 좋은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교활한 자가 그에게 악한 생각의 공격을 퍼부을 것이다. “네 소명은 수도 생활에 있었어,”라고 원수가 그에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결혼했으니, 그건 네가 자초한 일이야.” 즉, 원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릅니다. 몇 년 전, 한 젊은 여성이 이곳에 찾아와 제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론다, 제가 어떤 삶의 길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결혼하고 싶지만, 수도 생활도 고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길이 당신 마음속에 더 와닿는지 잘 살펴보고, 그 길을 선택하세요.” “모르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가끔은 결혼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제발, 게론다, 당신이 직접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 주세요.” “글쎄요,” 내가 그녀에게 조언했다. “결혼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어진다고 느끼신다면, 결혼

하는 편이 낫겠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잘 이끌어 주실 겁니다.” “헤론다님의 축복에 따라,” 그녀가 내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가 다시 찾아왔다. “게론다, — 그녀가 말하더군요, — 저 결혼했어요. 선원과요. 좋은 사람이에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하지만 정말 괴로워요. 6개월은 함께 살고, 6개월은 떨어져 지내는 게 고문이 아니겠어요? 그가 항해하러 떠나면 반년 동안은 볼 수 없거든요.” “축복받은 영혼이여! — 제가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 가정생활도 수도생활도 모두 마음에 든다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당신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이런 식으로 마련해 주셨는데, 왜 그분을 찬양하지 않는 겁니까?”

— 게론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일부 청년들과 젊은 여성들은 가정을 꾸리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 아니요, 그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박해의 시절은 어땠습니까? 그 시절이 쉬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절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 우리 교회에는 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순교를 당한 성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젊은이들의 학업과 그들이 선택한 길로의 진입

— 게론다, 많은 청년과 소녀들이 어떤 삶의 길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제대로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젊은이가 이런 문제를 겪을 때면, 나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현대식 대형 냉장고를 본 적이 있니? 자, 그럼 네 문제를 그런 냉장고에 넣어두고, 학업을 마칠 때까지 거기 두어라. 물론 네가 고민하는 일을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아니요—교육을 마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냉장고에 넣어 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교육과 학업에 소홀히 한다면, 네 친구들은 학업을 마치고 인생에서 제 자리를 찾아 안정된 삶을 살게 된 뒤, 너도 인생에서 제 자리를 찾기를 염주 꿰듯이 기도하게 될 거예요.” 젊은이들은 매우 주의 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안감은 원수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쓰는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 게론다, 제가 한 젊은 여성에게 이렇게 조언해 드렸어요.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 하지만 그녀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뭘 하라고 시킬 건가요? 사탕이나 팔라고요? 차라리 대학을 졸업하거나 어떤 전문 기술을 익히게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 배운 지식이나 직업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한 소녀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수녀가 될까 생각 중인데, 자꾸 마음이 바뀌어요.” “지금 몇 학년이니?” 라고 내가 물었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⁸ — 그녀가 대답했어, — 하지만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라고 내가 말했지. — 그럼 네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어. 염소 몇 마리와 양치기 개, 그리고 피리 하나를 사 달라고. 개는 양 떼를 지키고, 너 피리를 불며 양 떼를 몰면 돼. 어때, 마음에 드니? 자, 이렇게 하자. 대학 교육을 받거나 어떤 실용적인 전문 기술을 익히도록 노력해 봐.” “그럼, 게론다,” 그녀가 대답했다. “제가 수도원에 들어갈지 결혼할지 결정할 때까지, 겸손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수련생 후보로서 수도원에서 지내도록 하죠.” “글쎄, 그 기술 정도는,” 내가 대답했다. “네 집에서 배울 수 있어. 가족들이 하는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말이야. 그러니 이렇게 하자. 먼저 학교를 마치고,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른 다음, 대학을 졸업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자.” “게론다, 5년이나 되는 게 너무 긴 건 아닐까요?” 그녀가 대답했다. “긴 시간이야,” 내가 말했다. “하지만 네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니 어쩔 수 없지.” “제 번덕스러움 탓에 이런 상황이 된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 라고 내가 말했다. “하지만 네 [영적] 저울은 아직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러한 경우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학업 기간 동안 그들은 가능한 한 더 영적인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학위를 하루빨리 취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⁸ 러시아 중등학교 11학년에 해당한다. - 역자 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학업 기간 동안 그들은 좋은 영적 지도자를 찾아, 수도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대한 피상적인 열광에 휩쓸리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학업을 마칠 때까지는 인내하도록 합시다.

학교를 졸업하고 성숙한 어른이 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지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삶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런 지경에 이르러, 삶의 길을 선택할 때 결정을 내릴수록 성숙할수록 더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사람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성숙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열광하기 쉽고 무언가에 쉽게 휩쓸리는 성향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 게론다, 어떤 젊은이들은 영적인 독서와 기도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 아니요, 수업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적 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교과서와 함께 성부들의 저서 중 한 구절을 읽고, 잠시 기도하며, 몇 번 절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공부하고 읽을 것이 많을 때는 스스로 휴식 시간을 마련하여 그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거나 교회 찬송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수행—나중에 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고 싶어 한다면, 수업과 공부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 영적 수행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도 올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공부에 매진한다면, 그들은 곧 졸업장을 받게 될 것이며, 그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⁹ 며칠 동안 염주와 절, 금식까지 모두 접어두고 병원에서 주는 음식을 먹었다. “지금은,” 내가 스스로에게 말했듯이, “의사들이 나를 치료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줘야 해. 그래야 그들도 내가 회복되도록 도와줄 테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⁹ 1966년에 장로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해 폐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에게 와서 부모님이 자꾸 간섭하며 숙제를 하라고 강요한다고 불평하곤 합니다. 나까지 그 아이들 곁에 달라붙어 감시한다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저는 공부를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모든 일이 엉망이 된 또래 친구들과, 공부에 성실하게 임하여 성공한 친구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 줍니다. 에서 본 이런 사례가 기억납니다. 이웃 도시에서 두 소년이 자랐습니다. 한 명은 매우 영리해서 숙제를 금방 해냈고, 저학년과 중학년 때 항상 A+를 받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그다지 똑똑하지 않아서, 첫 번째 아이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가자, 우등생은 단 1년만 다니다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학교를 그만두었으며, 결국 어느 기업에서 청소부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미 결혼해 두 아이를 두고 있었고, 생계를 꾸려나가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반면 그의 이웃은 법학부를 졸업한 뒤 유럽에서 추가로 공부하여 경영학 학위를 취득했다. 어느 날, 전직 우등생이 청소부로 일하던 기업에 새로운 관리자가 부임할 예정이었다. 모두가 그가 훌륭한 학식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관리자가 도착했을 때, 청소부는 즉시 그를 자신의 옛 동창생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청소부는 절망에 휩싸여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성산(聖山)에 와서 나를 만나보라고 조언했다. 그가 나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던 중,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이봐, 저 멍청이가 내 관리자가 되었다고!” 우와, 내가 그에게 한바탕 호통을 쳤다! “아, 이 자식아,” 내가 말했다. “이러니 저러니! 너는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잖아! 그러면 너도 잘 살았고, 네 아이들도 궁핍하지 않았을 테고, 선한 일도 했을 텐데! 네 탓에 네 가족이 고통받는 것만으로도 모자라니? 이제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네 아이들을 고아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너에 대해서는 안타깝지 않아. 지금 네가 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까. 하지만 네 아이들이 안타깝다. 이 말 이해가 되니? 인내심을 좀 가져 봐.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관리자도 너에게 잘 대해줄 거라고 생각해. 그 사람이 널 이전보다 더 나은 다른 직책으로 옮겨 줄 수도 있어. 만약 이 회사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일자리를 찾으세요. 아이들이 노숙자가 되는 지경까지 몰아가지는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는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결국, 학업 기간 동안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한다면, 비록 조금 피곤하겠지만 미이수 과목이 없어 빠르게 학위를 취득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학업 중에 여러 과목에서 미이수 과목을 남겼던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배치된 후에도 여전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빚을 지고 다니며 수많은 문제를 겪는 것을 봅니다.

— 게론다, 만약 한 청년이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한 여학생과 사귀게 되고, 그 관계에서 가정을 꾸릴 가능성이 있다면, 학업을 마치지 않은 채 결혼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 아무리 좋고 착한 만남이라 해도, 결국 학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은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설령 그가 선택한 상대가 가장 훌륭한 평생의 동반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젊은이는 정신적, 육체적 힘을 학업에 집중하여 무시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는 데 쏟는 편이 낫습니다. 그 후에야 개인적인 삶을 꾸려나가면 됩니다. 결국 그의 힘이 분산된다면, 그는 끊임없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에 머물게 될 테니까요.

선택한 길을 올바르게 걷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영적 삶입니다

— 게론다, 수도 생활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여학생을 기억하십니까? 그녀가 제게 말하길, 같은 학년 남학생이 왜 영화관에 가지 않고 남자아이들과 놀지 않느냐고 계속 캐물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그 남학생에게 어떻게 대답했어야 했을까요?

—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 “내 친형도 나한테 그런 질문은 안 하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볼 생각이야?”

— 그런데 며칠 뒤, 그는 대학 근처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치고는 어깨를 잡았다. 그녀는 그에게 “안녕”이라고만 말하고는 곧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 아니요, 그녀는 잘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에게 단호하게 맞서야 했어요. 그녀는 마치 그의 행동이 마음에 드는 것처럼 보이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녀는 지금 다소 까다로운 나이에 있으니, 만약 젊은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그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한 척하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그녀에게 필요하지 않다. 만약 그녀가 착하고 훌륭한 청년을 만나 결혼하

기로 결심한다면, 반드시 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모님께서 그 청년이 좋은 가정을 꾸리는 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실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아직 어떤 삶의 길을 갈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그녀의 머리를 어지럽히고 평온함을 잃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 부주의한 불쌍한 청년들과 소녀들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있으며, 끊임없이 동요하고 평온을 찾지 못합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그들의 얼굴에 드러나고 눈 빛에도 비쳐 보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남성이 여성을 향한 끌림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이 소녀에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해라. 공부에 집중하게 하라. 어린 나이부터 이성에 대한 끌림을 키워온 소년 소녀들은, 그에 적합한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버튼을 누른다.” 그러다 마침내 적절한 시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의 ‘버튼’은 이미 눌러 버린 상태라 더 이상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미 부적절한 시기에 그 기쁨을 먼저 경험해 버렸기 때문이죠. 반면, 이 점에 있어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젊은이들은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다가 더 큰 기쁨을 누리며,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합니다.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킨 어머니들을 보라. 그들은 수많은 번거로움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다

저는 항상 강조하곤 합니다. 결혼 전 젊은이들은 가능한 한 더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들에게 두 배의 건강을 가져다주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영적인 삶은 가정 생활과 수도 생활 모두를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밀을 심은 밭과 같습니다. 밀이 이삭을 맺기 시작했지만, 돼지들이 밭에 들어와 온통 짓밟고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밭은 이렇게 보입니다. 갈아엎어진 풀과 흙, 진흙 속에 짓밟힌 이삭들, 그리고 가장자리 여기저기에서만 훼손되지 않은 밀 이삭들이 솟아 있을 뿐입니다.

젊은 시절에 영적인 수련을 많이 할수록, 나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든 그 길은 더 수월해 집니다. 전투를 앞두고 무장을 잘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할수록, 주위에서 총알이 쉴 새 없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는 전투 중에도 더 수월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한 소녀가 수녀가 될지, 아니면 착하고 훌륭한 어머니가 될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그녀는 가능한 한 온전히 학업에 전념해야 한다.

만약 그녀가 시각과 청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나쁜 생각을 떨쳐낸다면, 나중에 그녀가 내면에서 떨쳐내야 할 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보다 적을 것이다. 또는 청년이, 예를 들어 아름다운 소녀를 만났을 때, 선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는 그녀를 마치 어떤 성인의 살아있는 형상처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탕한 여성을 만나면, 그녀를 자신의 여동생처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자손이다. 그는 마치 자신의 친자매가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슬퍼했을 것처럼, 그녀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

— 게론다, 하지만 오늘날 대학이나 다른 교육 기관에서는 젊은이들이 수많은 유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서로 돕고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내기 위해, 영적으로 살아가는 친구들과 친해져야 합니다. 상황을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도 순결하게 살아가는 많은 학생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노력과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이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1부.

단단한 가정을 만드는 법

“부부는 가능한 한 사랑의 미덕을 갈고닦아야 합니다. 그래야 두 사람이 언제나 하나로 합쳐지고, 그들과 함께 ‘세 번째 분’이신 우리 가장 달콤하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장.

화목한 가정에 대하여

가족 생활의 좋은 시작

— 게론다, 가정생활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한 청년이 저에게 어떻게 올바르게 시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 무엇보다 먼저 그의 마음에 쏙 드는 좋은 여성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마음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끌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죠. 신부가 부유하고 아름다운지 보다는, 무엇보다도 그녀가 소박하고 겸손한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즉, 미래 신부의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그 여성이 믿음직스럽고, 여성다운 기품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는 용기를 지녔다면, 이는 미래의 배우자가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녀와 완전한 상호 이해를 이루고 골치 아픈 고민에 시달리지 않도록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녀에게 경건함과 겸손함까지 있다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이 세상의 사악한 강을 건너 반대편 기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청년이 어떤 여성을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 신부로 생각한다면, 먼저 가까운 지인을 통해 그 여성의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직접 그 여자의 부모님과 그녀 본인에게 자신의 의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이 약혼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 — 약혼과 결혼식 사이의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 것이 좋겠지만 — 그는 신부를 자신의 여동생처럼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신랑과 신부 모두가 순결을 지키기 위해 결혼식 전까지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성혼 성사 때 사제가

그들에게 왕관을 씌울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 요한 크리소스톰이 말했듯이, 혼인 성사의 왕관은 쾌락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이다.¹⁰

그 후 부부는 가능한 한 사랑의 미덕을 갈고닦아, 두 사람이 언제나 하나로 어우러지고, 그들과 함께 ‘세 번째 분’이신 우리 가장 달콤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신혼부부의 가정생활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전이고,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기 전까지는 몇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면 처음에는 늘 그런 법입니다. 며칠 전, 저는 한 마리의 새끼 새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새는 먹이를 찾기 위해 처음으로 둥지를 떠났습니다. 불쌍한 새끼는 곤충을 잡는 법을 몰라 땅 위를 낮게 날며 한 시간이나 허비한 끝에 겨우 작은 벌레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새를 바라보며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아 일을 시작한 신입사원도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도원의 수련생도 수도 생활을 시작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젊은이 역시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 게론다, 신부가 신랑보다 나이가 많은 것이 허용되나요?

— 교회에 ‘여자가 남자보다 두 살, 세 살, 심지어 다섯 살 더 많으면 결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성격의 차이 속에 신성한 조화가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내 오두막에 찾아와 아내와 끊임없이 다투는 바람에 마음이 무척 상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나는 그와 아내 사이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남자에게는 그만의 ‘결’이 있고, 아내에게는 아내만의 ‘결’이 있어서 서로 잘 맞지 않는 것이다. [둘 다] 조금씩 “대패질”을 해야 한다. 대패질하지 않은 널빤지 두 개를 가져와 보라. 한 판자에는 한 곳에 웅이가 있고, 다른 판자에는 다른 곳에 웅이가 있다. 만약 이 판자들을 있는 그대로, 대패질하지 않은 채로 이어 붙이려 한다면 그 사이에 틈이 남을 것이다. 하

¹⁰ “신혼 부부의 머리에 화관을 씌우는 것은 승리를 상징한다. 즉, 패배하지 않고 혼인 침상에 들어선다는 것, 쾌락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Αγίου Ιωάννου του Χρυσοστόμου. Ὑπόμνημα εἰς τὴν πρὸς Τιμόθεον Ἐπιστολὴν πρώτην, Ὁμιλία θ. PG 62, col. 546.

지만 첫 번째 판자의 한 곳을 살짝 대패질하고, 두 번째 판자의 다른 곳을 살짝 대패질하면, 두 판자는 즉시 서로 밀착될 것이다. 다만 대패질은 반드시 같은 대패로 해야 한다.¹¹

“저는 아내와 말이 통하지 않아요!” — 어떤 남편들이 저에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우리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내는 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부부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성격이 비슷하게 만들어 주실 수는 없었던 걸까요?” “도대체 모르시겠습니까? — 제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 성격의 차이 속에 신성한 조화가 숨어 있다는 것어요? 서로 다른 성격들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룹니다. 만약 당신과 아내의 성격이 똑같았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맙소사! 예를 들어, 당신과 아내 모두 쉽게 화를 낸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집이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난장판이 될 거예요! 반대로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온화하고 온순한 성격이라면요? 그럼 걷는 길에 잠이 들 정도일 거예요! 만약 당신이나 아내 중 누구도 거울에 눈을 구해 올 수 없다면, 물론 서로 잘 어울리겠지만 둘 다 지옥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만약 둘 다 낭비벽이 심하다면요? 과연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을까요? 재산을 헛되이 날려버리고, 아이들은 노숙자가 되었을 거예요.”

만약 까다롭고 제멋대로인 사람이 자신과 딱 맞는 아내를 만난다면 — 머리에 말뚝을 박아도 자기 방식대로만 고집할 만한 사람 — 그 둘은 분명 서로 잘 어울릴 것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들은 서로의 머리카락을 잡아뜯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보라.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 고집 센 사람과 결혼하도록 하셔서, 원래 선한 성품을 지녔으나 젊은 시절에 악한 길로 빠져버린 배우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

부부의 성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서로를 보완해 주기 때문에 조화로운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에는 두 개의 페달이 모두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속 페달과 제때 멈추기 위한 브레이크 페달이죠. 만약 차에 브레이크가 하나뿐이라면 차는

¹¹ 장로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영적 지도자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사역은 남편과 아내가 같은 영적 지도자를 모실 때, 즉 그들의 “가지”와 “돌기”가 하나의 “대패”로 다듬어질 때 효과를 발휘한다.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가속 페달만 있다면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분은 마치 한쪽 다리로만 걷는 것과 같아요,”라고 제가 한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모두 감정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둘 다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에게 무슨 재앙이 닥친 거야!” — 남편이 통곡합니다. “아, 이 쓰라린 슬픔은 도대체 뭐지!” — 아내가 흐느끼며 말합니다. 즉,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가 더 큰 절망에 빠지도록 “도움”을 주는 셈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며 “잠깐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잖아.”라고 말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은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격이 다른 부부는 자녀 양육에서도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쪽은 아이들을 조금 제지하려 할 것이고, 다른 한쪽은 “아이들에게 조금만 자유를 줘”라고 말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한다면, 아이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아이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역시 아이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반면 엄마와 아빠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들은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가족 내에서는]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는 각자의 성격적 특성에 대해 지나치게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지만, 각자는 자신의 성격에 맞춰 상대방을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달콤한 것을 먹으면 짹짹한 것이 먹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포도를 배불리 먹으면, 그 단맛을 중화시키기 위해 치즈 한 조각을 곁들여 먹고 싶어집니다. 텃밭 채소의 경우, 너무 쓰면 먹을 수 없지만, 채소에 약간의 쓴맛이나 신맛이 있다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신 성격을 가진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도 자신처럼 신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쓴 성격을 가진 사람이 모두 쓴 성격을 가지라고 촉구하며, 세 번째인 짹 성격을 가진 사람이 모두가 짹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그들은 서로 이해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부부 간의 존중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지혜롭게 정하셨습니다. 남자에게는 어떤 재능을, 여자에게는 또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구를 찾도록, 그리고 여자가 그에게 순종하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같은 용기를 주셨다면, 가정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피로스 지역¹²에서는 온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긴 흰 셔츠를 입고 허리띠에는 항상 야타간을 차고 다녔습니다.¹³ 강도들은 그녀를 데리고 일을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강도 무리에 속한 여성이라니!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마을에서 도보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외딴 시골 마을에 찾아가, 한 발라키아 소년을 데려와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소년이 버티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를 제압해 어깨에 메고 자신의 마을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일 뿐입니다. 여성들을 군대에 징집해 여성 중대를 편성해 보세요. 그리고 스카우트 복장을 한 십여 명의 청소년들을 데려와 멀리서 전사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게 하세요. 그러면 중대 전체가 즉시 도망칠 겁니다! 적이 공격해 온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성경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합니다.¹⁴ 즉,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도록 정하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은 아내에 대해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¹⁵ 복음서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해야 한다. 즉, 그녀는 남편을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¹⁶ 사랑에는 존중이 담겨 있

¹² 에피르 – 그리스 서부의 지역. – 역자 주.

¹³ 야타간 – 크고 휘어진 터키식 단검. – 역자 주.

¹⁴ 엡 5, 23.

¹⁵ 창세기 2, 23.

¹⁶ 엡 5, 33 참조.

다. 존중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공경하며, 내가 공경하는 것을 사랑한다. 즉, 사랑과 공경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조화를 외면하고 복음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복음을 왜곡하여 아내에게 “넌 나를 두려워해야 해!”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네요. 만약 아내가 당신을 두려워했다면, 애초에 당신과 결혼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해야 하죠? 아니, 그런 건 도저히 받아들이 수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종교야? 차별이야!”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라: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¹⁷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 경건함, 영적인 겸손이다. 이 경외심은 너를 경건한 딸림으로 이끄는 데, 이는 신성한 것이다.

일부 여성들이 추구하는 남성과의 평등은 어느 정도까지만 정당화될 수 있다. 오늘날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하게 일하고 투표에 참여한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불건전한 사고방식에 물들어 [모든 면에서] 남성과 동등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영혼은 동일하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지 않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방지고 제멋대로인 기풍이 생겼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저는 한 부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키가 작고 평범한 사람이었고, 아내는 키가 아주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죠! 그녀는 혼자서도 수레에서 1첸트너의 곡식을 가볍게 내릴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한 노동자—그 역시 건장한 청년이었는데—가 그녀에게 추파를 던지자, 그녀는 그를 붙잡아 성냥개비처럼 몇 미터나 옆으로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여자가 남편에게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존경했는지 보셨더라면! 바로 이런 식으로 가정이 튼튼하고 깨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은 버티지 못합니다.

¹⁷ 잠언 1, 7.

부부 간의 사랑

— 자, 어머니, 결혼하는 디미트리에게 축하 편지는 쓰셨나요?

— 썼어요, 게론다.

— 그 엽서를 좀 줘, 내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덧붙일게. “그리스도와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디미트리야,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온 세상과 다 싸워도 좋다는 축복을 내려주마!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주마. 모든 사람과 싸워도 좋지만, 너와는 싸우지 말라는 축복이야!” 자, 그들이 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지 지켜보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었다. “게론다, 남편과 아내를 가장 단단히 이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입니다.”라고 내가 대답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주는 것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신뢰와 헌신, 순종을 바친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보호와 보살핌 아래 있다는 확신을 아내에게 줍니다. 아내는 집의 주인이지만, 동시에 그 집의 가장 중요한 하인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집의 주인이지만, 동시에 그 집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이이기도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순수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받으며, 각자의 영적 의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합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기초로 사랑을 삼아야 합니다. 바로 영적 고귀함과 희생 정신에 기반한 그 귀중한 사랑이지, 거짓되고 세속적이며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생 정신이 있다면, 한 사람은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위해 아파합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자신의 아픈 마음에 받아들일 때,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며, 그분은 다시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마음을 채워 주십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사랑한다면, 설령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 상황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 그는 여전히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금하시기를, 배우자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그들은 비록 곁에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각자는 평생 동안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육체적 사랑은 세속적인 사람들을 겉으로만 하나로 묶어주는데, 이는 그들이 [그런 육체적 사랑에 필요한] 세속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 동안에만 해당된다. 이러한 세속적인 자질이 사라지면, 육체적 사랑은 사람들을 갈라놓고, 그들은 파멸로 빠져들게 된다. 반면 부부 사이에 진실하고 귀중한 영적 사랑이 있다면, 그중 한 사람이 세속적인 자질을 잃게 되더라도 이는 두 사람을 갈라놓기는커녕 오히려 더 굳건하게 하나로 묶어줄 것이다. 만약 육체적인 사랑만 있다면, 아내는 예를 들어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여자를 쳐다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의 눈에 황산을 뿌려 시력을 잃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순수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녀는 그를 대신해 더 큰 아픔을 느끼며, 섬세하고 정성스럽게 그를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계 미국인 의사 한 분이 제 칼리바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그의 삶에 대해 물었습니다. “신부님,”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교회 신자이지만, 최근까지 금식도 지키지 않았고 교회에도 자주 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제 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청했을 때, 방이 어떤 달콤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상태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저는 빛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내면에서 형언할 수 없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창조되지 않은 빛을 뵈는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그 사건에 앞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부님,” 그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는 기혼자이며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생활의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내가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는 데 인내심을 잃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자고 저에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친구들과 혼자 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점에도 순응했고, 대신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저와 함께 휴가를 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혼자 휴가를 가기 위해 저에게 돈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를 위해 별도의 아파트를 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도 그 점에 대해서도 양보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아파트에서 자신의 연인들을 만나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조언이나 설득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녀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주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았

다. 결국, 나에게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아간 뒤, 그녀는 사라져 버렸다. 나는 그녀를 찾아다니며, 가능한 모든 곳에서 그녀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모두 헛수고였고, 심지어 그녀의 흔적조차 잃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이곳 그리스로 와서 음란한 소굴 중 한 곳에서 몸을 팔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비참한 타락에 대해 나를 사로잡은 그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슬픔에 잠겨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간구했다. “제가 그녀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녀가 자신의 영혼을 망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그녀가 처한 그 처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빛이 나를 감쌌고, 내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 “형제여! — 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내와 악의를 품지 않는 마음, 그리고 사랑을 보시고 당신에게 이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신도들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죠? 미국 어딘가에 있는 한 의사는, 그런 아내와 그런 환경, 그런 주변 사람들을 두고도 — 그런데도 결국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제2장.

인내가 가족을 해체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에 대하여

— 네 여동생은 어떻게 지내니? 남편과 사이가 좋니?

— 게론다, 제게는 그들 사이가 순탄치 않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내하며, 필요할 때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 원래 그런 법이죠. 두 마리의 황소가 한 멍에에 묶여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힘이 약하거나 게으르면, 다른 한 마리가 더 세게 힘을 주어 첫 번째 황소를 끌고 가는 셈이죠. 보라, 세속적인 사람들이면서도 자기 수양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여기서 여전히 공주님들처럼 굴고 있잖아! 자, 네가 상상해 봐. 네 아이를 둔 어머니가 있는데, 한 아이는 지적 장애가 있

고, 다른 아이는 정신 질환을 앓고, 셋째는 탈라세미아를 앓고,¹⁸ 넷째는 밤마다 알 수 없는 곳을 배회하고, 불쌍한 아내도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내야 하는지! 아무리 소리쳐도, 자신의 고통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그녀의 남편은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면서 그녀에게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불쌍한 여성은 집세조차 낼 돈이 없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는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고, 온갖 위험에 노출되며, 당신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제발 기도해주세요. 적어도 이 위험들만큼은 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아니면 남편이 술만 마시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녀가 어쩔 수 없이 혼자 일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고층 아파트 계단을 닦는 일 같은 것 말이다. 남편은 술집만 전전하다가 자정이 넘어서야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그녀를 때리고, 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직접 그녀의 상사에게 찾아가 그녀가 번 돈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 아,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어떤 여성들은 상황이 명확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 고통을 겪으며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죄가 없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순수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릴 적 그녀는 마치 천사 같았죠! 가장 착한 영혼을 가진, 가족 중 가장 양전한 아이였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끔찍한 말썽꾸러기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된 걸까요! 그녀의 가족들은 얼마나 큰 착각을 했을까요!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악명 높은 말썽꾸러기였던 술주정뱅이와 결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술을 마셨고, 그도 그 나쁜 습관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불행한 여자는 허리를 굽힌 채 남의 집을 전전하며, 일로 몸을 혹사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녀를 구타하고 칼로 위협합니다. 그가 “널 찢러 죽이겠다!”라고 몇 번이나 소리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정말로 자신을 찢러 죽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진정한 고통을 겪고 있

¹⁸ 탈라세미아 — 글로빈 단백질 합성 장애를 동반하는 유전성 용혈성 빈혈로,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질환은 진행성 빈혈, 간과 비장의 비대, 황달 등을 유발한다. — *역자 주*.

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네 명의 아이가 있다. 이 불쌍한 여자의 친척들은 그녀에게 이혼 하라고 조언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아직 좀 더 참아볼 생각이예요.”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참아낸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여성은 영성서나 성인의 전기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고 있다! “좋아요,” 내가 어느 날 그녀에게 말했다. “그럼 네 아이들은,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도 왜 끼어들지 않는 거야?” “아이들은 아직 열다섯, 열여섯 살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 “일단 군대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때 아버지를 좀 혼내주겠지!” 즉, 아이들이 군대 복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녀가 구타를 참아야 한다는 뜻이다!

인내심은 사람을 신성한 은총으로 채워줍니다

— 게론다, 누군가가 짜증을 내거나 흥분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인내심으로 대하십시오.

— 만약 제게 인내심이 없다면요?

— 사러 가야겠어!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거든!.. 알다시피, 사람이 분노로 들끓고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럴 땐 차라리 입을 다물고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는 게 낫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진정되고 마음을 가라앉힐 테니, 그 후에야 서로 이해하며 화해할 수 있어. 보세요, 바다에 파도가 치면 어부들도 낚시하러 나가지 않잖아요.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죠.

— 게론다, 사람들의 조급함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그 이유는 그들 안에... 평화가 아주 많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그들의 인내에 달려 있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¹⁹ 라고 복음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내를 익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어려움과 다양한 시련을 주십니다.

¹⁹ 마태복음 10, 22.

인내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인내로 대하려면, 그 사람을 위해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인내는 가정을 파멸로부터 구합니다. 저는 야수들이 어린 양처럼 온순해지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문제는 순조롭고 영적인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한때 스토미온 수도원에서 지내던 중, 코니키²⁰에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다섯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나중에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목수였는데, 제 스승님과 자주 함께 일하곤 했습니다.²¹ 의뢰인들이 이 사람에게 사소한 지적을 하면, 예를 들어 “야니스 장인님, 이걸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라고 하면, 그는 확실히 몹시 화를 냈다. “너가 나한테 뭐라고 가르치려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도구를 부수고 구석으로 내던진 뒤 떠나버렸다. 남의 집에서도 모든 것을 부수던 그가 자기 집에서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을지 상상이나 가나! 이 사람과 하루라도 함께 지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그와 수년 동안 함께 살았다. 그녀는 매일 고통을 겪었지만, 모든 일에 큰 너그러움을 보이며 인내심으로 감내했다. 나는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물었다. “야니스 씨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일하고 계신가요?” “음,” 그녀가 대답했다. “일할 때도 있고, 가끔은 앉아서 잠시 쉬기도 해요!” “그녀님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내가 다시 물었다. “아주 좋아요, 신부님!” —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악기들—게다가 값비싼 악기들인데!—을 부숴버린 사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그 불쌍한 여인은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남의 집에 고용되어 일해야만 했다. 보시다시피, 그녀가 모든 일을 얼마나 큰 인내와 친절, 그리고 고귀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그녀는 남편을 조금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그녀에게 은총을 내려 주셨고, 그녀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섯 아이를 키우고 잘 자라게 했으며, 다섯 아이 모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²⁰ 코니차 — 서부 그리스에 있는 작은 마을. 그곳에서 장로님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1958-1960년, 복자 파이시이 장로님은 코니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스토미온 수도원에서 수행했다. — 역자 주.

²¹ 젊은 시절, 파이시이 장로는 목수 기술을 익혔다.

— 게론다, 그녀는 어떻게 남편을 변호할 수 있었나요?

— 선한 마음으로. “어차피 내 남편이잖아,”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뭐, 좀 꾸중을 들어도 괜찮겠지. 어쩌면 나도 그의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지도 몰라.” 이 여인은 복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신성한 은총을 내려주셨다. 세속의 사람들조차도 인내하며 은총을 누린다면, 영적 삶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우리 수도자들은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하겠는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스캔들—가족 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은 사소한 일에서 비롯됩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상대방에게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의 미덕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기이한 점들도 참아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모두—수십억 명의 사람들—를 참아 주시는 반면, 우리는 타인의 괴짜 같은 행동을 견디며 고통받음으로써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빚을 갚고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재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 결점이 있는 사람은 그 앞에서 겸손해지도록 모든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결국 누구에게나 각자의 재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결점도 있으며, 이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제대로 혼을 내주었지! 그 여자가 수많은 재능과 천부적인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얼마나 순종하는지 여러분이 직접 보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녀 곁에 있으면 그는 마치 어린아이와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끊임 없이 신성한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영적 계좌에 적립하는 반면, 그녀의 남편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끊임 없이 신성한 은총을 스스로에게서 쫓아내며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결국 누가 이득을 보게 될까요? 보시다시피, 모든 비결은 겸손에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기초가 있습니다. 순종, 겸손. 하지만 만약 이 사람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면, 그에게도 신성한 은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충실한 아내

— 게론다, 한 여성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버리고 아이를 데려간 뒤, 다른 두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 그녀에게 가능한 한 인내하고, 기도하며, 남편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전해라. 기다리도록 하고, 스스로 결혼을 파기하지 말게 하라. 어떤 남자는 아내를 경멸하며 대하고, 때리고, 괴롭혔지만, 아내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인내와 친절로 받아들였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후, 무덤에서 유해를 꺼내자 모두가 향기를 맡았습니다.²²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여성은 모든 일에 인내심을 보였기에 내세에서 의로움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었다. 세속적인 삶을 살던 한 청년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던 한 소녀에게 마음을 품게 되었다. 소녀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기를 바라며, 그도 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결혼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는 예전의 세속적인 삶으로 되돌아갔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있었는데, 장남은 대학에 다니고, 딸 한 명은 리세에, 다른 한 명은 체육관에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계속해서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거의 전부를 자신의 방탕한 생활에 탕진했다. 불행한 아내의 검소함 덕분에 가정은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그녀는 조언을 통해 아이들이 바른 길을 걷도록 도왔다. 그녀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싫어하거나 정신적 상처를 입지 않도록, 또한 아버지가 살던 그런 생활 방식에 휩쓸리지 않도록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았다. 남편이 한밤중에 집에 돌아올 때면,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 그를 변명하기가 비교적 쉬웠다. 그녀는 남편이 일이 많다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대낮에 그가 정부를 데리고 집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남자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비록 그를 ‘사람’이라고 부를 가치조차 없었지만, 그에게는 인간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 가지

²² 그리스에서는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3~4년 후 유해를 무덤에서 꺼내 씻은 뒤 특별한 납골당에 안치합니다. 만약 고인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았다면, 다시 무덤에 묻고 고인의 안식을 위한 기도를 더욱 간절히 올립니다. — *번역자 주*

음식을 주문해 놓고는, 낮에는 애인 중 한 명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왔다. 불쌍한 어머니는 아이들을 나쁜 생각으로부터 지키고자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녀는 남편의 애인이 마치 자신의 친구인 것처럼 꾸며, 남편이 “친구” 집에 들러 차로 그녀를 데리고 와서 집에 초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부적절한 장면을 보지 못하도록 다른 방으로 보내 숙제를 시켰다. 남편은 아이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도 음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다. 그는 수시로 새로운 애인을 데리고 왔다. 결국 아이들이 그녀에게 “엄마, 친구가 도대체 몇 명이나 돼요?”라고 묻기까지 했다. “아, 그냥 예전부터 알던 지인들일 뿐이야!”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게다가 남편은 그녀를 하녀처럼, 아니 그보다 더 나쁘게 대했다. 그는 그녀를 매우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했다. 이 여성이 매일 집을 불명예로 물들이는 두 마리의 짐승 같은 자들을 모시면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선한 생각을 심어주려 애썼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라! 게다가 그녀는 이 고통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었기에, “조금만 더 참자”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없었다. 이 악몽은 몇 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 저주받은 남자는 악마에게 자신에 대한 많은 권한을 내주었기 때문에, 끔찍한 악마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자제력을 잃으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탕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육체적 욕망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가다가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차는 박살이 났고, 그는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들은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한 뒤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불구가 되었다. 그의 애인 중 그 누구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에게는 더 이상 큰 돈이 없었고, 얼굴도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착한 아내는 그의 방탕했던 삶을 전혀 상기시키지 않은 채 정성껏 그를 돌보아 주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는 그의 영혼을 변화시켰다.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제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뒤 고해성사를 받았으며, 몇 년 동안 내면의 평화를 누리며 기독교인답게 살다가 주님 곁으로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장남이 사업에서 그의 자리를 이어받아 가족을 부양했다. 이 남자의 자녀들은 어머니로부터 선한 원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매우 화목하게 지냈다. 이 여성은 영웅적인 어머니였다.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고, 자녀들이 쓰라린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녀는 그 쓰라린 고통을 스스로 감당해 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았

고, 남편을 구했으며, 스스로 천상의 상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성에게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체된 가정의 아이들

— 게론다, 만약 한 가정에서 남편이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해성사를 했지만, 여전히 그 욕망의 영향을 받고 아내에게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떠나서 멀리서 살면서, 여러분이 괴로워하지 않도록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남편이 정말로 자신이 말하는 대로 느끼고 있다면, 이는 그가 애정이 많다는 증거이므로 아내는 인내해야 한다. 하지만 아내는 들은 말을 곧바로 믿지 않는 편이 낫다. 아내는 사안의 본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마치 고귀한 마음에서 “당신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 떠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게 되어 떠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결혼은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가족들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 칼리바에 완전히 정신이 나간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애인과의 사이에서 두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여자에게로 떠났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낳자, 그는 그녀와 이혼했습니다. 그 후 그는 세 번째로 결혼했다. 그의 세 번째 아내도 이혼녀였고, 역시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두 명과 혼외자 한 명이었다.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그는 또 두 명의 자녀를 낳았다. “잠깐만, 잠깐만,”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그를 멈추게 했다. “이 모든 아이들은 몇 명의 엄마에게서, 또 몇 명의 아빠에게서 태어난 건가요?”

그렇게 불쌍한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수성이 예민해 자신에게 닥친 불행으로 인한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는 아이들은 절망에 빠지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현실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마약에 손을 땁니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위한 돈을 어디서 구하는 걸까요?

가장 적은 양의 헤로인 한 번에 4천 드라크마가 듭니다. 많은 양은 6천에서 7천 드라크마 정도입니다.²³

이것이 바로 이전 세대의 방종하고 제멋대로인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자동 이혼법’에 따라 부모가 이혼한 다른 아이들, 즉 그 어린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울여름 내 칼리바를 거쳐 간 마약을 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불쌍한 아이들 대부분은 해체된 가정 출신이다. 스물일곱 살짜리 청년이 절망에 빠져 도움을 청하고 있다! 그리고 알다시피, 해체된 가정 출신 아이들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제 칼리바 근처 벤치에는 루콴이 든 통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오면 통에서 루콴 한 조각을 집어 먹기 시작하곤 하는데, 제가 칼리바에서 현관으로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아직 과자를 다 먹지도 않은 채로 곧장 달려와 제게 키스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손은 루콴에서 나온 설탕 가루로 온통 범벅이 되어 있어서, 나를 온통 더럽혀 버리곤 해요! 이 아이들은 사랑과 다정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모가 있든 없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든 가든, 함께 살든 안 살든 — 이 불쌍한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부부 생활에서의 “옳음”과 “잘못”

나는 일부 고해 신부들이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들에게 “참아라, 그것이 바로 네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어쩔 수 없지. 그런 인내에 대해 하느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들이 그 고해신부들을 찾아가면, 고해신부들은 아내들에게도 똑같이 “참아라, 참아라. 그래야 하느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부부 양쪽 모두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도 고해신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참으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혹은 배우자 중 한쪽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고해신부는 그에게 “참아라, 참아라.”라고 말한다. 이처럼 가정의 불화를 초래한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는, 마치 상대방을 참아주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달래지만, 실제로는 매일같이 상대방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²³ 1990년에 발표된 연설. 4,000 그리스 드라크마는 약 12 미국 달러에 해당한다. — *번역자 주*.

어느 날 한 남자가 내 오두막에 찾아와 아내와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그 집안은 이혼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도, 아내도 서로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둘 다 교사였고, 아이는 두 명이었다. 집에서는 절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수업이 끝나면 한 식당으로, 아내는 다른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샌드위치 같은 것을 사주곤 했는데, 불쌍한 아이들은 부모가 집에 돌아오면 주머니와 가방을 뒤져 아빠와 엄마가 무엇을 사 왔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큰 드라마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 사람은 교회에서 찬양을 불렀지만, 그가 찬양하던 그 교회에는 아내가 다니지 않았고, 다른 교회에 다녔다. 서로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심했던 것이다! “어쩔 수 없죠, 신부님,” 그가 내게 말했다. “저는 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정말 큰 십자가를요. 우리 집에서는 매일 싸움이 벌어집니다.” “고해 신부님께는 가보셨나요?”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네, — 그가 대답했습니다. — 갔습니다. 고해 신부님께서 저에게 ‘참아라, 참아라. 너는 큰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 그때 내가 그에게 말했지, — 지금 누가 더 큰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처음부터 시작해 보자. 결혼했을 때도 이렇게 다투었나?” “아니요, — 그가 대답했다. — 8년 동안 우리는 아주 사이좋게 살았어요. 저는 제 아내를 숭배했죠! 저는 하나님보다 그녀를 더 경외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 징징대고, 트집 잡고, 기이한 행동으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봐! 그는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경외했다고! “자, 어때,” 내가 말했다. “이리 와 봐, 친구! 그러니까 넌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경외했다는 거야? 그럼 지금 너희가 이런 지경에 이른 건 누구 탓이야? 너냐, 그녀냐? 네 탓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아내에게서 은혜를 거두신 거야.” 그러고 나서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마도 이혼할 것 같아,” 그가 말했다. “혹시,” 내가 물었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그래,” 그가 대답했다. “한 여자에게로 떠나려고 생각 중이야.” “정신 차려!,” 내가 말했다. “제정신으로 돌아와! 모든 게 다 네 탓이라는 걸 도대체 모르겠니?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경외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해. 그런 다음 아내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 ‘용서해 줘. 우리 관계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는 건 모두 내 탓이야.’ 그런 다음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으로서 경

외하고, 아내 앞에서는 아내로서 사랑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입니다.” 제가 한 꾸지람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울기 시작하며 제 조언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나를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기쁜 표정이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신부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해주셨습니다. 우리 부부와 아이들 모두 모든 것이 아주 좋습니다.” 보셨죠? 모든 게 자기 탓인데도, 정작 본인은 “매우 큰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절에 찾아와 남편에 대해 불평하는 여성들을 절대 옹호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경우 남편도 아내도 옹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깊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제 남편은 술을 마시고, 한밤중에 집에 들어오고, 욕을 해요...” “자, 들어보세요,”라고 제가 그녀에게 조언합니다. “남편이 밤에 취해서 집에 돌아오면,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만약 찡그린 얼굴로 그를 맞이하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 시간에 집에 오는 게 말이 돼?”, “도대체 언제쯤 변할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괴로움이야?”, “이러고도 벌써 하루 이틀이 지났잖아!”, “내가 이 모든 걸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고 잔소리를 늘어놓는다면, 악마는 그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이다. “너, 도대체 미쳤냐? 왜 이 바보 같은 여자와 헤어지지 않는 거야? 차라리 나가서 다른 여자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 즉, 네 말이 맞을지 몰라도, 악마는 다른 각도에서 그를 유혹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지금 벌어지는 일을 조금만 더 참아내며, 그에게 불만을 털어놓지 않고 기도한다면, 네게서 약간의 따뜻함과 빛을 보고 그는 반성하고 고쳐 나갈 것이다.”

그러다 남편이 돌아와서 또 이런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한다. “아내가 자꾸 잔소리하고, 징징대며 나를 괴롭혀...” “아, 이 자식아,” 내가 말한다. “뻔뻔한 놈! 네 아이들과 고생만 하는 아내는 자정까지 너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와서는 욕을 퍼붓기만 하냐! 부끄럽고 수치스럽구나! 설마 가족을 괴롭히려고 결혼한 건가?”

하지만 남편과 아내 모두 옳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순례자들이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들에게 마크리아니스가 얼마나 순결한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 주

었습니다.²⁴ 그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맑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청중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마크리아니스를 성자로까지 만들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왜요?”라고 내가 묻자, “그는 아내를 때렸기 때문이죠.”라고 대답했다. “자, 들어보세요,”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드리죠. 마크리아니스의 주머니에 돈이 조금 생기면, 아이가 있는 과부가 찾아오면 그는 그 여자에게 돈을 주곤 했습니다. 불쌍한 그의 아내는 불평을 늘어놓으며 그를 잔소리로 괴롭히곤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녀가 그에게 말하곤 했다. “자식들이 있잖아요. 왜 그 여자에게 돈을 줘요?” 그러면 그는 그녀에게 뺨을 때리며 말하곤 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부양해 줄 남편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불쌍한 여자는 남편이 없어요. 누가 그녀를 돌봐줄까요?” 즉, 마크리아니스도, 그의 아내도 옳았던 것이다.”

게다가, 배우자 중 한 명이 영적으로 살아간다면, 설령 옳더라도 그는 옳다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는 불의에 대해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그는 모든 일에 대해 신성한 정의가 요구하는 대로 대해야 한다. 그는 상대방에게 평안을 주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누군가 연약함으로 인해 실수를 저지른다면, 그에게는 죄를 경감시켜 줄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나은 영적 상태에 있으면서도 첫 번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발짝 다가가지 않는 다른 사람은 훨씬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설령 영적인 사람들이 모든 일을 세속적인 관점, 즉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정의의 입장에서 대한다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세속 법정을 전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받는 것입니다.

²⁴ 마크리아니스 요안니스(1797-1864) — 소장, 엘라다의 국민적 영웅. 그리스 혁명(1821-1830) 당시 터키에 맞서 가장 헌신적으로 싸운 투사 중 한 명. 혁명과 해방 투쟁에 관한 『회고록』의 저자. 이. 마크리아니스의 삶은 하나님과 이웃, 조국에 대한 희생적인 기독교적 사랑의 훌륭한 본보기이다. — 역자 주.

2부.

부모와 그들의 의무에 대하여

“자녀를 낳아 육신을 부여한 부모는 가능한 한 그들의 영적 부활을 돕도록 해야 한다”

제1장.

자녀의 탄생에 대하여

성 요아킴과 성 안나 — 가장 무아지경에 빠진 부부

— 게론다, 성 안나와 성 요아킴, 즉 ‘하느님의 부모’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전에 그분들에 대해 이야기하시던 중이셨던 것 같은데...

— 어릴 적부터 저는 성 요아킴과 성 안나를 지극한 경외심으로 대했습니다. 심지어 수도 생활에서 ‘요아킴’이라는 이름을 받기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께 얼마나 큰 빛을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 요아킴과 성 안나는 역사상 가장 초연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세속적인 속셈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 정욕 없이 — 태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에 정욕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대로, 또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인간의 탄생이 마땅히 그래야 했던 것처럼, 정욕이 없는 부부, 즉 순수한 부부가 나타나자마자,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바로 그 ‘순수한 피조물’이 시며, 훗날 그분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내 생각에, 성 요아킴과 안나처럼 순결하고 정숙한 부부가 더 일찍 지상에 나타났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더 일찍 이 땅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미혹에 빠집니다. 경건함을 가장하여 그들은 성모 마리아께서 원죄 없이 태어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서는 원죄에서 면제되신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태어나기를 원하신 바로 그 방식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순결하신 분’⁽²⁵⁾이셨는데, 이는 그분의 잉태가 육체적 쾌락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스러운 부모께서는 하느님께 자녀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그들은 [부부로서] 합했다. 육체적 정욕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순종 때문이었다. 나는 시나이 산에서 겪은 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²⁶

결혼 생활에서의 절제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선한 것을 지으셨다.*”²⁷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자연스러운 끌림을 느낀다. 만약 이러한 끌림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가정을 꾸리려고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중에 가정에서 마주하게 될 어려움들, 특히 자녀 양육 및 기타 가정 문제와 관련된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 결혼을 결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초적 존재들이 타락한 이후,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색이 5퍼센트 정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10퍼센트, 30퍼센트 등등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세속적인 지혜가 고작 5퍼센트에 불과한 사람들, 즉 순수하고 정결한 지혜를 지닌 사람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무욕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²⁵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잉태와 탄생은 처녀 잉태가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순결하셨다”는 것은, 성 요한 다마스쿠스가 그의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어머니이자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관한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그분이 “순결하게”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모님 자신도 자신의 수련을 통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룩함을 배가시키셨으며, “그 어떤 불필요한 생각이나 영혼을 해치는 생각도 그것을 맛보기 전에 물리치셨다”(PG 96, 669 A, 676 B 참조).

²⁶ 1962년부터 1964년까지 파이시이 장로는 시나이 산의 성 에피스티미오스와 갈락티온의 은수원에서 수행에 전념했다. 그가 언급한 기적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에게 밝히지 않았다.

²⁷ 참조: 창세기 1, 31.

가정 생활을 선택했다고 해서 기혼자들이 인간은 단지 육체만이 아니라 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어도 된다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며, 자신[과 자신의 정욕]을 제멋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²⁸ 부부는 육체를 영에 복종시키기 위해 고행을 감

²⁸ 장로 파이스이스는 자신의 편지 중 하나에서 부부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당신은 기혼 사제들과 평신도들의 부부 관계에 대해 나에게 묻고 있다. 성부들은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틀에 맞춰 살 수 없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명확히 정의될 수 없는 주제임을 의미합니다. 성부들은 부부 관계에 대한 문제를 각 사람의 판단, 사랑, 영적 감수성, 그리고 힘에 맡기고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수련 중인 사람들—기혼 사제들과 평신도들—의 삶에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 있으며, 저는 그들과 친분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정을 꾸리고 부부 관계를 맺어 한 명, 두 명, 혹은 세 명의 자녀를 낳은 후, 그 이후로는 순결을 지키며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녀를 낳기 위해 일 년에 한 번 부부 관계를 맺고, 나머지 시간에는 형제자매처럼 지냅니다. 또 다른 이들은 금식 기간 동안 부부 관계를 자제했다가, 그 후에 다시 관계를 맺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이조차도 지키지 못합니다. 일주일 중반에 부부 관계를 맺어, 성체 성사 전 3일과 후 3일 동안 정결을 지키는 부부들도 있다. 어떤 이들은 이 점에서도 실수한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사해 줄 권한을 주시며,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목표는 각자가 자신의 영적 능력에 맞춰 분별력과 경건함으로 노력하는 데 있다. 물론 처음에는 젊음이 방해가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육신은 약해지고 영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때, 기혼자조차도 신성한 기쁨의 일부를 맛보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육신의 쾌락에서 멀어지며, 이를 이미 완전히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이처럼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정화되며, 가볍고 완만하며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천국에 이릅니다. 반면 수도사들은 바위를 기어오르듯 수직으로 곧장 나아가며 천국에 이릅니다. 또한 부부 관계의 문제는 오로지 너만의 문제가 아니며, 네가 이 문제를 혼자서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서로 합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 [절제]에 나설 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강한 배우자는 연약한 배우자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쪽이 상대방을 속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절제를 하기로 동의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고통을 겪습니다. 대개 이런 일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여성들에게서 발생하지만, 그들 안에서는 육신의 욕망이 작용합니다. 종종 분별력 부족으로 인해 경건한 남편들 중 일부는 아내의 동의의 말을 듣고, 분별 없이 오랫동안 부부 관계를 자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아내들은 고통을 겪으며 신경 쇠약이나 그와 유사한 형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한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덕을 쌓아 더 순결하게 살고 싶어 하며, 더 긴 간격을 두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아내들에게 유혹이 찾아오고, 그들은 외부에서 누군가를 찾으려 한다. 실수가 발생하면 아내들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남편들은 아내들이 [부부 관계에] 마음이 없음을 보고 더욱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아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육체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설명할 수 있는 여성의 이기심과,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여성이 겪는 질투에 있습니다. 남편이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아내는 그를 앞지르고자 하며 스스로를 꺾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사적인 영역에 발을 들인 점 용서해 주

수해야 한다. 영적 지도자의 인도 아래 부부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점차 그들은 더 높은 기쁨, 즉 영적이고 천상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육체적인 기쁨을 추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부부는 육체적인 정욕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절제하는 데 힘써야 한다. 만약 부모가 매우 육체적인 사고방식을 보인다면, 그들의 자녀는 어릴 때부터 비슷한 성향을 갖게 된다. 이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육체적인 사고방식을 물려받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정욕과 마찬가지로, 육체적 집착도 아직 부드럽고 온화하여, 타지 않는 어린 썰기풀과 같아서 그 잎을 쉽게 만질 수 있다. 하지만 자라나면 잎이 화상을 입히기 시작한다. 육신적 사색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분별력 있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에 의해 치유될 수 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세속적 사색을 뿌리 뽑지 못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녀의 출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논리

저를 찾아오는 부부들은 종종 자녀 출산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제 의견을 묻곤 합니다. 어떤 부부는 한두 명의 자녀를 원하고, 다른 부부는 자녀를 많이 낳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녀 출산이라는 문제를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부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새들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큰 돌보심을 베푸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열여덟 살에 결혼한 한 선원이 생각납니다. 그 자신도 가난했고, 가난한 집안 출신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실 같은 곳을 빌려 그곳에서 비좁게 지냈습니다. 아내도 저임금 일 자리를 가지고 있어서, 두 사람은 매우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식탁 대신에, 우

십시오. 수도사의 일은 염주일 뿐, 이런 주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 저는 (멀리서나마 알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즉 세속의 형제자매들을 괴롭히고 원수가 [그들을 상대로] 활동할 기회를 주는 문제에 대해 조금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부가 성격이나 기질 면에서 서로 닮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온화한 반면, 다른 한 사람은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면, 더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점차 강한 쪽의 도움으로 약한 쪽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둘 다 건강해진 상태에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Δ. 타츠 신부의 저서 『게론타스 파이시오스』, 코니차, 1995, 176—178쪽에서 발췌.)

연히 운 좋게 사게 된 복숭아 상자가 놓여 있었다고요! 그러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그들은 굶주림과 싸우며 간신히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부유해져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일부 부부들은 우선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한 뒤에야 비로소 아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부부들은 “지금의 삶이 쉽지 않으니, 아이는 한 명만 낳고 그만두자. “한 명 키우는 것도 벅찬데!”라고 말하며 다른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각함으로써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보시면, 그들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시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기독교 정신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부 생활의] 목표여야 한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은 채 결혼을 서두릅니다. 사람들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자녀를 많이 낳기를 꺼리면서도, 정작 자신의 아파트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키웁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요즘 미국에서는²⁹ 개 대신에 아주 비싼 품종의 돼지를 집에서 기른다고 합니다. 이 돼지들은 작게 자라고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기를 수 있도록 특별히 개량된 품종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키우는 게 번거롭고 돌보는 일이 힘들어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끼 돼지들은 씻기지 않는 건가요? 개는 뭐, 적어도 경비견 역할은 하니까요. 하지만 집에서 돼지를 키운다니!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호주에 있을 때,³⁰ 개와 고양이를 위한 “양로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동물 묘지까지 있었죠! 이대로라면 사람들은 고양이에게 먹일 쥐를 키우다가 통조림으로 만들어 팔고, 개에게 먹일 토끼와 산토끼를 키우다가 통조림으로 만들어 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라: 누군가 개를 죽이면, 사람을 죽였을 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물론 그 개가 누구의 소유였는지에 따라

²⁹ 1990년 11월에 발표됨.

³⁰ 1977년, 교회의 초청을 받아 장로는 그곳에 거주하는 정교회 그리스인들에게 영적 도움을 주기 위해 호주를 방문했다.

다르겠지만).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와버린 것인가!.. 요즘 사람은 개보다 더 값이 싸다. 나는 어떤 영성 지도자들이 하는 말에 놀라곤 한다. 어느 날 순례자들이 내 칼리바에 찾아와 물었다. “헤론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이 부부가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고 어디에 썼습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라고 나는 놀라며 물었다. “— 그런 말을 어디서 들으셨나요?” “네, — 그들이 말하길, — 어떤 신부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부님을 만나서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로 그런 말을 했나요?” “네,” —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읽은 거야?” — “성 요한 크리소스톰이 그의 『동정함에 관한 설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그가 대답했다. “자, 들어봐,” — 내가 그에게 말했다. — “나는 성 요한 크리소스톰의 글에서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없는데, 성인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성인은 다른 것을 염두에 두신 거야. 책을 가져와 봐,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볼게.” 그가 책을 가져와 해당 부분을 보여주었다. 읽기 시작하니 성인이 다음과 같이 쓰신 것을 보았다. “지금은 인구가 늘어났고, 여러분에게도 동정 생활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예전처럼 사람들이 후손을 남겨야 했던 때와는 다릅니다.”³¹ 즉, 성인은 “아이를 낳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신부님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육을 받은 사제인데도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다니! 그는 자신이 박식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요한 크리소스톰의 신학적 유산을 연구하는 학자임을 과시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여기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왜곡된 해석이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아시나요?

세속적인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가족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는 것을 피하거나, 낙태를 통해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혈통을 끊어버립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반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신성한 은총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들을 도와주셔야 할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

³¹ 참조: 성 요한 크리소스톰. 『동정성에 관하여』, 17, PG 48, 546.

리는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몇 명의 자녀를 주시든 그 자녀들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양육하는 기독교인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모든 자녀들은 마음의 균형이 잡혀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들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은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선한 세대가 힘을 얻고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애쓰지만, 선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민족이 땅 위에서 사라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출산에 관한 어려움

— 게론다, 비정교회 신자인 여성이 자녀가 없다면, 그녀가 요청할 경우, 우리가 성 아르세니오스 카파도키아스의 성유물에 십자 모양으로 대고 축복한 허리띠를 축복의 의미로 주는 것이 허용될까요?³²

— 그녀가 성인의 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법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믿는다면, 그런 허리띠를 차는 것은 괜찮습니다.

일부 불임 여성들은 결혼해야 할 시기에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영적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³³ 일부 까다로운 여성들은 신랑감을 고르며 “아니, 이 사람은 내 취향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내 입맛에 안 맞아”라고 말합니다. 남자에게 결혼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런 여자는 동시에 다른 남자도 눈여겨보다가, 나중에 첫 번째 남자에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그녀가 적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기보다는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 이런 여자가 도대체 어떤 가정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또 젊은 시절 무질서하고 죄 많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불임이 된 여성들도 있습

³² 카파도키아의 아르세니오스 성인의 행적에는, 불임의 경우에 성인이 어떤 끈을 축복하여 불임 여성에게 주어, 그녀가 그것을 허리에 두르면 불임이 해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 장로는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성 아르세니우스의 유물에 리본 띠를 십자 모양으로 대고, 그것을 불임 여성에게 주어 몸에 차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³³ 영적 법칙에 대해서는 본 책 제5부 제4장을 참조하십시오.

니다. 많은 식품에 온갖 화학 물질과 호르몬이 들어 있어, 식습관이 나빠서 불임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늦게 태어나면 그들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불안과 마음의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불안과 마음의 초조함을 떨쳐내고 자신의 삶을 올바른 영적 길로 이끌 때 비로소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어떤 부부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 요아킴과 안나, 그리고 성 자카리아와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노년에야 비로소 아이를 주셨는데, 이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부는 언제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며 맡기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 주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사랑과 관대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지요! 과연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한 부부에게는 다섯 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부모의 동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노년에 곁에 둘 아이를 하나 더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였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소망은 달성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졌고, 그들에게 노년의 위안이 되어 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이도 잘 키워서 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람만의 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녀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녀를 한 명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많은 가정이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에게서 집요함과 이기심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갖게 해 달라는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면, 그들의 집요함과 이기심을 부추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

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돌보시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³⁴ 이 경우 그들의 간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신의 뜻을 고집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부 불임

— 게론다, 한 부부가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숨겨진 지중해빈혈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자녀를 가져도 되는지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영적 지도자와 상의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 영적 지도자는 이러한 부부에게 자녀를 갖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러한 부부에게 절제를 실천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순결한 마음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성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 게론다, 영적으로 매우 충실하게 살며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시는데, 이는 그들이 온 세상의 아이들을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사랑함으로써, 그 아이들의 영적 부흥을 돕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없었지만, 그가 집을 나서면 이웃집 아이들이 달려와 그를 사랑으로 둘러쌌습니다. 아이들은 그가 일하러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자신의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지만, 이웃집 아이들이 모두 그를 아버지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그가 나름대로 그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돕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연과 같습니다.

³⁴ 마태복음 6, 10.

반면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시어, 어떤 고아를 입양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한 분의 선한 기독교인 변호사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사는 도시인 에 가게 되어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저를 매우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는 그곳에서 하루 동안 머물며 손님으로 지냈습니다. 그의 아내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덕목 면에서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저는 남편이 어떤 영적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남편을 통해서는 아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는 그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다른 기독교인들을 통해 이 사람들에게 대해 알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하게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다. 피고인이 실제로 사기꾼임을 알게 되자, 그는 그를 변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엄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는 그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더 가벼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썼다.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부당한 혐의가 씌워지는 것을 보면, 그는 전적으로 무상으로 그를 변호하며 법정에서 그 불쌍한 사람을 무죄로 입증하려고 애썼다. 이 사람은 매우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번 적은 돈으로도 생계를 꾸릴 뿐만 아니라 가난한 가정들을 돕는 데에도 충분했다. 이 신실한 변호사의 집은 그가 살던 도시의 [영적]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진정한 영적 오아시스였다. 그곳에는 고통받는 이들, 가난한 이들, 실업자들이 모였고, 가정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찾아왔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불행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다정한 아버지처럼 그들을 보살폈다.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지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를 사랑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그가 가난한 사람을 어떤 일이나 질병에서 돕기 위해 고위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면,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친어머니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대화하던 중 이 여인은 무심코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신부님, 결혼하기 전에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어요. 결혼식 직후, 좋은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해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저는 그리스도께 많은 아이들—설령 스무 명이라도—를 주시기를 간구했지만, 불행히도 그분은 단 한 명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제가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당신에게는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런데도 불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선한 뜻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당신에게 보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토록 많은 아이들의 영적 중생을 돕고 계신 당신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자녀가 많은 어머니들조차도 훨씬 뛰어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가 받을 그 보상도 훨씬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거둢남으로써, 아이들은 영생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영적으로 보장받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부부는 한 소녀를 양녀로 삼아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 소녀 명의로 넘겨주었다. 양녀는 노년에 그들을 돌보았고, 장례를 치른 뒤 수도원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부부의 집은 그야말로 수도원과 다름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교회 예배가 거행되었습니다. 저녁 기도와 밤 기도 시간에는 다른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도 그들과 함께 기도했고, 자정 기도와 아침 기도는 세 사람이 함께 드렸습니다. 이 축복받은 부부는 많은 고통받는 이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도 평안히 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건대, 가장 훌륭하고 자녀가 가장 많은 아버지는 영적으로 거둢난 후, 전 세계 아이들의 영적 거둢남을 도와 그들이 낙원에서 영혼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 게론다, 불임으로 고통받는 일부 부부들은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네, 그런 분들은 아이를 입양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기 아이를 낳고 싶다는 욕망에 [이 기적으로]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게론다, 입양 부모는 아이가 일정 나이가 되면 그 아이에게 자신이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까?

— 아이가 좀 더 자랐을 때 이 사실을 알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양부모가 아이를 진심으로,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 중에는 친아버지나 친어머니보다 낯선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하나님께서서는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그런 가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대가족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한다는 전제 하에,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유리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돕습니다. 장녀는 어머니를 돕고, 둘째는 막내를 돌보는 식으로 이어집니다. 즉, 이러한 아이들은 서로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과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막내는 형이나 누나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과 존경은 다자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따라서 자녀가 한 명이나 두 명뿐인 가정이라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통 [자녀가 적은 이런 가정에서] 부모는 아이들이 무엇이든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노력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갖게 되지만, 그 결과 세상사에 전혀 적응하지 못한 채 자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부모의 외동딸을 생각해 보자. 그녀에게는 하녀가 있어 제때 식탁을 차려 주고, 방을 정리해 주며, 필요한 집안일을 모두 해준다. 가정부들은 일을 대가로 돈을 받지만, 동시에 타인에게 도움을 주면서 [덕을] 갈고뉘게 됩니다. 반면, 그녀가 모시는 그 소녀는 어떤 희생 정신도 배우지 못한 채, “그루터기”처럼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자녀가 많은 가정 출신의 여성과 결혼할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궁핍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희생하는 데 익숙해지고, 항상 부모를 도울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이런 일이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자녀 가정에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마음이 넓습니다. 점령기³⁵에 이웃집 중 한 곳에서 한 어린아이가 고아가 되어 홀로 남았던 일이 기억납니다. 열 명의 자녀를 둔 가난한 가장 한 분이 그 불쌍한 고아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친자식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셨는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³⁵ 1941-1944년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에 의한 그리스 점령. — 역자 주.

자녀가 많은 사람은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여섯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 저에게, 자신이 집을 빌리고 있는 집주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자신을 거리로 쫓아내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집 안팎에 배설물을 마구 버리는 두 명의 사람과 다섯 마리의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족에게 집을 빌려주는 많은 집주인들은, 아이들이 집을 망가뜨릴까 봐 두려워하여 자녀가 많은 가족에게는 집을 빌려주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는 정말 지칠 대로 지쳐 버렸습니다. 어떤 집주인은 그를 집에서 쫓아냈고, 다른 집주인은 아예 집을 빌려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아이들과 짐을 챙겨 집집마다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 남자는 쉴 새 없이 일했다. 그는 집주인들과 월세 문제를 놓고 흥정조차 하지 않았다. 집주인들이 그저 몇 년 동안 그 집에서 살게 해주고, 끊임없는 이사를 잠시나마 멈출 수 있게 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했을 테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를 위해 가슴이 아팠다. “낙심하지 마세요,”라고 내가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네 아이들도 돌보시고 계신다. 그분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즉 영혼을 주시는 창조주이시니, 반면 너와 네 아내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서 아이들에게 육신을 주는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보다 너희 아이들을 더 많이 돌보신다.” 두세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 남자는 기쁜 표정으로 다시 내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을 주셨고, 돈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고향 마을로 돌아가던 중, 버스 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권 판매원이 제게 다가와 복권을 사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복권은 사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는 것을 보고, 어쩌면 이 사람이 정말로 궁핍한 처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불러 세우고, 복권 한 장 값을 지불할 돈을 꺼냈지만, 정작 복권 자체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판매원은 정직한 사람이라 그냥 돈을 받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도 마음이 상했고,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좋아. 복권 한 장만 줘. 어쩌면 나한테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기뻐하게 해 주자,” 하고 나는 생각했다. “

그리고 나는 내 ‘טיפikon’을 어겼으니 조금 속상해해도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런데 내가 산 그 복권이 당첨된 것이다. 나는 거액을 당첨받아 집을 샀고, 게다가 아이들을 키울 돈도 남았다. 그리고 복권 판매원이 어디에 사는지 알아낸 뒤, 나는 몰래 그의 집으로 가서 우편함에 상당한 금액이 든 봉투를 넣어 두었다. “만약 제가 그 돈을 직접 건네줬다면, 그는 받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낙태는 끔찍한 죄입니다

— 계론다, 40세인 한 부인, 이미 성인이 된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임신하여 현재 임신 3개월 차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낙태를 강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그녀가 낙태를 한다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그녀의 다른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질병과 불행한 사고를 통해 말이죠. 오늘날 부모들은 낙태를 통해 자신의 자녀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기가 병약하게 태어나도 세례를 받으면 천사처럼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사후 운명에 대해 걱정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부모에게는 다른 — 건강한 — 아이들이 남아 있었고, 동시에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강한 아이들을 낙태로 죽이고, 아픈 아이들은 억지로 이 세상에 붙잡아 두려고 애씁니다. 부모들은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영국이나 미국을 오가며 애를 씁니다. 이처럼 대를 거듭할수록 아이들은 점점 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성공해 아이들이 죽지 않고 결혼을 한다 해도, 그들이 낳은 아이들도 병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보이시나요? 하지만 만약 부모들이 한 명 대신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다면, 아픈 아이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해외로 떠돌며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픈 아이는 주님께로 돌아갔을 것이고, 천사처럼 그분 곁으로 갔을 것입니다.

— 게론다, 제가 어디선가 읽은 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5천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³⁶ 그중으로 인해 20만 명의 여성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 아이들을 죽이는 이유는, 인구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말하듯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빈 땅도, 숲도 그렇게 많은데, 현대의 기술력을 활용하면 이를 예를 들어 올리브 과수원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고, 이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숲을 베어낸다고 해서 산소 부족이 발생할 위험도 없습니다. 야생 나무가 있던 자리에 재배용 나무를 심을 테니까요. 미국에서는 밀을 태워 버리는데, 여기 그리스에서는 과일과 다른 농산물을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아프리카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비시니아에 끔찍한 가뭄이 닥쳐 사람들이 쇠약으로 죽어가던 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돕는 지인인 선주에게, 과일과 채소를 땅에 묻는 사람들에게 를 통해 연락해, 굶주리는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배에 무료로 실어 달라고 요청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부탁해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인간 태아가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끔찍한 죄입니다. 낙태는 살인이며,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지 않은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인간의 생명이 수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끔찍한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낙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부활절 후 일주일째 되는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양초 두 개를 켜서 통조림 캔 두 개에 꽂아 두었습니다. 보통 이 양초들은 제가 잠든 시간에도 계속 타오릅니다. 저는 영적·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이 양초를 켜는데, 여기에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나는 돌담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밭을 보았다. 밭에는 밀이 심어져 있었고, 싹이 이제 막 자라

³⁶ 1989년에 발표되었다. — *번역자 주*. 2001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19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졌다. 실제로는 이 수치가 훨씬 더 높다. — *편집자 주*.

기 시작한 참이었다. 나는 담장 뒤에 서서 고인들을 위해 촛불을 켜 돌담 위에 올려놓았다. 왼쪽으로는 물 한 방울 없는 불모의 땅이 보였는데, 온통 바위와 돌투성이 절벽뿐이었다. 이 지역은 수천 개의 가슴을 찢는, 심장을 찢어 놓는 비명들이 뒤섞인 강렬한 굉음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무리 냉담한 사람이라도 이 소리를 듣고는 무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비명 소리에 괴로워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던 중,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아직 이삭이 맺히지도 않은 밀이 심어진 밭은, 부활할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잠든 곳입니다. 가슴을 찢는 비명 소리에 몸서리치며 떨고 있는 그곳에는 낙태로 살해된 아이들의 영혼들이 있다.” 그런 경험을 한 후, 나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느꼈던 그 엄청난 고통에서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누워서 쉴 수도 없었다.

— 게론다,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이 폐지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가능은 하지만, 국가와 교회가 나서서 사람들이 저출산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알게 해야 합니다. 사제들은 사람들에게 낙태법이 복음의 계명에 위배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낙태를 하는 여성이 처하게 될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보라: 예의범절을 중시하던 유럽인들은 그 문화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 반면, 예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우리는 그 경외심을 잃어버렸고, 미래 세대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낙태를 허용하고, 사실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복음의 계명을 어긴다면, 그 책임은 오직 그 사람에게만 돌아간다. 그러나 복음의 계명에 위배되는 것이 국가의 법이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온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을 훈육하기 위함이다.

제2장.

자녀 양육에서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의 사랑

— 게론다, 한 번은 사랑 덕분에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죠.

— 단순히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신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합니다.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어머니는 굶주린 채로 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느끼는 기쁨은 자녀들이 느끼는 기쁨보다 더 큼니다. 아이들은 육체적으로 영양을 섭취하지만, 어머니는 영적으로 영양을 섭취합니다. 아이들은 음식의 감각적인 맛을 느끼는 반면, 어머니는 영적인 기쁨을 누립니다.

어떤 여자는 결혼 전까지 아침 10시까지 자면서도, 어머니가 아침 식사로 우유를 데워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그런 여자는 어떤 일도 하기 귀찮아한다. 그녀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삶을 원한다. 모두가 자신을 모셔주기를 바란다. 어머니에게도 불만이 있고, 아버지에게도 불만이 있지만, 정작 본인은 빈둥거리는 삶을 즐긴다. 그녀의 [여성적인] 본성 속에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자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자매로부터 도움과 축복을 받아내기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스로 어머니가 되자, 그녀는 마치 스스로 충전되는 장치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일에 더 많이 몰두할수록 더 많이 충전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 안에서는 사랑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더러운 것을 만지기만 해도 혐오감을 느끼고 향기로운 비누로 손을 꼼꼼히 씻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기가 기저귀에 실수를 해서 빨아야 할 때, 마치 마말레이드 사탕을 손에 쥔 듯한 기분을 느낀다! 혐오감은 전혀 없다. 예전에는 누군가 그녀를 깨우면, 방해받았다는 사실에 큰 소리로 불만을 터뜨리곤 했다. 지금은 아이가 울면 밤새 잠을 자지 않지만,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돌보며 기뻐합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되었고, 희생심과 사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과 희생정신을 발휘한다는 점도 언급해야 한다. 아버지에게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가 어머니만큼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이들 때문에 고생하고, 아버지보다 아이들을 더 많이 돌보지만, 동시에 아이들에게서 ‘에너지를 충전’하며 온전히 자신을 바친다. 반면 아버지는 어머니만큼 아이들 때문에 고생

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서 ‘에너지를 충전’받지도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만큼 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찾아와 “신부님, 제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간청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시나요! “제 아이가 길을 잃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남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덟 아이를 둔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 불쌍한 어머니는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을 앞으로 밀어내며, 모두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일렬로 줄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아버지는 정말 드뭅니다. 러시아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들 덕분입니다. 아버지의 포옹은—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메마릅니다. 반면 어머니의 포옹은—설령 신이 없더라도—그 안에 모유가 담겨 있다. 아이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 사랑 또한 어머니의 사랑이 주는 다정함과 온기 덕분에 더욱 깊어진다.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올바른 태도

자녀가 없는 여성이 자신의 처지를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고통을 겪게 된다. 나는 자녀가 없는 한 여성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 불쌍한 여자의 남편은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몇 채의 집이 있었는데, 이를 임대해 주고 있었다. 게다가 그들 부부가 살고 있는 큰 집도 있었는데, 남편은 결혼 당시 그녀에게 상당한 지참금을 받아준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다. 시장에 가는 것도,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게다가 요리도 할 줄 몰랐다. 집에 앉아서 식당에 전화를 걸면 거기서 준비된 음식을 가져다주곤 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그녀를 기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워했다.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있다가,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저건 또 마음에 안 들었다. 한 가지만 하는 건 지루하고, 다른 건 힘들고... 그러다 우울한 생각에 짓눌리기 시작했고, 결국 약을 먹어야만 했다. 남편은 그녀가 좀 더 즐겁게 지내도록 재택근무를 했지만, 그녀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옆에서 맴돌기만 했다. 물론, 그녀는 그 불쌍한 남편에게 지겨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다른 모든 것 외에도, 그 사람은 일을 해야 했으니까! 그녀를 만나서 나는 이렇게 조언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앉아 있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완전히 썩어버릴 거예요!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방문해 보세요...” “신부님, 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 그녀가 대답했다. —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내가 말했다. “, 이렇게 해 봐: 첫 번째 시간을 읽을 때가 되면 그걸 읽고, 그다음 제 시간에 세 번째 시간을 읽고, 그렇게 해 나가.³⁷ 한두 번 절도 하고...” “못 하겠어요,”라고 그녀가 대답했다. “아이고,” 내가 말했다. “그럼 차라리 성인들의 행적을 읽어 봐.” 나는 그녀에게 성인의 삶을 이룬 모든 여성들의 전기를 읽으라고 지시했다. 읽은 내용 중 무언가가 그녀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엄청난 고생 끝에 그녀를 정상 궤도로 되돌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이 여성은 스스로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다. 강력한 엔진이지만, 그 안의 기름이 굳어버린 상태였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본성적으로 지닌 사랑이 발산될 길을 찾지 못하면 그녀의 마음은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 보세요. 어떤 여성은 다섯, 여섯, 심지어 여덟 명의 자녀를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불쌍한 여자는 주머니에 한 푼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기뻐합니다. 그녀에게는 고귀한 너그러움과 용감한 끈기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자신의 목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일이 제 기억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제 지인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주 어릴 때 결혼하여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단사였던 그녀는 옷을 지어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녀가 찾아와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이제 손주들도 있잖아요!” 그 말을 할 때 그녀의 가슴은 기쁨으로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여동생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걱정 없는 처지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녀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차라리 묻지 않는 편이 낫겠네요... 그녀는 늙은 어머니가 자신을 모셔주기를 기다리면서도, 어머니가 충분히 성심껏 돌보지 않는다고 불평하기까지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녀는 어머니가 되지 않았기 때

³⁷ 시간 기도 — 하루 예배 순서의 일부를 이루는 간략한 예배 순서이다. 정해진 시간에 봉독되는 시간 기도는 로마 시대에 하루가 나뉘었던 시간대를 거룩하게 한다. 첫 번째 시간을 봉독하는 시간은 오전 6시경, 세 번째 시간은 오전 9시경, 여섯 번째 시간은 정오경, 아홉 번째 시간은 오후 3시경이다.

문에, 내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핍한 이들을 돕는 일을 통해, 그녀는 여성의 본성에 이미 내재된 그 사랑을 실천에 옮기고, 그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 비록 마음속에 사랑을 키우지 않더라도 —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면, 원자재가 없는 채로 가동된 기계와 같아져 헛돌며 스스로 떨어지고 다른 이들도 뒤흔들게 됩니다.

어머니의 인내심

— 게론다, 성 네크타리오스 에기노스는 수녀들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에서, 그들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경건한 남성들이 아니라 경건한 여성들을 본받으라고 권고합니다.³⁸ 성인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어쩌면 여성들에게는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 누구 말이에요? 이 여성들에게 체력이 부족하다고요? 전 오히려 그들의 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들은 일곱 줄의 심장을 가진 존재들이잖아요! 여성의 몸은 남성보다 약할 수 있지만, 그녀에게는 [강한] 심장이 있고, 그 심장을 활용해 일할 때 남성의 힘을 능가하는 체력을 발휘하죠. 그렇다, 남자에게는 육체적인 힘이 있지만, 여자가 가진 그런 마음은 그에게 없다. 어느 날 나는 새끼 고양이들을 데리고 내 오두막으로 찾아온 한 마리의 고양이를 지켜본 적이 있다. 뼈만 앙상할 정도로 말라서 갈비뼈가 하나하나 셀 수 있을 정도였다. 어느 날 내 마당으로 큰 사냥개가 뛰어들어왔다. ‘쿠르드’라고 불리던 수컷 고양이는 재빨리 도망쳤지만, 그 암컷 고양이는 싸울 준비를 하고 몸을 활처럼 휜 채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며 개에게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온 걸까! 보라, 그녀는 자신의 새끼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³⁸ Αγίου Νεκταρίου, Επισκόπου Πενταπόλεως, 35 Ποιμαντικές Επιστολές, Επιστολή 26η. Εκδ. αΎπακοή. Αθήνα, 1993. Σ. 12.

어머니는 고생하며 기진맥진하지만, 그 와중에도 고통이나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를 [일하러] 몰아세우지만, 아이들을 사랑하고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해냅니다. 하루 종일 한쪽 옆으로 누워만 있는 사람조차 어머니보다 더 지칩니다. 기억해 보니,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먼 곳에서 물을 길어 와야 했을 뿐만 아니라, 요리도 하고, 빵도 굽고, 옷도 빨고, 게다가 발일도 하셔야 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까지 어머니를 쉴 새 없이 괴롭혔다. 우리가 서로 다투면, 어머니의 수많은 일과 번거로움에 심판 역할까지 더해지곤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 의무야. 나는 이 모든 일을 해야 하고 불평해서는 안 돼.” 어머니는 그 말에 따뜻한 의미를 담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사랑했고, 자녀들을 사랑했으며, 수많은 일과 걱정 속에서도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일을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머니는 집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나이는 예전만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주들까지 키우기 위해 점점 더 자신을 희생하고 계십니다. 그녀에게 남은 기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녀는 모든 의무를 진심을 다해 수행하며, 그 기력은 남편의 기력이나 심지어 그녀가 젊었을 때 가졌던 기력조차 뛰어넘습니다.

— 아시다시피, 게론다, 여성들은 병에 걸렸을 때도 남성들보다 훨씬 침착한 편입니다.

— 이 일이 왜 그런지 알아? 엄마는 자기 아이가 아픈 상황을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에, 병이 대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이 분야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엄마는 아이가 몇 번이나 열이 올랐고, 또 몇 번이나 열이 내렸는지 기억하고 있어. 그녀는 다양한 상황을 목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숨이 막히거나 의식을 잃은 아이가 뺨을 살짝 두드리기만 해도 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며,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열이 나거나 얼굴이 창백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남자는 당황하여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서 빨리 의사에게 전화해야지!”

임신 및 수유

아이의 양육은 임신 때부터 시작됩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가 불안해하고 속상해하면, 자궁 속의 태아도 불안해합니다. 반면 어머니가 기도하며 영적으로 살아간다면, 자궁 속의 아기도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임산부는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고, 복음서 구절을 읽으며, 교회 찬송가를 부르고, 마음의 근심을 떨쳐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도 그녀를 속상하게 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경우 태어난 아이는 거룩한 아이가 될 것이며, 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나 자라날 때나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는 아이에게 모유를 먹여야 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좋습니다. 모유는 아이들에게 건강을 선사합니다. 모유를 먹으며 아기들은 단순히 우유뿐만 아니라 사랑, 다정함, 위로, 안정감까지 흡수하며, 이를 통해 강인한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모유 수유는 어머니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지 않으면 여성의 신체에 이상이 생기며, 이는 [암]으로 이어지거나 유방 절제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에게 젖이 있으면 자기 아이뿐만 아니라 이웃집 아이까지 모유로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엄마들이 자기 아이조차 모유로 키우기 힘들어한다. 게으름만 피우고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지 않는 엄마는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세균’을 아이에게도 전염시킨다. 예전에는 연유 캔에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가 그려져 있었지만, 요즘 연유 캔에는 꽃을 손에 든 ‘엄마’가 그려져 있다!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모유를 먹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위로받지 못한 채 자라난다. 누가 그들에게 다정함과 사랑을 줄 것인가? 소의 우유가 든 캔인가? 아기들은 ‘얼음처럼 차가운’ 유리병에 꽃힌 젖꼭지를 빨고, 그들의 마음도 얼어붙는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들도 병에서 — 즉 술집에서 — 위안을 찾는다. 마음의 불안함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다정함을 받지 못하면, 그 다정함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전해 줄 만큼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가 다른 것을 연쇄적으로 불러옵니다. 그러다 어머니들이 찾아와 이렇게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신부님, 기도해 주세요! 제 아이를 잃어가고 있어요.”

일하는 어머니

— 게론다, 여자는 일해야 합니까?

— 남편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남편은 그 선택을 아내에게 맡깁니다.

— 결혼 전에 교육을 받은 여성이라면,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 돌보는 데 전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지 못하고 단순한 일을 하는 여성이라면, 별 어려움 없이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 게론다, 제 생각에는 자녀가 없는 여성에게는 일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봅니다.

— 그럼, 당신의 말대로라면 아이가 없는 여성은 반드시 직장에 나가야 한다는 건가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외에도 정말 많잖아요. 물론 아이가 있다면 집에 있는 게 낫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 게론다, 많은 여성들이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그들은 텔레비전, 비디오 녹화기, 자가용 등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일해야만 하는데, 그 결과로 자신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고 결국 자녀를 잃게 됩니다. 아버지만 일하고 가족이 적은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 모두가 — 마치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 일하게 되면, 가족은 흩어지고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어머니들이 좀 더 소박하게 살았다면, 그들 자신도 지칠 만큼 일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이들도 행복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외국어 일곱 가지를 구사했는데, 그의 아내는 네 가지를 배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과외도 했고,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약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이 부부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정신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정신분석가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저는 어머니들에게 삶을 단순화하여, 자신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물론, 아이를 돌보는 일에 지쳤을 때 집중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집에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 많은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부족해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모국 어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은 낯선 사람들—대개 외국인 여성들—의 돌봄에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고아원 아이들 중, 기독교 수녀회 소속으로 독신 서약을 한 여성이 보모로 일하며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다정함을 보여준다면, 그 아이들은 돈을 받고 아이들을 돌보는 여성들에게 맡겨진 아이들보다 천 배는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아이에게 엄마 한 명은 없더라도, 대신 보모들이 한 무더기나 있다는 사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사 관리와 어머니의 영적 생활

— 게론다, 주부는 기도할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일과 걱정거리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일과 기도 사이에는 어떤 균형이 있어야 할까요?

— 여성들은 대개 일을 할 때 절제를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과 걱정거리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더하고 싶어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여성들은 자신의 영혼이라는 ‘가정’을 아주 훌륭하게 꾸려나갈 수 있을 텐데, 그 대신 사소한 일들에 마음을 낭비하고 맙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문양과 줄무늬 등으로 장식된 잔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 잔에 줄무늬가 없었다고 해도, 그 잔이 본래의 용도를 다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가게에 와서 점원에게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줄무늬는 여기까지 있어야 하고,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라 저렇게 그려져야 해요.” 게다가 거기에 꽃이 그려져 있다면, 그들의 마음은 그저 환호하기 시작하죠! 이처럼 여성은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남성을 만나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책상 램프가 갈색이든 검은색이든 남자는 그걸 눈치채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반대로] 아름다운 것을 원하고, 기뻐하며, 그 아름다움에 마음의 한 조각을 바칩니다. 또 다른 ‘아름다운 것’에는 또 다른 조각을 바치지만, 그럼 그리스도께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기도 중에 하품과 피로감. 여성의 마음이 아름다운 것들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리스

도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리스도께 바쳐지면, 그 마음은 위대한 힘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 안에서 어떤 달콤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일을 하든 열정적으로 임합니다. 예전 이 여성은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지만, 마음씨가 착한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녀의 영혼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금 장신구와 호화로운 옷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수련하며, 스스로에게 영적인 수고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얼마나 희생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녀는 성자들을 향해 “질투”하고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 이 단어의 좋은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녀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염주를 꿰고, 어떤 금식을 실천하며, 시편을 읽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치는지 아시나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수행이 이제 그녀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 게론다, 한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몸이 약해서 금방 지쳐요. 할 일도 다 못 하고, 기도할 시간도 남지 않아요.”

—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려면,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단순함을 통해 어머니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삶을 단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녀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지치네요”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에게 집을 잘 보이게 하려고 애쓰느라 시간을 허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떤 어머니들은 집 안의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예쁘게 놓여 있기를 바라며, 아이들이 의자나 베개를 제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을 억압하고 “숨 막히게” 만든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군대식 규율에 따라 살도록 강요하고, 그 결과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불행히도 자라면서 완전히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현명한 사람이 자녀가 많은 집에서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본다면, 이곳의 아이들이 정신지체이거나, 잔인하고 독재적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군대식 규율을 강요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규율을 지키며 행동한다. 어느 날 나는 아이들이 많은 집에 가게 되었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세속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이들의 장난

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했는지 모른다. 이 “질서”야말로 현대인의 기력을 크게 앗아가는 가장 큰 무질서이다.

예전에는 영적 서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독서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거나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성부들의 저서가 엄청나게 많이 출간되었고, 그중 상당수가 현대어로 번역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어머니들은 [이 모든 풍요로움을 외면하고]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보내거나, 생계를 꾸리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무미건조한 집안일 같은 것에 꼼꼼하고 교조적으로 매달리기보다는, 어머니는 차라리 자녀 양육에 힘쓰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인들의 행적을 읽어 주십시오. 동시에 어머니 자신도 영혼을 정화하여 영적으로 빛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영적 삶은 눈에 띄지 않게, 소리 없이 자녀들의 영혼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기쁨으로 살게 될 것이며, 어머니 자신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있기에 행복해질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읽을 시간조차 낼 수 없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 게론다, 어머니가 자녀도 많고 할 일도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하지만 집안일을 하면서 동시에 기도할 수는 없는 걸까요? 저를 예수님의 기도에 익숙하게 해 주신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장난을 치면 어머니께서 화를 내실 참이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빵을 오븐에 넣을 때 어머니는 “그리스도와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음식을 준비할 때도 어머니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기도를 외우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자신도 거룩해졌고, 어머니가 준비한 빵과 음식도 거룩해졌으며,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도 거룩해졌습니다.

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어머니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의 자녀들도 거룩해졌는지! 예를 들어, 장로 하지-게오르기이의 어머니를 들 수 있다. 이 축복받은 어머니가 갓난아기 가브리엘(장로 하지-게오르기이가 세속에서 쓰던 이름)을 키우던 모유조차도 경건한 것이었으니 말이다. 이 여인은 두 자녀를 낳은 후, 남편과 함께 처녀와 같은 삶을 살며 형제자매처럼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게오르기 성인의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수행자의 기질을 지녔는데, 이는

그녀의 여동생이 수녀이자 수행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녀인 여동생을 자주 찾아갔으며, 결혼한 후에도 아이들과 함께 그녀를 찾아가곤 했다. 가브리엘의 아버지도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무역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 밖에서 보냈다. 이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많은 것을 걱정하거나 분주해하지 않고 소박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었으며,³⁹ 아들을 데리고 다른 여성들과 함께 때로는 동굴에서, 때로는 여러 성당에서 거행되던 밤샘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녀의 아들은 그토록 높은 수준의 성덕에 이르렀습니다.⁴⁰

어머니의 경건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니에게 겸손과 경외심이 있다면, 집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저는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는 젊은 어머니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들의 어머니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제3장.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에게 그분의 공동 창조자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역시 자녀들에게 육신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입니다.

³⁹ 참조. 루카 10, 41.

⁴⁰ 참조: 아토스 산의 파이시오스 장로. 아토스 산의 장로 하지-게오르기스, ‘성 요한 신학자 복음 전도자’ 헤시카스테리온 출판사, 테살로니키 수로티, 6, 2001.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아이들을 돌보실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가 성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수호천사 한 분을 보내십니다. 이처럼 아이는 하나님과 수호천사, 그리고 부모님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수호천사는 항상 아이 곁에 머물며 아이를 돕습니다. 아이가 자라날수록 부모의 책임은 점점 줄어듭니다. 만약 부모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나 가까이서나, 수호천사는 곁에서나 계속해서 아이를 끊임없이 지켜주십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영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결점도 작아서 쉽게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마치 껍질을 살짝 문지르기만 해도 쉽게 벗겨지는 어린 감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감자가 오래 방치되면 껍질을 벗기려면 칼이 필요해집니다. 게다가 감자가 상했다면 그 칼로 더 깊게 파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도움을 받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면, 그들은 영원히 그분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비록 자라면서 나이나 나쁜 친구들 때문에 잠시 길을 잃더라도, 다시 제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든 경외심과 경건함은 결코 그들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가장 힘든 시기인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걱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자립의 길로 이끌어 줄 때까지 계속됩니다. 자녀가 이 나이에 있을 때, 부모는 자녀를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힘을 넘어서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며, 자녀를 “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어머니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아이들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직접 돌봐 주십시오.”

며칠 전 이곳에 밤샘 기도회에 오신 한 어머니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여성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와 함께 온 아이들이 모두 큰아이들뿐인 것을 보고, 제가 “어린 아이들은 어디 있나요?”라고 물었더

니, “집에 있어요, 게론다”라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명절에 남편과 저는 철야 기도회에 가고 싶어서 이렇게 결심했어요. ‘우리가 오락이 아니라 기도회에 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없는 동안 우리 어린 아이들을 지켜 주시겠지.’라고요.” 오늘날 이런 믿음을 보기란 드문 일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의 부모에 대한 믿음도, 부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종종 많은 부모들이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아이만 길을 잃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까? 우리도 교회에 다니는데!”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 부모들은 그리스도께 “드라이버”를 맡겨 자녀들의 나사 몇 개를 조여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이러한 부모들은 병에 걸릴 때까지 이기적인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게다가 수호천사도 항상 아이들 곁에 머물며 그들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 비록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수호천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신의 개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을 감싸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이들의 영적 부흥

— 게론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부모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 주로 부모입니다. 결국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훌륭한 사제나 훌륭한 교육자 등이 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도 차례대로 다른 아이들, 즉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아이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더 큰 책임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있다는 점도 언급해야겠습니다.

아기가 아직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 부모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아이는 거룩하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영적으로 도와준다면, 그 아이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사회를 돕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든, 정부 기관에 들어가든, 아니면 다른 어떤 자리를 맡든 간에 말이죠. 우리 모두는 아이들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다음 세대 에게도 약간의 누룩이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누룩조차 남지 않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깐요. 만약 누룩이 남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자녀를 낳아 육신을 부여할 때, 가능한 한 그들의 영적 중생에도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적으로 중생하지 못하면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부모는 자신들이 자녀를 위해 직접 해줄 수 없는 일을 교사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모와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친자녀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영적 중생을 위해 힘쓰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각자의 모범을 통해 — 아이들이 영적으로 거듭나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악을 억제하는] 법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⁴¹ 법은 불의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는 인간의 권세보다 더 높습니다.

부모의 모범

— 게론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버티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부린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집안이나 밖에서 부적절한 장면을 목격하거나, 부적절한 대화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주로 강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범을 통해 돕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바로 자신의 모범과 남편에 대한 순종, 그리고 남편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어머니가 아버지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악한 자가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자녀들 앞에서는 결코 그 의견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는 결코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 품는 생각을 나쁘게

⁴¹ 참조: 디모데전서 1, 9.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아버지를 변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잘못 행동했다면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빠는 피곤해. 급한 일을 끝내기 위해 밤새 일했단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너희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다투며, 이로 인해 아이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불쌍한 아이들은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자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아이들의 모든 변덕을 들어주려고 애씁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아이를 ‘사주’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금덩어리야, 뭐 사줄까?” 어머니 역시 자녀의 변덕을 다 들어주다 보니, 결국 아이들은 제멋대로인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자상한 부모의 모범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실감합니다. 오늘 제게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세 살과 네 살인 두 어린 소녀가 부모님과 함께 왔는데, 부모님들은 매우 경건한 분들이셨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주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나란히 앉아 드레스 자락으로 무릎을 가리고 있었죠. 얼마나 수줍음이 많고, 얼마나 예의 바른지!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행동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서로 사랑과 존중을 나누고, 현명하게 행동하며, 기도하고 이와 같은 일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건대, 부모가 자녀에게 경건함을 전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만난 한 어린 소녀를 여러분도 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아이에게서 얼마나 고귀한 기쁨이 뿜어져 나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캔버라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어 했던 마지막 두 명의 방문객을 접견한 후, 저는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차 한 대가 멈추더니, 한 부부가 어린 딸을 데리고 차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헤론다, 그래도 드디어 뵈게 되었네요,”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네,”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떠나려던 참이었어요.” “헤론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를 만나실 필요는 없어요, 별일 아니니까요. 제 아내가 실망하지 않도록 잠시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아니면 아내

가 좀 예민한 성격이라서요.” 우리는 그의 아내와 함께 한쪽으로 물러나,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했다. 어린 소녀가 그녀를 쫓아가려 했다. “잠깐 앉아 있어,” — 내가 소녀에게 말했다. “엄마가 올 거야, 곧 올 거야.” “너한테는 엄마가 있어?” —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아니,” — 내가 대답했다. 보니, 그 아이의 눈동자에 눈물이 반짝였다. “그럼, — 아이가 물었다. — 내 엄마를 네게 줄까?” 그러자 나도 그 아이에게 물었다. “너한테 할아버지는 있어?” “없어,” — 아이가 대답했다. “너는 할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니?” “네, 네,” — 그녀는 기뻐하며 말했다. “네가 우리 집으로 이사 올래, 아니면 우리가 네 집으로 이사 갈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참으로 고귀한 마음이었지! 어린 아이가 자신의 엄마를 희생하려 하다니! 자, 보세요 : 이걸 아이가 부모님을 닮은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는 대단한 고귀함을 지닌 분이셨죠. 저는 그분을 껴안고, 입맞춤을 하며, 이렇게 훌륭한 딸을 두셨다고 축하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분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냉정한 사람조차도 감동하게 만드니, 하물며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습니까!

부모의 집에서는 아이들이 다정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아이는 많은 사랑과 다정함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도 필요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곁에 앉아 주기를 바라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 하며, 엄마가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고 입맞춤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안절부절못하고 불안해할 때, 엄마는 아이를 품에 안아 다정하게 어루만지고 입맞춤을 해 주어 아이가 진정되고 평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다정함과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훗날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문제들을 극복할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를 아주 짧은 시간, 오직 저녁 시간에만 볼 수 있을 뿐이며, 사랑이 부족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교사나 의사로서 직장에서 아이들을 상대합니다. 그들은 낮선 아이들에게 애정을 쏟고, 집에 돌아오면 이미 자기 아이들에게 줄 애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친 채로 집에 돌아옵니다. 이미 기력이 다 빠져버렸다. 아버지는 안락의자에 축 늘어져 신문을 집어 들고 최근 소식을 읽느라 아이들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아이는 아버지가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며 아버지 곁을 맴돌지만, 아버지는 아이를 밀어냅니다. 어머니 역시 저녁을 준비하느라 부엌으로 서둘러 가며, 그녀 역시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 결과 불쌍한 아이들은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라납니다. 또 다른 예로, 일부 군인들은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병사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데 익숙해져, 가족들에게도 군대 규율에 따라 살도록 강요하려 한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잔인하게 대하며, 사소한 일에도 뒷통수를 때리곤 한다. 그리고 사법 기관이나 법 집행 기관에서 일하는 일부 부모들은 집에서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자신의 아이들을 상대로 온갖 “재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다정함과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들에게 정신적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 게론다, 한 어머니가 저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분의 딸이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 그녀가 악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스스로 파악하게 하세요. 때로는 이런 경우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올바르게 행동함으로써 자녀에게 해를 끼치면, 아이들은 뻔뻔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악마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그들을 타일리려는 시도에] 정말 역겨운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부모들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심이 섞이면서 부모들은 짜증과 분노에 차서 자녀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사실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오늘 한 여자가 나를 미치도록 화나게 만들었어요! 아이는 한 명뿐인데, 그녀는 가차 없이 아이를 때립니다. 불쌍한 아이는 두려움에 떨며 말을 제대로 못 하고, 신경 쇠약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악령이 깃들어 있다”고 이 여자는 주장하며, 악령이 떠나게 하겠다는 명목으로 아이를 굶킵니다. “아이에게 밥을 주지 않는 건,” 그녀가 설명했다. “그 아이가 더러운 영에서 해방되게 하려는 거야.” “이봐,” 내가 말했다. “너 머리는 제대로 달고 있니? 아이에게 밥을 줘. 그리고 네 안에 깃든 더러운 영들이 나가게 노력해. 네 아이가 이렇게 흥하게 된 건 다 네 탓이야. 아이에게 악마는 없어. 아이가 떨고 있는 건 널 두려워해서야, 네가 아이

를 때리기 때문이지! 아이에게 정기적으로 성체를 받아주긴 해?” “아니요,”라고 그녀가 대답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사람과 어떻게 타협을 보겠어!

— 게론다, 어쩌면 그 아이가 가끔 욕을 하거나 신을 모독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악령이 깃들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닐까요?

— “욕을 하고 신을 모독한다”고요! 그 엄마가 폭력으로 아이를 거의 질식시킬 뻔할 때면, 아이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 불쌍한 아이가 참 안타깝군요! 악령에 사로잡힌 건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어머니입니다.

어쨌든,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시절, 어머니들은 몰록의 조각상 앞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웠습니다.⁴² 이는 “신”을 찬양하는 의식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⁴³다! 만약 이 여성들이 참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분께 어떤 제물을 바쳤을까요! 최후의 심판 날, 이 여성들에게는 죄를 경감해 줄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에 휩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오늘날의 어머니들에게는 어떤 경감 사정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참 하나님을 알았고, 성세례를 받았다. 너희는 그토록 많은 것을 들었고, 그토록 많은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너희는 자녀들을 성찬받게 하려고 교회로 데려가는 것조차 귀찮아했다! 우상 숭배자들은 몰록이 참 신이라고 생각하여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 그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부모의 실수는 아이들이 짊어지게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부모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아이들에게 크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만약 아이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

⁴² 몰록은 구약성경에 언급된 셈족의 신이다. 보통 몰록 신상에게는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는데, 이 아이들을 죽여 철창 위에서 불태웠다.

⁴³ 레위기 18, 21 및 20, 2—4; 열왕기하 23, 10 및 13 참조.

다.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청년들—물론 청년들뿐만 아니라 노인들까지—이 어느 순간 갑자기 선한 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기억합니다. 한 가정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은 신앙과 교회에 무관심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어떤 마르크스주의 단체에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자, 그는 힌두교로 넘어갔습니다. 그곳도 마음에 들지 않자, 그는 성산으로 왔습니다. 그는 자주 제 칼리바를 찾아왔고, 다른 수도실들도 방문했습니다. [그 무렵 그의 부모는 이미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며] 그 동안 계속 “나의 그리스도여! 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 우리 아이를 지켜주소서.” 그 청년은 수도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토스 산에서 한동안 지내며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굳건해진 그는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영적으로 도왔다. 지금 나는 그의 아버지가 전야 기도회에 가장 먼저 오시는 분들 중 한 분으로 참석하는 모습을 본다. 그는 본당 성당에서 시작 시편을 낭독하고,⁴⁴ 집에서는 저녁 기도와 밤 기도를 드리며, 기도 캐논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셨군요! 마귀는 악을 저지르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이쪽저쪽에서 다스리시며 이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 딸은 어떻습니까, 게론다?

— 그 아이도 서서히 올바른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유리한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 게론다, 나이가 들어서야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된 일부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기독교적인 교육을 시켜주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 진심 어린 회개를 품고 자녀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명환을 던져 주실 것입니다. 설령 이 불쌍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목격한 어떤 일을 통해 도움을 받도록 이

⁴⁴ 저녁 기도 시작 시에 낭독되는 시편 103편.

끌어 주시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부모들은 본래 선한 마음을 지녔으나,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게론다, 때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신앙 문제에 무관심한 부모들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이들, 즉 영적으로 사는 부모를 둔 아이들보다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더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을 돌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을 돌보십니다.

환경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 게론다, 아이들은 몇 살부터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까?

— 아이들은 요람에 누워 있을 때부터 이미 부모를 ‘모방’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것을 ‘모방’하여 자신의 깨끗한 ‘테이프’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의 정욕을 단호히 끊어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 정욕 중 일부를 자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정욕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욕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게론다, 부모님 댁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때로는 서로 전혀 닮지 않은 경우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이들은 종종 주변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선한 성품이 있다면, 자라면서 하느님께서 그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셔서, 자신이 겪었던 부정적인 영향들을 깨닫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노력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악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아이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타락하도록 부추겨집니다.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악으로부터 지켜주기는커녕, 선한 일조차 방해받습니다. 그러다 죄에 빠지고 고통받게 된 불쌍한 아이들은 다시 일어서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의 미끄럼틀을 타고 아래로 굴러떨어진 이상, 이제 멈추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칼리바에는 마약을 하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스물다섯에서 스물일곱 살 정도의 젊은이들이 찾아와, 이 불쌍한 이들이 도움을 청합니다.

어느 날, 나는 그런 아이들 중 한 명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아이들이 친구들을, 또 그 친구들의 친구들을 내게 데려와 그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한다. 이 젊은이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 한 불쌍한 청년은 강력한 마약을 복용하다가 이미 한 발은 무덤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찢린 자국이 남은 팔, 썩어버린 이빨... 하지만 그는 마약을 끊고 다른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리에는 약 15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올 때면, 이 아이들은 “저는 누구누구의 무리에서 왔습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어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쌍한 아이들 중 많은 수가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사바늘에 의존하며, [마약 값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팔기도 하고... 이 어린 친구들은 자신은 물론 부모님까지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어머니는 심장병이나 간 질환, 혹은 다른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자매 간의 사랑

부모는 자녀들 사이에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약한 자녀를 돕고자 할 때, 부모는 강한 자녀의 “허락”을 얻어 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즉, 부모는 강한 자녀가 자신의 형제자매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공정함은 하나님의 일이며, 이는 형과 동생 사이에 동등하게 나누어져야 한다. 형에게는 존중으로, 동생에게는 상처를 입지 않도록 사랑으로 공정함을 베풀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신명기에도 언급되어 있다.⁴⁵ 예를 들어, 맏형에게 잘못이 있다면 우리는 막내를 변호해야 하지만, 막내가 보는 앞에서 맏형을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단둘이서 대화를 나누어 그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⁴⁵ 신명기 1장 17절 참조.

— 게론다, 보통 형제자매 중 맏이들이 막내를 향해 느끼는 질투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나요?

— 질투는 일종의 열정입니다. 하지만 세 살배기 아이가 엄마가 갓 태어난 남동생이나 여동생에게 모유를 먹이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도 모유를 먹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질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긴 남동생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는 나를 안아 주셨는데, 이제 나를 맨 뒤로 밀어냈어!” 아이에게 할머니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위로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만 네 살이 되면 질투를 덜 해야 한다. 그리고 여섯 살이 되면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넌 이제 정말 컸구나. “이렇게 큰 아이를 엄마가 안아줄 리가 있겠니?”라고 말해야 한다. 엄마가 아이가 질투심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면, 아이는 정말로 심각한 일일 때만 엄마의 도움을 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싶어 한다면, 그건 뭔가 건강하지 못한 징후다.

기업은 아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게론다, 어릴 적부터 영적으로 살아왔고 신앙심이 깊었던 청년이 어떻게 해서 완전히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까?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무심한 삶을 사는 아이들은, 순결하고 영적으로 사는 다른 아이들을 보고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 아이들이 자신들이 사는 삶으로 이끌려 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두 소년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아이가 미끄러져 지저분한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옷이 온통 더러워졌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 다른 웅덩이에 다다르자마자, 그는 친구도 더러워지도록 그 웅덩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소년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더러워진 반면 친구는 깨끗한 상태라서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아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렸을 때, 저는 타고난 사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본성 그 자체였습니다. 노새를 타고 어딘가로 갈 때면, 저는 또래 친구들을 한 명씩 노새에 태우려고 애썼고, 제 어깨에는 막내 동생을 태웠습니다. 어느 날, 내 형제 중 한 명이 새 한 마리를 죽였을 때, 나는 무척 속상해하며 그를 꾸짖었다. 그 후 그 새를 집

어 들고 울면서 물어 주었다. 나는 나와 같은 나이의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지냈다. 우리는 숲으로 가서 기도하고, 성인의 생애를 읽으며, 금식하곤 했다. 그러자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나와 어울리지 말라고 금지하기 시작했다. “그 아이와 놀지 마라,”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 아이가 너희에게 결핵을 옮길 거야.” 그래서 아이들은 나를 떠났고,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게다가 사람들은 나를 놀리며 사방에서 “수도사, 수도사!”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결국 나는 그들의 조롱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과 어울려서 [그들처럼 행동하는 척] 하겠다.” 그래서 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고무줄을 구해 슬링샷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쓸 것처럼 가장하며 고무줄만 당기기만 했다. 그러다 산탄을 구해 슬링샷 명사수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한 마리를 쏘아 죽인 것을 보자마자 나는 순식간에 정신이 들었다. 고무줄도 굶알도 모두 버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네 형이 새를 죽였을 때, 넌 울면서 형이 한 짓을 꾸짖었잖아. 그런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버린 거니? 너는 새를 죽이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곧 동물까지 죽이게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런 생활 방식을 계속했다면, 고무줄총 쏘기에서 동물 사냥으로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접 그 동물들의 가족을 벗겨냈을지도 모른다.

원래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영혼을 지녔던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악랄해질 수 있을까! 이는 그가 부주의하고 나쁜 친구들에게 휩쓸릴 때 일어날 수 있다. 반면, 선한 친구들은 큰 유익을 가져다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재능을 채워 주셨습니다. 사람이 타인의 타락함과 부도덕함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타인의 미덕도 볼 수 있으며 그것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아이들을 돕는 일

가정에는 반드시 사랑과 평화의 분위기가 넘쳐야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사랑을 받은 아이는, 설령 갑자기 집을 뛰쳐나간다 해도, 다른 곳에서는 사랑이 아니라 오직 위선만을 발견하게 되면 결국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반면, 집에서 벌어졌던 부적절한 장면

이나 욕설, 다툼을 기억하고 있다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 게론다, 아이가 집을 나가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부모는 아이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부모는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야 하며, 아이를 돕기 위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밤마다 알 수 없는 곳을 배회한다면, 어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리 좀 와 봐, 아들아. 네가 내 입장이었다면, 네 아이들이 자정 넘어서야 집에 돌아온다면 실 수 있겠니?”

아이들이 아무리 심하게 넘어져도 부모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또한 다음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아이들은 그들이 저지르는 말썽에 대해 죄책감을 덜어주는 정황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서 받은 행동 성적 ‘4점’은, 우리가 젊었을 때의 시대에서 받은 ‘5점 플러스’와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아이들도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정신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흐릿하여, 아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위험은 물론 스스로에게 입힐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까지 분별할 만큼 맑은 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말썽 때문에 속상해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압력을 가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픔을 담아 드리는 기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아이가 매우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부모는 신중하게 개입해야 합니다. 저지른 잘못이 크지 않다면, 부모는 아이를 자극하지 않고 아이가 처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조금은 눈감아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극의 결과로 아이가 부모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부모는 그리스도님과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님께 자녀를 감싸 주시기를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모, 특히 어머니의 기도는 진심에서 우러나오고 그 안에 아픔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결실을 맺습니다. 제가 이베르스키 스키투에 머물던 시절, 우연히 한 청년이 그곳을 찾아

왔습니다. 이 청년은 할키디키를 여행하던 중, 성산으로 향하던 순례자 일행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합류하여 아픈 산에 도착한 그는 제 거처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신을 부정하는 자, 신성모독자, 그야말로 뽀뽀함의 극치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일종의 악마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었고, 그 무엇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를 욕설로 모욕했습니다. 그를 제정신으로 되돌리느라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지 아십니까? 그와 어느 정도 상호 이해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심지어 그의 긴 머리카락도 잘라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어머니께 건강을 주시기를,”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너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네, 신부님,” 그가 대답했습니다. — “할키디키를 돌아다니다가, 어느새 여기 와 있는지도 몰랐어요.” “상상이나 가나,” 제가 말했죠, “네 어머니께서 네가 성산에 왔다는 걸 알게 되고, 게다가 머리를 자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신부님, 그걸 어떻게 아셨나요?” 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 정말로, 제가 변한 모습을 보시면 어머니께서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보시다시피! 하느님께서 그 청년을 “한 수 앞서” “전문가”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불쌍한 어머니가 하느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이를 언제 꾸짖고 언제 칭찬해야 할까

부모들은 저녁에 자녀를 꾸짖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저녁이 되면 아이들은 속상한 마음을 달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밤의 어둠은 아이들의 마음속을 더욱 어둡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맞서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온갖 ‘방어’ 방안들이 떠오르고, 악마의 속삭임까지 섞이면서 결국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낮에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여러 가지 보복 방법을 으름장 놓는다 해도, 밖으로 나가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고 잊어버리게 되어 속상한 기분이 사라집니다.

— 게론다, 체벌이 아이들이 잘못을 고치도록 돕는 데 도움이 됩니까?

— 부모는 가능한 한 이런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부모는 친절과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가 잘못 행동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리고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다음 번에는 더 조심하도록 하기 위해 가볍게 엉덩이를 때리

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이에게 제동 장치 역할을 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큰 도움을 받은 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두 분 모두 저를 사랑하셨고 제게 좋은 일만 바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각자는 나름의 방식으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셨다. 우리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엉덩이를 때리곤 했다. 그 통증 덕분에 나는 잠시 진정되곤 했지만, 통증이 가라앉으면 그 일과 아버지의 충고까지 모두 잊어버리곤 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아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셨던 것이다.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세 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제 뒤통수를 그렇게 세게 때리셨더니 제가 몇 미터나 날아가 버렸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옆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거든요. 주인 부부가 미국으로 떠나버려서 집은 황폐해져 있었죠. 그 집 마당에는 무화과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가지들이 길 쪽으로 뻗어 나와 도로 위로 드리워져 있었어요. 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친구들과 길거리에서 놀고 있을 때, 한 이웃이 다가와 저를 들어 올려서 무화과 몇 개를 따달라고 했어요. 그분은 직접 가지에 닿을 수 없었거든요. 나는 무화과를 다섯, 여섯 개 따주었고, 그중 두 개를 그가 나에게 주었다.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자, 아버지는 매우 화를 내셨다. 바로 그때 내가 그 뺨을 맞은 것이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아버지 쪽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아이를 때리는 거야! 아이는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어떻게 그 울음소리를 듣고도 태연할 수 있니!” “만약 무화과를 따러 데려갈 때 울었더라면,” 아버지가 대답했다. “지금은 울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보아하니 아이도 남의 무화과를 맛보고 싶었던 모양이지! 그러니 울게 놔둬!” 그런데 그 후에도 내가 했던 짓을 다시 할 수 있었겠는가? 반면 어머니는 내 장난을 보시고는 속상해하셨지만, 그분에게는 고귀한 마음이 있었다. 내가 말썽을 피우는 것을 보시면, 나를 속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시고는 나를 못 본 척하셨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 ‘교묘한 방법’ 때문에 내 마음은 말 그대로 찢어질 듯 아팠다. “이것 좀 봐, 이걸 봐,”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네가 이렇게 말썽을 피웠는데도 어머니는 너를 때리기는커녕, 심지어 못 본 척까지 하시잖아! 아니,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엄마가 다시 속상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어?”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어머니는 나를 머리 뒤통수를 때려주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을 주셨다.

하지만 나 자신도 이를 악용하지 않았고, “에이, 지금 엄마가 나를 못 보고 있으니, 좀 더 장난치고 말썽을 부려볼까.”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반면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뒤통수를 때리셨죠. 보시다시피 두 분 모두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고상한 태도가 저에게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게론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정말 말썽을 많이 부립니다.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장난을 치죠. 그런 아이들의 부모는 어떻게 체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 이봐요,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려면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불쌍한 아이들이 고층 아파트에 갇혀 있어요. 마음껏 뛰어놀 수도, 놀 수도, 즐거워할 수도 없어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생기 넘친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생기 넘치는 아이는 내면에 힘이 있으며, 그 힘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러곤 합니다. 마치 자기 아이가 짐을 싣는 짐승이라도 되는 것처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도록 나뭇가지로 채찍질하는 것 같다. 마치 아이의 고삐를 잡고 있으면서 “자유롭게 걸어라!”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부모들은 결국 자녀를 때리기까지 한다. 오늘 한 어머니가 아들—건장한 청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부님?” 그녀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심지어 우리 얼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 주자, 그녀는 다시 처음부터 되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 게론다, 혹시 그녀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 어떻게 이해 못 하겠어! “난 너와 단 한 시간도 함께 있을 수 없을 거야,”라고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런데 네 아이는 어떻게 너 곁에서 살 수 있겠어? 네가 그 아이를 미치도록 괴롭혔잖아!” “아니야,” 그녀가 대답했다. — 난 그 아이를 사랑해.” “네 곁에서 그 아이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 아이는 다른 환경에 있고 싶어서 집에서 도망

치고 싶어 해. 네 곁에 없을 때는 아주 잘 행동하잖아. 아이가 너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건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야. 아이를 자극하지 마. 넌 아이를 상처 입히고 있는 거야. 아이에게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대해야 해.” 나는 그녀에게 이 모든 말을 했고, 그녀는 내 말을 다 듣고는 다시 처음부터 되풀이하기 시작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죠? 아이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런 사람과 어떻게 서로 이해해 나갈 수 있겠는가? 아이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들은 아이를 바보 취급한다. 그러니 문제 있는 건 그들 자신인 것이다.

부모의 강요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을 짓누를 뿐입니다. 끝없는 “그거 만지지 마, 거기 가지 마, 이렇게 해...” 하지만 고삐는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당겨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도록 돕기 위해 재치 있게 지적해야 하지만, 동시에 부모와 아이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작은 나무를 심는 훌륭한 정원사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정원사는 바람 이 나무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일 때 나무가 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부드럽고 가느다란 끈으로 나무를 말뚝에 살며시 묶어줍니다. 그런 다음 정원사는 나무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물을 주며, 돌보고, 염소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나무에 가지가 자라날 때까지는 말이죠. 왜냐하면 어린 나무가 염소들에게 뜯겨 먹히면, 그 나무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염소들에게 뜯겨 먹힌 나무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늘도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지가 자라나면 정원사는 울타리를 치우고, 나무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며, 그 그늘 아래에서는 염소와 양, 그리고 사람들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종종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지나친 걱정 때문에, 아이들을 부드러운 끈이 아니라 강철 철사로 묶어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묶을 때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부모는 고귀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비심이 싹트고, 나중에는 스스로 선을 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할 수 있는 한, 사랑과 아픔을 담아 아이들에게 선한 것을 다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아들이 잘못 행동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아픔을 담아 이렇게 말했던 한 어머니가 기억납니다. “그러지 마, 나의 소중한 아이야.” 그리고 그런 본보기를 보며, 그녀

의 아이들은 삶의 유혹을 피하고, 어려움 앞에서 주저하지 않으며, 기도와 하느님에 대한 신뢰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쁨으로 노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 마치 정신병원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내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수의 아이들이 뇌졸중 직전까지 이릅니다. [마치] 시계가 약간 고장 났는데도 부모가 시계를 끝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 감아 버리면 결국 시계 스프링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분별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아이는 더 많이 ‘감아줘야’ 하고, 다른 아이는 덜 감아줘야 합니다. 불쌍한 아이들은 온갖 [악한] 바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나 거리에서 “부모를 존중하지 마라! 누구도, 아무것도 존중하지 마라!”라는 외침을 듣고, 게다가 어머니들까지 아이들에게 “나사를 조이려” 들면, 아이들은 더욱 반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머니들에게 기도에 전념하고 아이들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만약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끊임없이 “이건 하지 마, 저건 건드리지 마”라고 말한다면 —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때로는 부당하게까지 — 심각한 위험이 닥쳤을 때, 예를 들어 아이가 불에 휘발유를 뿌리려고 할 때, 아이는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행동하여 큰 부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이는 “그렇게 하지 마”라는 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조금 자라면서 이기심이 생기고, 누군가 주의를 주면 “내가 그렇게 대할 만큼 어린애인가?”라고 생각하며 반항하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아이가 어렸을 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지켜주었던 것처럼, 이제 어른이 된 지금도 다른 불길로부터 아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는 주의 깊게 행동하고, 유혹자인 악마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며, 자신 안에 세례의 은총을 간직해야 합니다.

분별 없는 지나친 부모의 사랑

— 게론다, 어머니가 분별 없는 사랑으로 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불쌍한 아이, 걸을 줄을 모르니 참 안됐네”라고 말하며, 아이의 손을 잡고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 자꾸만 아이를 안아 올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걷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어머니는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지나친 보살핌으로 인해 오히려 아이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 복무를 마친 아들을 둔 한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의 손을 잡고 이발소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내 아들을 데려왔으니 머리를 잘라 주세요,”라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요금은 얼마고, 언제 데리러 오면 되나요?” 그렇게 [분별 없는 과잉 보호로] 이 남자는 아들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사랑은 이성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이기적인 편애가 없으며, 분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사랑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여성의 사랑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부모님에게 화가 난 한 청년이 내 오두막으로 찾아왔다. 그 불쌍한 부모님은 마음씨 좋은 분들이었지만, 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압박을 가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등등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자, 들어보렴,” 내가 그에게 말했다. “네가 어렸을 때 네 어머니가 너를 옷으로 여러 겹 감싸주셨을 때, 어머니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네가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열사병에 걸리게 하려고 했을까? 네 어머니의 그런 행동에는 많은 사랑이 담겨 있었단다.” 마침내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깨달은 청년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저항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대했기 때문에 아들을 도울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사랑을 품고 있었다.

필요할 때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엄격하게 대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이의 뜻에 쉽게 휘둘리고 모든 것에 동의한다면, 이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단⁴⁶)에 사는 한 과부에게는 야니스라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조금 자라자, 그녀는 아들을 구두 장인에게 제자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정도 일을 다닌 후, 소년은 “엄마, 이제 장인님께 갈 필요 없어요. 구두 만드는 법을 다 배웠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배웠니?”라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께도 구두를 만드는 법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밑창을 올려내고, 이렇게 가죽을 붙이고, 굽을 맞추고, 못으로 박고...” 아

⁴⁶ 아다나 – 소아시아의 도시로, 지중해 북동부 연안에 위치한다. – 역자 주.

니스가 수습을 받던 장인은 매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야니스가 아버지 없이 자라난 것을 안타까워하며, 소년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야니스가 나타나지 않자, 그는 야니스가 아픈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다. “야니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왜 더 이상 일하러 오지 않나요? 아픈 건가요?” — 장인이 과부에게 물었다. “아니요,” 그녀가 대답했다. “아이는 건강해요.” “그럼 왜 일하러 오지 않는 거죠?” “그 아이가 왜 거기 가겠어요?” 미망인이 대답했다. “야니스는 이미 구두 장인 기술을 다 배웠잖아요.” “아니, 어떻게 며칠 만에 배울 수 있었던 말이에요?” 구두 장인이 놀라워했다. “아주 간단해요,” 어머니가 대답했다. “가족을 가져다가 신발 틀에 씌우고, 못을 박고, 굽을 맞추는 다음, 신발 틀에서 신발을 빼내면 끝이에요!” 구두 장인은 웃음을 터뜨리고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떠났다. 그가 작업장으로 돌아오자, 견습생들이 물었다. “스승님, 야니스는 어떻게 되었나요?” “무사히 잘 지내고 있어,” 그가 대답했다. “야니스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구두장이가 되었단다!”

그런데 저는 많은 부모들이 이 과부처럼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녀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는 지나친 사랑으로 아이에게 입맞춤을 퍼붓고, “세상 어디에도 내 아이만큼 아름다운 아이는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아이에게 자만심과 건강하지 못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확신하며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스스로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세요. 아이들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채로, 마치 쟁반에 담겨 나오듯 제공되기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한 장인은 쉬지 않고 일하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버지가 일하는 동안 하루 종일 거리에서 빈둥거렸습니다. 심지어 자라서 각자의 가정을 꾸린 후에도 여전히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이제 스스로 집과 가족을 돌볼 때가 되었다고 말하자,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아버지?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자라서 가족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지금,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유산 분배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이후 자녀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받거나 직업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합니다. 1924년, 당시의 인구 교환⁴⁷⁾으로 인해 우리 가족이 카파도키아의 파라스에서 그리스로 이주했을 때, 마을 공동체 의장이었던 아버지는 우리 마을 주민 모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자신의 가족은 맨 마지막에 챙기셨습니다. 그 후, 형제자매들이 자라나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돌보셨으면서, 우리에게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혼자라면, 고귀한 마음에서 비롯된 자기 희생으로 다른 이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둔 사람이라면 가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들은 당황해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현대의 끝없는 소비 문화 속에서 자신의 형편을 넘어 돈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도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 아파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부모는 가장 약한 아이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에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신적·도덕적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패에 대한 공포가 격렬한 물살처럼 그 아이를 밑바닥으로 휩쓸어 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부모는 분별력과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자녀를 돌보아야 하며, 자녀들과의 관계에 냉랭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⁴⁷⁾ 1924년 그리스와 터키 간의 인구 교환. 터키에 거주하던 그리스인들은 그리스로 이주했고, 그리스에 거주하던 터키인들은 터키로 이주했다. — 역자 주.

요즘은 형제자매들이 토지나 유산을 두고 다투거나 법정을 오가지 않는, 영적으로 살아가며 화목한 가정을 보기 드물다. 저는 일곱 식구로 이루어진 한 가족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금 장신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노년에 부모님을 모신 형이 그 금을 가져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형은 여동생이 대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니 금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을 여동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동생은 그 금을 셋째 형에게 주었고, 셋째 형은 넷째 형에게 주었으며, 결국 그 금은 첫째 형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즉, 이 사람들에게는 라브사이케에 묘사된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⁴⁸ 결국, 첫째 형도 그 금을 자신에게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금을 사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3부.

자녀와 그들의 의무

“부모의 축복은 자녀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1장.

아이들, 그들의 기쁨과 어려움

⁴⁸ 참조: 헬레노폴리스의 주교 팔라디우스. 『라우사이크, 즉 성인과 복된 교부들의 생애에 관한 서술』. 세라피온에 관한 장. ‘기독교 생활’ 재단. 클린, 2001. 176-177쪽.

유아기

— 게론다, 가끔 성찬례 중에 아기들이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 그들은 성찬예배 시간에만 미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갓난아기들은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이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그들의 천사들이 보리라.*”⁴⁹ 어린 아이들은 하느님과, 끊임없이 그들 곁에 머무르는 수호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기들은 꿈속에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는데, 이는 그들이 기쁜 일도 무서운 일도 모두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호천사를 보고 그와 함께 놀기도 합니다. 수호천사가 그들을 어루만져 주고 손을 잡아주면, 아기들은 웃습니다. 반면 다른 경우에는 유혹자가 그들에게 무서운 것을 보여주면, 아기들은 울게 됩니다.

— 그런데 유혹자는 왜 아기들을 겁주나요?

— 그가 아기들을 겁주는 것도 사실 아기들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부르게 되니까요. 만약 그 두려움이 없었다면, 아기들은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 아이들이 자라면, 갓난아기였을 때 본 것을 기억하나요?

— 아니요, 잊어버립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천사를 몇 번이나 만났는지 기억했다면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지혜롭게 일하십니다.

— 아이들은 세례를 받은 후에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나요?

— 물론, 세례 받은 후에요.

— 게론다, 세례를 받지 않은 아기를 성유물에 대도 될까요?

— 왜 안 되겠습니까? 아기에게 성인의 유해를 십자 모양으로 얹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 저는 마치 작은 천사 같은 아기를 보았습니다. “네 날개는 어디 있니?”라고 제가 물었더니, 아이는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포스 산의 내 칼리바에서, 봄

⁴⁹ 마태복음 18, 10.

에 나무들이 꽃을 피울 때면, 나는 내 셀을 둘러싼 울타리 근처 관목 가지들에 사탕을 걸어 놓곤 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방문객들이 찾아오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아, 부디 덤불에서 사탕을 따가 줘. 비가 오면 사탕이 물러서 다 망가질 테니까!” 영리한 아이들은 내가 나뭇가지에 사탕을 걸어둔 것임을 알아차리고 웃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사탕이 덤불에서 저절로 자랐다고 믿고, 또 어떤 아이들은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작은 기쁨이 필요하니까요.

— 게론다, 사탕을 많이 걸어두시나요?

— 걸어 놓을 거라면, 많이 걸어야죠. 맛있는 과자를 가져다 주면, 저는 어른들에게 주지 않아요. 어른들에게는 루쿠무를 대접하죠. 좋은 과자를 가져다 주면, 저는 아포니아다의 아이들을 위해 아껴 둡니다.⁵⁰ 그리고 여기, 수도원에서요 어제 캐러멜과 초콜릿을 심었는데, 오늘 벌써 꽃이 피었네요! 눈치채셨나요? 그럴 만도 하죠. 날씨가 화창하고 흠도 좋고, 여러분이 흠을 잘 갈아엎어 주셨으니 초콜릿들이 이렇게 빨리 꽃을 피운 거예요!⁵¹ 자, 제가 여러분을 위해 어떤 꽃밭을 만들어 줄지 지켜보세요! 이제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사 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만의 수확물을 직접 거두게 될 거예요!

— 게론다, 순례자들이 텃밭에서 사탕과 초콜릿이 빠져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아이들 중 누군가가 한 짓이겠지,”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 그런데 왜 그들에게 ‘이건 한 명의 큰 아이가 한 짓이야’라고 말하지 않았니?

수호천사는 어린 아이들을 지켜줍니다

— 게론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에게 수호천사를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지켜주실 수는 없으신 건가요?

⁵⁰ 아포니아다 — 성 아폰 산에 위치한 소년 학교. — 역자 주.

⁵¹ 전날, 장로는 갓 갈아엎은 텃밭에 사탕과 초콜릿 몇 개를 “심고”, 그 위에 라일락 가지를 얹어 과자들이 꽃이 핀 것처럼 보이게 했다.

— 수호천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특별히 돌보시는 것입니다. 수호천사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인간을 향한 그분의 돌보심과 보살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점에 대해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특히 어린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그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지켜주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두 아이가 길거리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머리에 돌을 던지려고 이미 조준을 마쳤습니다. 다른 아이는 위험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아마도 그 아이의 수호천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가 무언가를 보게 하고 펄쩍 뛰게 했는지, 돌은 아이의 머리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밭일에 나가면서 갓난아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기에게 젖을 먹인 뒤, 요람에 눕히고는 일하러 갔습니다. 한참 후 아기를 보러 다가갔더니, 아기가 뱀을 손에 쥐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뱀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때, 아기 입 주변에 젖이 조금 남아 있었다. 그러자 뱀이 아기에게 기어와 아기 얼굴에 묻은 젖을 핥아 먹었다. 아기가 뱀을 붙잡았다. 이를 본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자, 아기는 깜짝 놀라 손을 뗐고, 뱀은 기어 도망갔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지켜 주신다.

— 게론다, 그렇다면 왜 많은 아이들이 질병이나 다른 불행으로 고통받는 것입니까?

—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지 아시며, 그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유익하지 않은 것은 사람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때로는 육체적 결함이나 장애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 장애로부터 보호하시거나 온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세례

— 게론다, 세례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북부 에피르의 주민들⁵²은 어떻게 되나요?

— 음, 그들 대부분은 부모님에 의해 ‘공중 세례’를 받았습니다.⁵³ 그리고 그 나라들에서는 많은 이들이 산부인과 병원에서 보모나 간호사로부터 공중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간호사

⁵² 북부 에피르 — 그리스인들이 거주하는 발칸 반도의 일부. 1912년부터 알바니아 영토에 속한다. — 역자 주.

⁵³ 그리스의 관습에 따르면, 세례를 받지 않은 갓난아기의 생명이 직접적인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그 아기에게 소위 ‘공중 세례’를 행할 수 있다. 어떤 기독교인(남성 또는 여성)이든 아기를 품에 안고 공중에서 세 번 십자 성호를 긋으며 다음

가 물이 담긴 대야에서 갓난아이를 세례해 준 사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세례를 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았는지요! 한 번은 350명 가량의 사람들 속에서 세례를 받은 한 여성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그 여성이 누구냐고 묻자, 성세례를 받은 터키 여성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마치 야만인처럼 보였습니다.

— 게론다, 세례식 때 아이들에게 두 개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때문에 다투다가 이혼까지 한다면, 차라리 이름을 세 개씩이라도 지어주게 하라! 하지만 요즘은 제대로 된 기독교식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것으로 변해버렸으니... 비키, 페피, 미미...

— 게론다, 임신 5개월 차였던 한 여성이 아기를 잃었습니다. 아기는 사산되었고, 이제 그녀는 아기에게 공중 세례조차 베풀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상심하고 있습니다.

— 그 일이 그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다룰지, 어디에 두실지 아십니다.

— 게론다, 어머니께서 제 형제 중 한 명이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세례를 받기도 전에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이 일을 영적 지도자에게 말씀드리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 그녀가 세례를 주고 싶었지만 제때 주지 못했다면, 그녀에게는 감경 사유가 있다. 다른 여성들은 아예 낙태를 해서 자신의 아이를 직접 죽이기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 수 없다. 만약 그녀가 부주의로 인해 아이에게 세례를 주지 못해 아이가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죽었다면, 그것은 중대한 죄가 되었을 것이다. 당신은 이런 일들을 상식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주의적 신학입니다. 기억나는 게, 한 번은 순례자 일행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북부 에피르 출신의

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이름)이 성부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성자 이름으로. 아멘. 성령 이름으로. 아멘.” 아기가 죽으면 세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살아남으면 엘라다 교회의 시노드 결정에 따라 세례 성사가 그 아기에게 완전히 다시 거행된다. — 역자 주.

한 아기가 세 번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다음 번은 할아버지가, 그리고 마지막은 어머니가 — 서로 몰래 — 세례를 주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그 아기가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순례자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나며 “이건 정통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에, 그들이 아이를 세 번 세례해야 한다는 내용을 어떤 교리 서적에서 읽은 건가요? 어쨌든 이 아이는 세 번의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 게론다, 때때로 사람들은 꿈에서 세상을 떠난 친척들을 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믿음과 회개에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 네.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지 않나요? 성산(聖山)에 계신 한 수도사는 불가리아 영토에 있는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수도사는 제게, 아직 평신도이자 세례를 받지 않았을 때,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어린 조카를 꿈에서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름다운 정원의 울타리 뒤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정원 안에는 기뻐하며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왜 정원으로 들어가지 않니?”— 꿈을 꾸 사람이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거기서 갈 수 있겠어요?”—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이 일이 있은 후, 그 남자는 즉시 가서 세례를 받았고, 나중에 신부님께 꿈에서 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도 성 세례가 지닌 위대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마련하셨습니다. 그 후, 이 불가리아 마을 주민들도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 게론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부 부모들이 자녀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 왜 안 되는 건가요? 불쌍한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선한]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이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어떤 면에서든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돕고 싶다면, 먼저 그들이 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왜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 게론다, 수녀님이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의 세례 대모였다면, 지금은 자신의 대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도, 세속의 대부모들이 그러하듯 그에게 선물을 보내야 할까요?

— 음, 수녀는 이제 그런 의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수도사가 [자신의 대자]를 위해 기도로 도울 것입니다. 수녀의 부모님은 — 원하신다면 — 딸인 수녀의 대자와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수녀의 부모님이 원하신다면, 딸의 대부모와 그런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네, 스스로 결정해야죠. 수녀님이 그들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수녀님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부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가 아직 세속의 삶을 살던 시절, 부모님께서 아는 한 부부에게 그들의 자녀 중 한 명의 대부가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가족은 모두 외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기의 대부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열여섯 살이었고, 큰 책임을 떠안는다는 느낌이 들어 그 아이를 세례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 제가 간구했습니다. — 만약 이 아기가 착한 사람이 된다면, 제 남은 생애를 모두 가져가서 그 아이에게 주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 아이가 착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면, 지금 — 그가 작은 천사와 같은 이 순간에 — 그를 당신 곁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고 파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천국에 있으며, 그곳을 잃을 위험은 없습니다.

고아들

— 게론다, 가장이 세상을 떠날 때 어린 아이들이 죽은 아버지의 시신을 봐야 할까요?

— 차라리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어른의 경우라도 가까운 사람이 죽을 때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드럽고 배려 있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을지 방법을 찾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 아이들은 몇 살까지 죽은 가족의 시신을 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그것은 아이의 [성격, 기질, 기분]에 따라 다릅니다.

—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묘지에 가도 될까요?

— 네, 아이들의 무덤에 데려가도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해요. “아빠는 여기서 하늘나라로 이사 가셨어. 너희가 착한 아이들이면,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너희를 보러 올 거야.” 기억나는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식을 보지 못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모르게 하려고 지인 댁으로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저와 놀아주고, 기분 전환을 시켜 주셨죠. 저는 웃고 있었는데,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을 때, 저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실 거야, 오실 거야”라고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얼마 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은 모습을 보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 게론다, 어린 아이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아이들은 그 죽음을 엄청난 고통 속에서 겪게 됩니다.

— 아이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잃고 고아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잃을 때 더 큰 슬픔을 겪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나중에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부족했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아는 더 낮은 “합격 점수”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그리스인들이 관련 법률에 따라 시험 없이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고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그들에게는 더 적은 노력이 필요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를 위해 상당한 고행을 감수해야 한다. 저는 부모의 애정을 잃은 아이들을 행복하고 복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생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과 부모의 애정—그들이 박탈당했던 바로 그 애정—을 ‘저금통’에 저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애정은 그들에게 [영적인] 이자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곁으로 데려가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 그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리/라.”⁵⁴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이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런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영적인] 권리를 주십니다. 고아가 선함으로 마음을 돌린다면, 그는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고통을 겪었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 게론다, 고아로 자란 것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사람의 평생 동안 지속되나요?

—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고아 아이들은 다소 경직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 수줍음이나 소심함을 보일 수 있다. 그들에게는 애정을 듬뿍 받은 아이들처럼 넘치는 기쁨이나 생기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경직됨은 그런 아이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버팀목이 된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다음 생을 위해 저축을 해두는 셈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경직됨을 보지 못하신다고? 설마 그분께서 나중에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고아, 특히 어머니를 잃은 고아를 우리는 아픔과 뜨거운 사랑으로 품에 꼭 안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그가 따뜻해지고, 소심함이 사라지며, 마음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아이가 큰 감사를 표현하려다 힘을 다 써버리지 않도록, 그 과도한 열정을 단호히 억제해야 합니다. 성 아르세니우스 카파도키우스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잃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고아 신분을 영적으로, 용기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고통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며 정신적 문제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위업을 이루었는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그의 뼈가 솜처럼, 스펀지처럼 부드러웠다는 점입니다. 그의 유해를 발굴할 때 무덤에서 갈비뼈와 척추뼈를 꺼냈더니, 손이 닿자마자 재처럼 부서져 버렸습니다. 비교적 단단했던 것은 두 개의 척추뼈와 고관절, 그리고 경골뿐이었습니다. 놀

⁵⁴ 시편 145:9.

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병약한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마치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걸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힘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고아를 키우는 일조차 감당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성숙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그들을 제한해야 한다

영혼을 불안으로 채우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속적 타락의 미끄러운 경사면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아이들은 — 특히 사춘기라는 중요한 시기에 — [어른들의] 조언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끊임없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순종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에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숨겨져 있음을 이해해야 하며, 기쁨으로 부모의 말을 듣고 영적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기는 9개월 동안 어머니의 자궁에 갇혀 지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요람에 눕혀집니다. 5~6개월이 지나면 높은 울타리 안으로 옮겨집니다. 그 후 자라난 아이는 부딪히거나 계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혼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아이는 넘어져 다칠 테니까요.

이 모든 것은 아이가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뜻 보면, 이 모든 조치들이 아이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없다면 아이는 태어난 첫 순간부터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릴 때 자신에게 제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라나서도 또 다른 종류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자유인가? 불구가 될 자유인가? 그런 자유 때문에 아이들은 목숨을 잃는다. 아이들은 학업을 마치기 전, 졸업장을 손에 쥐기 전, 성숙해져서 올바른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이라도 불구가 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제한을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이해해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을 제한하는 부모에게 감사해야 한다. 부모가 사랑에서 비롯해 아이들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어떤 아버지도, 어떤 어머니도 악의에서 아이를 제한한 적은 없다. 설령 아이에게 극도로 엄격하게 대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규율을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그 속에도 많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더 차분하고 단정해지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의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원사가 나무를 심을 때, 더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철사를 더 짝 조여 나무에 약간의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곧 나무 껍질의 상처를 아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무의 상처를 아물게 하신다면,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을 얼마나 더 깊이 돌보시겠습니까! 설령 부모가 아이의 나사를 조금 더 세게 조여 작은 상처를 입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아이들은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수도원의 수도사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는 스승이 있는 것처럼, 아이도 부모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아이가 먼저 어머니에게 털어놓고, 그다음에 영적 지도자에게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다리를 다쳤을 때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가서 멍이 빠지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것처럼, 부모는 아이를 돕기 위해 아이가 어떤 [영적]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고해신부에게만 털어놓는다면, 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아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학업 중에 겪는 어려움

판단력과 기민함을 갖춘 아이들은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머릿속으로 정리하려 하고,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지성이 뛰어나지만, 제동을 거는 법을 모릅니다. 마치 자신의 내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 보려는 듯, 스스로를 대상으로 실험을 벌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만약 그들이 겸손해진다면, 그들의 판단력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판단력과 기민함이 없는 아이들은 어려움도 겪지 않지만, 그 대신 [내면적으로] 노력하지도 않고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 이 말의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모든 내용을 외워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시험장에 가지 않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공부를 해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은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스스로를 공포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겸손하게 “저 혼자서는 공부를 감당할 수 없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간청한다면, 그 겸손함 덕분에 하나님의 은총과 신성한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시험을 치르기 전에 학생들은 자신의 신앙과 경건함에 따라 그들을 도와줄 수호성인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 게론다, 해외에서 유학 중인 한 젊은 여성이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음 속에서 ‘나는 영적으로 결코 성장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마도 나는 영원히 이대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참 괴짜야! 유럽에 앉아서 그런 결론을 내리다니! 그녀는 영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도, 거기에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도 아닌, 자신의 전공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그곳으로 갔던 것인데. 그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곳에서 영적으로 성취하려고 애쓰지 않도록 하라. 어차피 유럽인들은 [세속적인] 과학에서는 성취를 이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녀가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모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도록 하라.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거나 그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그곳에서의 체류를 단기 병역으로 생각하도록 하라. 군대에서 병사는 땀 흘리며 고된 노동을 하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일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매우 가혹하게 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럽에서 사람들은 그녀에게 적어도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비록 겉치레이고 위선적일지라도, 유럽의 사고방식에 따라 말이죠. 그녀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있으니까요. 차이점은 단지, 그리스는 우리가 정교회 신자이기 때문에 영적 삶에 관심을 갖는 이들을 위한 영적 도움이 있다는 점뿐입니다. 조금의 인내와 약간의 관심만 있다면, 어려움은 극복될 것입니다. 일단 그곳에 가게 되었다면, 영적으로도 양분을 얻기 위해 여가 시간을 독서와 기도에 바쳐야 합니다. 학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기울이는 그 노력은 그녀가 학업에 온전

히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러면 모든 악한 생각과 청소년기의 유혹은 그녀에게 낯선 것이 될 것입니다.

제2장.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자녀가 부모와 어른을 존중하는 것

아이가 어릴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음식, 옷 등 모든 것을 부모가 챙겨줍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아이를 돕습니다. 아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아주 사소한 심부름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 일이 부모가 아이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나 희생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가 자신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배은망덕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들이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면, 아이는 [원망하는] 마음 없이 그 체벌을 받아들였습니다. 종종 아이는 왜 맞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아이들은 온통 “왜, 무슨 이유로?”라는 질문뿐입니다. 온통 다툼뿐이죠. 그들에게는 순수함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들은 심판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신의 은총은 그런 식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사생아입니다.⁵⁵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사소한 지적만 해도 곧바로 “손목을 그을 거야!”라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는 양보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아이들은 타락하고 파멸하게 됩니다.

아이는 때때로 부모님이 자신의 뒷머리를 톡톡 때리더라도, 그것이 악의에서가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을 고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결국

⁵⁵ 참조. 히브리서 12, 6-11.

에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애정 표현도, 때리기도, 입맞춤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하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한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머니는 “재판”을 할 시간이 없어서 다른 형제를 꾸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아이는 자신 때문에 무고한 다른 아이가 꾸지람을 듣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을 저지른 형제자매는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내에서 막내들은 부모와 형제자매 중 맏이들에게 모두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막내들은 맏이에게 존경과 복종, 감사를 느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형제자매 중 맏이는 동생들에게 사랑을 품고, 그들을 돕고 보호해야 한다. 동생이 맏이를 존중하고, 맏이가 동생을 사랑할 때, 아름다운 가정 분위기가 조성된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큰형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 앞에서는 매우 편안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큰형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더 큰 순종을 보였습니다.⁵⁶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할 때, 가정 생활은 시계처럼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장남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라거나 “왜 모든 일을 뒤죽박죽으로 해 놓으셨어요?” 같은 말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에서는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그런 어조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 농담을 할 수는 있지만, 아이는 어른의 농담에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해서 어른에게 무례하거나 친근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스톰리온 수도원에 있을 때 가끔 수도원에서 내려와 마을로 장을 보러 가면, 길 바로 옆에 집이 있던 한 꼬마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곤 했는데, 저는 그 아이의 손에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도 익숙해져서, 저에게 달려오며 제가 입맞추어 주길 바라며 스스로 손을 내밀곤 했죠! 저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아이의 부모님이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신부님, 아이

⁵⁶ 파이시아 장로에게는 일곱 명의 형제자매가 있었다.

에게 입맞춤을 하지 말아 주세요. 아이가 신부님들을 쫓아다니며 입맞춤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고, 신부님들이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울음을 터뜨리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자신의 가정을 꾸린 후에도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심지어 부모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 사랑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자신만의 가정을 꾸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거나 [수도자가 되면] 부모의 임무는 끝납니다. 그 후 자녀들은 부모님께 [두 가지]만을 베풀면 됩니다. 바로 지극한 존경과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만큼의 사랑입니다. 저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서로에게 큰 사랑을 품고, [그 후에야]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여 그 사랑이 넘쳐흐를 정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넘쳐흐르는 부부애에서 비롯된 사랑으로 부모님께 모든 존경과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부부의 사랑은 고귀해야 하며, 각자가 상대방의 부모님을 가능한 한 많이 돌보아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 평화와 화합이 넘치려면 다음 사항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보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 중 그 누구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은 아내를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로 행동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 초기에 남편과 아내가 문제를 겪거나 의견 차이를 보였던 가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어머니를 지나치게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아들이나 딸이 어머니에게 큰 감사를 느끼며 품는 애정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서서히 서로에게 정을 쌓아가면서 이 문제는 사라집니다. 결혼 직후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해 줄 만한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공경한다면, 이는 그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며, 마찬가지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즉, 남편을 낳아 키운 여성이자, 지금 남편이 되어 그녀의 기쁨이

된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또한 그녀에게 영광이 된다. 남편과 아내가 이와 같은 감정과 생각을 품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조용히 이끌어 줄 것이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어머니는 아들의 사랑에서 상당한 위안을 얻곤 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다시 갓난아기가 되어 버린다. 아들을 결혼시킨 어머니는 마치 만아가 어머니의 품에 갓 태어난 아기가 안겨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과 같은 기분을 느낀다. 보시다시피, 사람이 젊은 시절에 자신의 욕망을 단호히 끊어내지 않으면, 세월이 흐르면서 의지력은 약해지고 욕망은 더욱 강해집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 때문에 서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노쇠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다면, 그 보살핌에 대한 보상을 잃지 않기 위해 조금만 더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돌본다면, 나중에 모든 슬픔이 지나간 뒤에는 자신이 베푼 선행에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시어머니도 며느리들을 친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제 친할머니는 아빠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제 형들이 결혼했을 때, 이웃 여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를 겁주곤 했습니다. “자, 이제 며느리들이 몰려오겠네...”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제 시어머니께서는 친딸보다 저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제 며느리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도 며느리들을 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노년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⁵⁷사람은 늙어가면서 얼마나 겸손해지는가! 노인은 점차 기력을 잃어가며 늙은 매와 닭아간다. 매가 늙으면 깃털이 빠지고 날개는 부러진 빗처럼 변한다. 기억하기로는, 필로페이 수도원(⁵⁸)의 한 영적 공의회 구성원인 이반 옐로비치()가 1914년 — 아직 평신도였을 때 — 스미르나에서 알바니아로 자원하여 전쟁에 나갔는데, 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터키인

⁵⁷ 성 아폰 산의 20개 수도원 중 하나. 장로가 묘사한 당시에는 아직 이디오리듬식(비공동생활형)이었다. — 역자 주.

⁵⁸ 영적 공의회 — 이디오리듬(비공동생활) 수도원의 선출된 관리 기관. — 역자 주.

들에게 복수하기 위함이었다. 어느 날 그는 터키인 한 명을 붙잡아 목을 베려고 했다. 그 터키인은 애원하며 말했다. “우리의 신앙은 거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베고 죽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당신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죽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를 너무나도 뒤흔들어 놓았기에, 그는 소총을 내던지고 즉시 성산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수도사가 되어 영적 공의회 회원이 되었지만, 아타만다운 기질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으며, 창고 열쇠들은 모두 그의 허리 띠에 매달려 있었다. 수도원 형제들 중 누구도 감히 그에게 반박할 말을 하지 못했다. 수도사 중 누군가 정해진 대로 “스피리도네 장로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는 화를 참지 못했다. 어느 날 대사순절 기간에 수도원에 강도 무리가 쳐들어와 수도사들에게 치즈를 요구했다. 그때 스피리도노 신부가 강도들 앞으로 나가 다음과 같이 “환영”했다. “이 돼지들아! 대사순절에 치즈를 달라고 왔냐?”라고 말한 뒤, 그들을 대문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또 다른 날, 수도사들은 상들리에를 분해해⁵⁹, 청소하려고 했다. 강도들은 상들리에에서 떨어진 반짝이는 장식 조각들을 보고 그것이 금이라고 생각했다. 수도원에 들어온 그들은 이 장식 조각들을 자루에 쑤셔 넣고, 주변에서 노새들을 모아 그 자루들을 싣기 시작했다. 스피리돈 신부는 이를 보자마자 강도들의 옷깃을 핵 잡아당겨 자루를 빼앗은 뒤, 그 내용물을 땅에 쏟아부었다. “너희는 강패들이야, 강패들! —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 이걸 다 싸구려 쇠조각들일 뿐이야! 너희 구리 같은 이마만큼이나 싸구려라고!” 이 사람은 겁이라는 게 무엇인지 몰랐다. 하지만 노년에 병에 걸리자 그는 순종하게 되었다. 나는 그를 돌보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어느 날 그가 나에게 부탁했다. “아베르키, 기도해 줘.⁶⁰ 왠지 몸이 안 좋아.” 나는 일어나 묵주를 쥔 채 소리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종인 노인 스피리도노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보야,” 그가 말하더군요, “‘스피리도노스 장로’가 아니라 ‘스피르카’라고 해야지!” 병과 노년이 그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들었는지! 예전에는 감히 그를 “스피리도노스 장로”라고 부르지 말아 보라고 해 봐!

⁵⁹ 정교회 성당에 있는 큰 상들리에 또는 여러 개의 촛대가 달린 촛대. — 역자 주.

⁶⁰ 리아소포르 수도복을 입은 장로는 아베르키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노년에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체념하셨다. 어느 날 내 여동생이 울고 계신 아버지를 발견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녀가 물었다. “혹시 손주들 중 누가 아빠를 화나게 했나요?” “아니, 아니야,” 아버지가 대답했다. “사람이란 게... 파리채로 파리를 잡으려 했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어. 오른쪽에서 때리려 하면 왼쪽으로 날아가고, 왼쪽에서 때리려 하면 오른쪽으로 날아가더군! 내가 젊었을 때는 사격 솜씨가 워낙 좋아서, 체트⁶¹를 죽이지 않고 사방에서 총을 쏘아 탄환이 뿔뿔하게 쏟아지게 하여 결국 항복하게 만들곤 했지. 열여섯 살 때, 나는 새끼 사자를 쏘아 다치게 한 뒤, 부상당한 그 짐승과 격투를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파리 한 마리도 죽일 수가 없다! 아, 인간이란 참으로 하찮은 존재구나.” 그 불쌍한 사람은 마치 평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하나의 거대한 ‘무(無)’, 즉 제로만을 느끼고 있었다.

아시나요, 스베토고르스크 수도원의 노인 수도원들에 계신 노수승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지내는지! 그들에게 또 하나의... 수도자 서원이 행해집니다! 머리를 짧게 깎아 씻기 쉽게 해줍니다. 수염도 깎아줍니다. 침이 흐르고, 입가에서 음식물이 흘러내리니, 나중에 어떻게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서원은 마지막 서원입니다. 겸손의 서원입니다!

노인 돌봄의 보람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파라스와 에피로스에서는 늙은 동물들조차 정성껏 돌보았다. 뭐, 노새의 경우 이유는 알만 하다[— 그 고기는 식용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동물들조차 도살하지 않고 살려 두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밭을 갈던 늙은 황소들을 주인들은 공경했다. 그들은 늙은 황소들을 돌보고 보살피며 “이 녀석들은 우리를 먹여 살려준 존재들이잖아.”라고 말하곤 했다. 즉, 밭에서 일하던 일꾼 동물들은 편안한 노년을 보냈던 것이다. 게다가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은 기술적 수단이 없었으니까. 가난한 늙은 황소가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손으로 돌리는 맷돌로 사료용 렌틸콩을 갈아 잘게

⁶¹ 체티 — 터키의 산적들.

부쉬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늙은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늙은 사람조차 돌보지 않으니 말입니다!

내 평생 그 노승 한 분을 돌보는 임무를 맡았던 그 며칠만큼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었다. 노인들을 돌보는 일에는 큰 보상이 따른다. 성산에 있던 한 수련자가 끔찍한 악마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에게 수도원 노인 요양원에서 여섯 명의 연로한 수도사들을 돌보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 시절은 힘든 시기여서, 사람들의 노고를 덜어줄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그 불쌍한 수련자는 노인들의 속옷이 든 자루를 어깨에 메고 먼 연못까지 끌고 가서, 알칼리 용액으로 그 모든 것을 빨았습니다... 얼마 후, 그는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악마로부터 해방되어 수도사가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노승들이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많은 부부들이 함께 사는 노부모의 괴짜 같은 행동과 투덜거림 때문에 가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불평하고 분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 저지르던 ‘장난’들, 그때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던 징징거림과 기이한 행동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울음과 변덕으로 부모님을 지치게 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노인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예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끼쳤던 어려움에 대해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그들에게도 늙은 부모에게 어깨를 내어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그들을 위해 치렀던 희생들을 떠올리며 말입니다. 부모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은 종종 부모가 그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조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통을 겪습니다. 불쌍한 할머니나 가련한 할아버지를 양로원에 보내고, 그곳에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죽어가게 내버려둔 채, 재산만 챙겨가고 손주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기회조차 주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 노부인이 찾아와, 결혼한 아들이 네 명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그녀는 그들과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 번은 며느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교회에 다니라!”고 감히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격분해 버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발을 들이지 마!”라고 그들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그녀는 벌써 5년 동안 자녀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부님, 기도해 주세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저에게는 손주들도 있거든요. 제발 기도해 주세요. 적어도 꿈속에서라도 그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에, 도대체 이 여자의 자녀들이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 속의 할머니는 큰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더 일찍 늙기 때문에 아내들이 그들을 돌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은 할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 손주들을 돌보게 하고, 할머니가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년의 어머니도 평안을 찾고, 가족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자녀들에게 필요한 다정함과 사랑을 충분히 베풀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족한 부분을 할머니가 자녀들에게 채워줍니다. 할머니의 나이는 사랑과 다정함이 넘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말썽을 부리면 어머니는 꾸짖지만, 할머니는 다정하게 어루만져 줍니다. 아이들이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을 때, 어머니는 자신의 일을 모두 처리할 수 있고, 아이들은 다정함과 사랑으로 둘러싸이게 되며, 할머니 자신도 손주들의 사랑으로 따뜻함을 느낍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습니다. 한 젊은이가 결혼한 후 저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게론다, 집을 지어서 1층에 부모님과 장인·장모님을 모실 작은 방 두 개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를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려주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왜 많은 부부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며칠 전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신부님, 제 어머니께서 마비로 쓰러지셨어요. 정말 지쳤어요! 8년 동안 어머니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뒤집어 드리는 일만 해왔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으셨나요? 딸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 그런 어조로 말하고 있다니! “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기도할 테니, 8년 동안 네가 마비로 쓰러지고 네 어머니가 회복되어 너를 돌보게 해 달라고.” “아니요, 아니요, 신부님!” —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4년, — 제가 말했습니다, — 적어도 4년은 네게 필요해! 도대체 부끄럽지 않니? 어느 쪽이 더 낫겠니? 건강해서 고통도 없이 병든 사람을 돌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과, 고통받으며 발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겸손히 “제발 오리 좀 가져다 주세요, 저를 다른 쪽으로 돌려 주세요, 벽 쪽으로 좀 옮겨 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낫겠느냐?” 그 여자는 내가 한 말을 듣고는 조금 부끄러워했다.

자녀들이 늙어가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거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나도 언젠가는 늙을 테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될 텐데, 그때 내 며느리가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기분이 좋을까요?”라고 생각한다면, 가족 내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축복

부모의 축복은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그 축복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갔는지 보십시오. 심지어 양 가족을 뒤집어쓰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⁶²

특히 위대한 일은 바로 어머니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모든 말씀은 금화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요하네스버그에서 온 한 그리스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제게 어떤 인상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그는 가을에 제 칼리바를 찾아왔습니다. “헤론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병이 나서서 뵈러 왔습니다.” 세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성탄절에 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또 오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건강이 나빠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의 손에 입을 맞추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연세가 많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요. 저에게 가장 큰 부는 어머니의 축복입니다.” 60세나 된 사람이 요하네스버그에서 그리스까지 어머니의 손에

⁶² 창세기 27장을 참조하라.

입을 맞추러 오다니!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엄청난 재물을 축복으로 주셔서, 그는 성직자들을 위한 큰 양로원을 지어 교회에 기증하고자 한다. 즉, 그는 축복이 넘쳐나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고 할 수 있다! 나에게 그런 영혼은 마치 향유와도 같습니다. 마치 사하라 사막을 걷다가 뜻밖에도 물을 조금 발견한 것 같죠. 이 모든 것이 서서히 사라지고 흘러가 버립니다.

또 한 사람이 눈물을 펄펄 흘리며 내 칼리바로 찾아왔다. “신부님,” 그가 말을 꺼냈다. “제 어머니께서 저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온통 병과 불행으로 가득하고, 직장 생활도 온통 엉망진창이에요...” “아마 당신도 어머니께 어떤 빌미를 드렸을 거예요,” 내가 대답했다. — 어쨌든 어머니께서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저주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네, — 그가 말했습니다. — 저도 참 말썽꾸러기 아들이었죠...” “가서 — 제가 말했습니다. —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세요.” “가겠습니다, 신부님, — 그가 대답했습니다. —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내 축복은 네게 주마,” 내가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네가 어머니께도 축복을 받아야 한다.” “글쎄요,” 그가 말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실 리가 없는데요.” “가서,” 내가 말했다. “어머니께 가서, 만약 어머니께서 축복을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말하라. ‘어떤 노스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도 언젠가 하나님께 영혼을 바칠 것이라고 하셨다’라고 말해라.” 그는 어머니께 갔고, 어머니는 이렇게 그를 축복해 주셨다. “내 아이야, 아브라함의 축복이 네게 임하기를!” 얼마 후, 그는 다시 아픈 산으로 돌아와 나에게 체리 콤포트와 루쿰을 선물로 가져왔다. 그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아이들은 건강했고, 일도 순조로웠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람의 삶은 변했고, 그는 오직 영적인 이야기만 했다. 하물며 처음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4부.

영적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위대한 희생과 은혜를 인정하며, 또한 이성을 통해 스스로 성도들을 본받도록 노력할 때, 사람은 빠르게 거룩해집니다. 그는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타락함과 하나님에 대한 큰 배은망덕함을 깨닫게 됩니다.”

제1장.

가정에서의 영적 삶

사람이 불평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자신을 더 파괴한다

— 게론다, 불평은 어디서 시작되며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 불평은 자신의 불행에 대한 느낌에서 비롯되며, 이를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찬양은 또 다른 찬양을 낳는다. 만약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마귀는 [분노로] 터져 버리고 다른 사람—불평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더 큰 곤란을 안겨준다. 왜냐하면 사람이 불평할수록 자신을 더 심하게 파괴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탄갈라슈카가 우리를 훔쳐가고,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게 가르치지만,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인 기쁨과 찬양으로 맞이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산에 사는 한 수도사를 알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에게 “또 비가 오네요”라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비가 줄줄 쏟아지네. 이 습기 때문에 곧 썩어버리겠어.” 만약 비가 곧 그치고 당신이 그에게 “비가 그쳤네요”라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 이게 비라고 할 수 있겠어? 이런 비로는 모든 게 말라버릴 텐데...”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

니다. 아니요. 그저 불평하는 데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제정신이지만, 마치 미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불평 속에는 저주가 담겨 있다. 즉, 불평하는 사람은 마치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과 다름 없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닥치게 된다. 에피르에서 나는 두 명의 농부를 알고 지냈다. 그중 한 사람은 가족과 두 개의 작은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했다. 그는 마음의 근심에 시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일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야,”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 때로는 건초를 제때 거두지 못해 비에 썩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에 건초 더미가 흩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했고, 그의 모든 일은 잘 풀렸다. 다른 사람은 땅도 많고 소도 많으며 그 밖의 재산도 풍족했다. 아이는 없었다. 만약 그 사람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라고 물으면, 그는 “뭐가 어쨌다는 거야, 묻지 않는 게 낫겠어.”라고 대답했다. 그는 결코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늘 투덜대고 불평하기만 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보셨더라면 알겠지만, 때로는 소가 죽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불쾌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이 생기기도 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번창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은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 바나나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백만장자가 먹는 더 맛있는 음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시나요? 딱딱해진 빵 한 조각을 먹으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달콤함으로 양육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은 영적인 감수성을 기르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어루만지기 시작할 때를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짠맛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과 관련된 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도록 합시다

— 게론다, 왜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땅의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으나, 심겨지면 자라나 모든 풀보다 더 커지느니라...”⁶³

—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식물이 자라면 커다란 관목이 됩니다. 그 가지에는 새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에 비유되는데, 이는 복음의 작은 말씀 하나로부터 사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 헤론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기록된 그 말씀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⁶⁴

— 들어보아라, 축복받은 영혼아,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때야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 안에 마음의 불안과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지옥의 고통의 일부를 품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이미 이 생에서 천국의 기쁨의 일부를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가 이 영적 위대함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자신을 다스리시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삶을 천국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 하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모든 일에 대해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음의 근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불안은 마음의 붕괴로 이어지며,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사람이 천국을 구하면, 그 외의 모든 것도 그에게 주어집니다. 복음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⁶⁵ 고 말하며, 또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고도 말합니다.⁶⁶

⁶³ 마가복음 4:31–32. 또한 참조: 마태복음 13:32, 누가복음 13:19.

⁶⁴ 누가복음 17, 21.

⁶⁵ 마태복음 6, 33.

⁶⁶ 마태복음 11, 12 참조.

오늘날 사람들은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물질적 풍요를 쫓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되고 순수한 영적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은 무엇보다 먼저 작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단순화하고, 수많은 번거로움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이는 그들을 세속적인 정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활동을 위한 여유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행을 쫓느라 애쓰는 사람들은 지쳐가고, 평화와 고요함을 잃으며, 큰 정신적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고행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아픈을 떠나려 할 때, 우라노폴리스에서 온 한 분이 자신의 차로 저를 이곳 수도원까지 태워다 주셨는데, 가는 길에 잠시 자기 집에 들러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분이 계속 고집을 부리시기에, 저는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집 문 앞에 다다르자마자, 그가 신발을 벗고 발끝으로 복도를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왜 그렇게 이상하게 걷는 거예요?”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게론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루를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걷고 있을 뿐이에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이웃을 위한 아픔이 가족에게 힘이 된다

오늘날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를 더 많이 누릴수록, 그들은 그만큼 더 많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이웃의 불행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불행을 보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목적 없이 돈을 낭비하며, 먹을 것이 없는 이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겠는가? 비록 가족을 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기 위해 무언가 절약하고 돈을 저축해야 한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어딘가에 모든 이에게 버림받은 병든 사람이나 극심한 궁핍에 시달리는 가난한 가족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돈이 없다면, 그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적어도 기독교 서적 한 권이라도 선물해 줘

시다. 우리에게는 그런 책이 많으니까요.” 궁핍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 때,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불쌍한 신자들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 아시나요! 어느 날 저는 한 러시아 신부님께 작은 향 상자를 선물하며 “이 소박한 선물을 받아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소박한 선물일 수 있겠습니까? — 그가 대답했습니다. — 우리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좋은 향을 찾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와 다른 나라에서 온 난민들이 여기 그리스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할키디키에서 저는 러시아에서 온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돌판을 깔며 제곱미터당 300드라크마⁶⁷ 를 받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빵이 있다는 것에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계약업자가 일하는 동안 자신이 죄로 “과부하”가 걸린다고 불평했을 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 난민들에게 일을 맡겨서 그들을 돕는다면, 당신의 죄를 덜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은 살 곳이 없으니까요. 그들에 비하면 당신은 오나시스나 다름없습니다.”⁶⁸

우리가 미덕을 기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질병과 가난, 그리고 그와 유사한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실 수 있었으며, 모든 사람을 잘 돌보실 수도 있으셨,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자신이 미덕을 갖춘 사람이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자비롭다고 칭했을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 덕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부당하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가정을 구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그 길을 택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일이나 미래의 경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⁶⁷ 1992년에 발표됨. 대략 1미국 달러.

⁶⁸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1900–1975) – 그리스의 억만장자이자 최대 선주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믿음과 경건함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야 그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코니체에서 저는 한 가족을 알고 있었는데, 딸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교회에 무관심했습니다. 이 소녀는 종소리가 들리자마자 앞치마를 벗고, 하고 있던 일을 모두 미루고 서둘러 교회로 향했습니다. 심지어 독일군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성당 관리인이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종을 울리기 시작했을 때조차 이 소녀는 저녁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비록 그녀의 부모는 매우 인색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녀 자신은 매우 자비로운 마음을 지녔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인색함 때문에 제대로 된 음식 대신 물에 불린 마른 빵만 먹었다. 그녀의 어머니도 매우 인색했다! 자녀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성냥 한 개비도 아까워하여 재 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숯을 찾아내어 건초 조각으로 불을 피우곤 했다. 커피포트를 사지 않기 위해, 그들은 통조림 캔에 커피를 끓였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다. 나는 그 당시 스토미온 수도원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인색한 부모님의 집에서 무언가를 가져와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으로 주려고 했는데, 몰래 가져갈 수 없을 때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엄마, 이 물건은 수도사에게 필요해요.” “그에게 줘, 줘,”라고 어머니는 대답하곤 했다. 그 인색한 여자는 수도사들에게만 무언가를 주는 데 동의했다. 예전, 점령기 시절에도 그녀의 딸은 몰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곡물 창고에서 몰래 밀을 가져와 어깨에 메고 제분소로 운반한 뒤, 빵아서 가난한 가정들에게 밀가루를 나눠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그녀를 ‘범행 현장’에서 적발했습니다. 그 소녀는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녀는 하느님께 서원을 드렸습니다. “오, 하느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게 어떤 일이라도 찾게 해 주시면, 월급 전액을 자선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한 자선 단체에서 일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 그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번 돈으로 자신을 위해 양말 한 켤레조차 사지 않고, 모든 것을 자선으로 바쳤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길. 당신의 부모님의 유골에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그녀의 자선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가정에서 미덕을 기르는 법

— 게론다,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자신 안에 미덕을 기를 수 있습니까?

— 하느님께서서는 이를 위해 유리한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비록 하느님께 덕을 기를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달라고 청하면서도,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때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남편이 겸손과 인내를 기르기를 바라시어, 아내에게서 은총을 거두어 가시면, 아내는 “피를 부리며” 남편에게 무례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남편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주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는,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하나님께 인내심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자, 아이가 다가와 식탁보 가장자리를 잡아당기며 모든 그릇이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아이는 마치 어머니에게 “엄마, 참아!”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려움들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듭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금하시기를, 전쟁이 발발하면, 사람들은 긴장을 풀지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예로 들어 보자. 그 불쌍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시련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방심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반면 평화로운 시기, 즉 어려움이 없을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앙과 도덕 문제에 무관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시기야말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점을 잘라내고 미덕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 생활에서 침묵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일과를 계획할 때 침묵을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은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자신의 정욕을 깨닫고, 이를 끊어내고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수도원의 방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조용한 방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곳에서

“은밀히”⁶⁹ 영적 의무를 다하고, 영적 서적을 읽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앞서 짧은 영적 독서를 한다면, 이는 기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독서를 통해 영혼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영적인 영역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일로 주의가 산만해지기 쉬운 사람이 기도할 10분의 시간이 있다면, 그 중 2분을 할애하여 산만함을 떨쳐낼 수 있는 깊은 내용을 읽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 게론다, 지금 세속 사회에서 선생님께서 묘사하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 아니요, 매우 영적으로 살아가는 평신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수행자처럼 살아갑니다. 금식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묵주를 짚으며 기도하고, 절을 합니다. 자녀와 손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일요일이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성체를 영하고 다시 자신의 ‘수행실’로 돌아갑니다. 마치 일요일에 스키타의 대성당에 왔다가 다시 자신의 칼리바에서 침묵을 지키는 은둔자들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는 그런 영혼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어디에 있든 끊임없이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는 한 가정의 가장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할 때면 언제나 눈물을 흘립니다. 그의 기도는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었고, 그의 눈물은 달콤하며, 이는 신성한 기쁨의 눈물입니다. 성산(聖山)에 있던 한 노동자도 기억합니다. 그의 이름은 야니스였습니다. 그는 매우 힘든 일을 하며 두 사람 몫을 해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일하는 동안 예수 기도를 드리도록 가르쳤고, 점차 그는 그 기도에서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에게 와서 예수 기도를 드릴 때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군요.”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술에 취한 두 명의 불량배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한 수도사가 야니스가 어딘가에 두었다가 찾을 수 없게 된 도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야니스가 그에게 꿈에 나타나 그 도구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경지에 이르러, 저 세상에서도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⁶⁹ 마태복음 6장 4절 참조.

영적 삶은 참으로 얼마나 단순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위대한 희생과 은혜를 인정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성인들의 모범을 따르도록 스스로를 다잡는다면, 사람은 금세 기록해진다. 오직 그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께 대한 큰 배은망덕함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가족의 기도

— 게론다, 온 가족이 함께 저녁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 어른들은 이 점에 있어 고상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저녁 기도를 드리며 어린 아이들에게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잠시 기도해 보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기도에 대해 일정한 ‘티피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른들이 15분 동안 기도한다면 아이들은 2분이나 5분 정도 기도하고, 더 하고 싶다면 원하는 만큼 기도하게 하면 됩니다. 부모가 억지로 아이들을 데리고 저녁 기도 전체를 다 서게 한다면, 나중에 아이들은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아직 기도의 힘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콩이나 고기, 그 밖의 어떤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아직 젖만 먹고 있다면, 부모가 칼로리가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아기에게 고기를 먹이라고 강요하겠습니까? 고기는 확실히 칼로리가 더 높지만, 아기는 아직 그것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아기가 고기를 먹도록 익숙해지게 하려면, 부모는 아주 조금씩 — 고기 육수 한 숟가락에 작은 조각을 넣어 — 주며, 나중에 아이가 스스로 그런 음식을 원하게 만듭니다.

— 게론다, 때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저녁이 되면 너무 지쳐서 저녁 기도조차 읽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 만약 그들이 너무 피곤하거나 아픈 경우, 밤기도를 전부 다 읽지 말고 절반만 읽게 하십시오. 아니면 적어도 ‘주님의 기도’를 한 번만 읽게 하십시오. 기도를 아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전쟁 중에 높은 곳에서 적들에게 포위된 병사가, 적들이 두려워하여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때때로 소총을 쏘듯이, 온전한 기도를 드릴 힘이 남아 있지 않은 사람들도 [영적인] 총알을 쏘아, 탕갈라슈카가 두려워하여 도망가게 해야 합니다.

가족의 기도는 큰 힘을 지닙니다. 저는 두 형제를 알고 있는데, 그들은 기도를 통해 다투던 부모님의 이혼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두 분을 예전보다 훨씬 더 끈끈하게 이어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루에 두 번은 반드시 하나님께 보고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실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우리 모두—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들—은 성화상 앞에서 기도를 드렸고, 기도가 끝날 때면 그리스도의 성화상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유혹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면, 그것이 해결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어느 날 막내 동생이 아팠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께, 그를 치유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가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고, 동생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도 우리는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먼저 기도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식사 축복을 하기 전에 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죄로 여겼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이유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집에 돌아와 혼자 식탁에 앉는다면, 이는 가족의 해체로 이어집니다.

부부의 영적 삶

— 게론다, 남편이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그녀가 남편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남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도록 기도하게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스도께서 서서히 그의 마음에 ‘상륙부대’를 보내실 것이고, 남편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마음이 조금만 누그러지면, 아내는 예를 들어 남편에게 차로 교회까지 태워다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 안 가니?”라고 설득할 필요는 없고, 그저 이렇게 부탁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담되지 않는다면, 나를 교회까지 태워다 줄 수 있을까?” 아, 아내를 교회까지 태워다 준 남편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음,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촛불을 켜고 올게.” 그리고 그 후 그가 서서히 영적으로 더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게론다, 아내의 영적 지도자가 남편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때로는 남편을 돕기 위해 영적 지도자가 아내를 대상으로 영적 지도와 돌봄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있는 좋은 점이 남편에게도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느님께서 그가 변화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성은 본성상 경건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처음에는 교회에 무관심하다가 나중에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는 영적인 면에서 확고하게 나아가는 반면 아내는 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내가 영적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남편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남편이 영적으로 더 나아갈수록, 아내는 —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 남편에게 더 많이 반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늦겠어, 일어나서 교회에 가자”라고 말하면,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혼자 가! 아니, 넌 날 이해 못 해. 나 일할 게 산더미인데...” 또는 남편이 예를 들어 “이봐, 왜 램프 불이 안 켜져 있어?”라고 말하거나 꺼진 램프를 직접 켜려고 하면, 그는 아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아내는 소리친다. “너, 신부가 되려고? 아니면 수도사가 되려는 거야?” 그녀는 심지어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 램프를 켜는 거야? 차라리 그 기름을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낫지.” 네, 네, 그녀는 심지어 그 지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개신교의 어리석은 생각까지요. 물론, 나중에 아내는 자신이 늘어놓은 수많은 변명들 때문에 스스로 속상해하지만, 동시에 남편에게서 보이는 영적 성장을 보고는 계속 속상해합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램프를 켜는 것보다 램프를 꺼둔 채로 두는 편이 천 배는 낫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내가 마음이 평온할 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있잖아, 내가 교회에 가거나, 기도하거나, 경배의 표시를 하거나, 영적인 책을 읽을 때, 그건 내가 경건해서 그런 게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나를 제동 걸고, 자제하게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끔찍한 사회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야. 안 그러면 알잖아: 내가 온갖 술집과 사교 모임에 휘말려 돌아다니게 될 테니까...”“ 남편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아내는 기뻐하며 스스로 변화하여 영적인 면에서 남편을 앞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다르게 던지면, 그는 아내를 끔찍하게 화나게 하고 견딜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습니다. 심지어 이혼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

내를 영적으로 돕고 싶다면, 어머니와 아내가 경건함을 지닌 영적인 삶을 사는 가족과 아내를 연결해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가 그들을 본받고 싶어 할 테니까요.

아이들과 영적 삶

— 게론다, 어떤 어머니가 아이에게 성수를 주었는데, 아이가 그것을 뱉어 버렸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그녀는 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녀가 아이에게 성수를 주는 방식이 아이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려면, 부모 역시 올바른 영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착한 아이가 되도록 돕고자 하지만, 그것은 자녀의 영혼 구원이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착한 자녀를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가 영원한 고통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녀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가 더 걱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억지로 교회에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억지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느끼며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의 거룩한 삶은 자녀들의 영혼에 감동을 주며, 그러면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아이들은 경건함과 두 배의 건강을 지니며 자라나고, 영혼의 상처를 피하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두려움에 이끌려 자녀들에게 엄격하게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아이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기심에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도우시지 않습니다. 종종 아이들은 부모의 자만심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 게론다, 가끔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세 살, 네 살짜리 아이들은 어떻게, 또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어머니니까, 아이가 얼마나 힘을 낼 수 있는지 직접 지켜보세요.” 여기서는 규칙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 게론다, 부모님들이 밤샘 기도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수도원에 오시곤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지루한 일이 아닐까요?

— 아침 기도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잠시 쉬게 해 주세요. 그리고 성찬 예배 때는 다시 아이들을 성당으로 데려오세요.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아주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카파도키아 마을 주민들은 금욕적인 전통을 깊이 간직하며 실천했다. 그들은 아이들을 동굴, 성당, 예배당으로 데려가 절을 올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밤에 약탈하러 온 무리들이 이 작은 교회들 옆을 지날 때면, 울음소리를 듣고 놀라곤 했다. “무슨 일이야? — 그들이 물었다. —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지? 왜 낮에는 웃고 밤에는 우는 거지?” 강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린 아이들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 그분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수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밭일에 나가신 사이, 저는 두 남동생과 함께 집에 남겨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끔찍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우리는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오실 수 있을까?” 어린 동생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와,” 제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스님께 비를 그치게 해 달라고 기도해 보자.” 우리 셋은 성화상 앞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비가 그쳤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고, 아주 어린 나이부터 지극히 높은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부모는 서서히 그들에게 영적인 책을 읽도록 가르치고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마치 작은 천사들처럼 되어, 기도할 때 하느님께 큰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가족에게 진정한 영적 자산입니다. 영적 삶에서 성인들의 행적 기록은 그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시절에 출판되던 성인들의 생애가 담긴 작은 책들을 챙겨서 숲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책을 읽고, 기도하며, 그저 기쁨에 휩싸여 날아다녔습니다. 열 살부터 열여섯 살까지(그리스-이탈리아 전쟁이 시작되기 전

까지⁷⁰), 세속적인 걱정 없이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쁨은 순수합니다. 그 기쁨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자라나면 그 마음을 깊이 감동시킵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산다면, 이 세상에서도 기쁨을 누릴 것이며, 내세에서는 그리스도 곁에서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

— 게론다, 한 부인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짐이 되어 온 두 사촌 자매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 그분이 뭘 원하시나요? 뭐, 새로운 복음서를 쓰라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며, 그들의 영혼에 유익한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입니다.

— 게론다, 가족 사이에 오해가 생기면, 그들을 돕기 위해 무언가 말을 해야 할까요?

— 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해요. 왜냐하면, 침묵을 지키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다투는 친척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준 사람을 잘못 이해하고 그에게 화를 낸다면, 그때는 “제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는 타인에게서 볼 수 있는 예의 바름이나 좋은 매너에 속아서는 안 된다. 세속적인 예의와 좋은 매너는 상당한 해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위선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겉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를 완벽한 성자로 보이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내면이 드러나면 사실은 정반대였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 게론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음을 느끼고 이해한다면, 그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 만약 그 사람이 매우 가까운 사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첫째, 그 역시 한때 그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고, 둘째, 그 자신도 상대방이 자신에게 느끼는 그

⁷⁰ 1940년 그리스와 파시스트 이탈리아 간의 전쟁. - 역자 주.

내면의 감사를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친절하게 대해 준 사람이 그리 가깝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들에게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아이가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면,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해주는 모든 일에 대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박하고, 항상 그들에 대해 선한 마음을 품으며, 모든 사람을 지나치게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큰 유익이 됩니다. 겉으로는 영적 유익을 위한다고 시작되지만, 실은 대개 골치 아픈 일로 이어지는 논쟁과 대화를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영적인 이해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는 편이 낫다. 각자에게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하며, [신자]는 자신이 믿고 체험하는 그 위대한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가 다른 주파수로 말하고, 다른 길이의 [영적] 파장에 있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스승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으로 다른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도 스스로는 자신이 말하는 바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 삶]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조만간 그의 내면의 사람이 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고통과 참된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면, 그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킨다. 거룩함을 지닌 사람은 — 어디에 있든 — 말하자면 주변에 일종의 영적 전자기장을 형성하며, 그 장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우리는 주의 깊어야 하며, 우리의 사랑을 낭비하지 말고 남에게 쉽게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종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자기 손에 쥐고 나서는, 그 마음이 [무의미하게] 피로 물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명절의 유혹

— 게론다, 왜 명절에는 대개 어떤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 너도 모르니? 축일에는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성인들이 기뻐하며 다른 이들에게 [영적으로] 대접을 베풁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영적인 선물을 선사하죠. 어쨌든 부모들도 자녀의 이름날에 잔치를 베풀고, 왕들은 왕자가 태어날 때 사면을 선포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성인들이 자신의 축일에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으로] 대접해 줄 수 없겠습니까? 게다가 성인들이 주는 기쁨은 오랫동안 지속되며, 사람들의 영혼은 그로부터 엄청난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를 알고, 사람들이 받은 신성한 은총을 잃게 하고, 성체성사(聖體聖事)가 그들에게 기쁨도 유익도 주지 못하도록 유혹을 꾸미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종종 가족들이 모두 성체성사를 준비할 때, 악마가 그들을 부추겨 다투게 만들고, 그 결과 그들은 성체를 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가지 않게 됩니다. 탄갈라슈카는 사람들이 신성한 도움을 잃게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우리의 수도 생활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탄갈라슈카는 축일에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임을 경험으로 알고, 그날—대개는 전날—어떤 유혹을 꾸미곤 합니다. 그가 바로 유혹자 아니겠습니까 [— 그 외에 무엇을 더 꾸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는 우리의 내적 태도를 망가뜨립니다. 예를 들어, 그는 우리를 어떤 형제와 논쟁이나 말다툼으로 몰아넣은 다음,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를 꺾어버립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그는 우리가 명절의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속에서 [명절을 보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의 빌미를 주지 않았고, 그 유혹이 오로지 마귀의 시기심 때문에 일어났음을 보시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일어난 유혹에 대한 책임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선을 미워하는 마귀조차도 정죄하지 않을 때, 그분은 우리가 더 큰 유익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어쨌든 유혹을 꾸미고 악의를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평화와 선함을 퍼뜨려야 합니다.

제2장.

일과 영적 삶

노동은 축복이다

— 헤론다, 옛날에는 “이불을 닦는 것보다 신발 밑창을 닦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나요?

— 즉, “침대에 누워 빈둥거리는 것보다 일하며 발바닥이 닳도록 일하는 편이 낫다”는 뜻입니다. 노동은 축복이며,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노동은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음을 상쾌하게 합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노동을 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곰팡이가 피었을 것입니다. 근면한 사람들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 힘이 남아 있는데도 일을 그만두면, 그들은 낙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그만두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코니체에서 한 90세 노인이 쉬지 않고 일하곤 했습니다. 결국 그는 집에서 걸어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밭에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체적 안식은 결코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점도 언급해야 합니다. 육체적 안식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은 단지 잠시 동안만 마음의 불안감을 잊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점심, 디저트, 샤워, 휴식 등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더 큰 평온을 갈망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늘 불만스러워합니다. 그들은 공허함을 느끼고, 그들의 영혼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 애씁니다. 반면, 수고로 지친 사람은 끊임없는 기쁨, 즉 영적인 기쁨을 누립니다.

— 게론다, 하지만 예를 들어 허리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잖아요.

— 그럼 네 생각엔 허리 근육을 단련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허리에 운동이 되는 활동이 허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말해줄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일만 하지 않으면, 몸속의 모든 ‘톱니바퀴’가 ‘풀려’ 버려서 계속 잠만 자고 싶어져. 왜냐하면 몸과 신경이 이완되고 느슨해지기 때문이야. 서서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기 시작한다. 하지만 조금씩 일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리와 팔이 튼튼해진다. 보라: 노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래 자지 않거나 심지어 피로로 인해 아예 잠들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다. 이는 노동함으로써 그들이 단련되고 육체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이다.

일은 건강의 원천이며,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엄마의 아이’들이 군대에 가면서 성숙해지고 단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대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주로 과거의 일입니다. 오늘날 군대에서는 병사들을 귀찮게 하거나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을 꺼립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을 조금이라도 “귀찮게” 하면, 그들은 손목을 그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저는 부모님들께 아이들을 누군가에게 일하러 보내고 심지어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할 것을 권합니다. 아이들이 하게 될 일을 좋아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힘과 머리가 있는데도 청년이 일하지 않으면, 그는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며 쇠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의 이기심에 얽매어 아무것도 기뻐하지 못하게 된다. 그는 끊임없이 잡생각에 시달리며, 마치 머릿속이 짚으로 채워진 듯하다. 그러다 악마가 다가와 속삭이기 시작한다. “불쌍한 놈아, 너는 정말 무능하구나! 네 또래 중 한 명은 교수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사업을 시작해 돈을 벌고 있는데, 넌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악마는 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린다. 하지만 그 청년이 일을 시작하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일로 머리가 가득 차서 쓸데없는 생각에 빠질 시간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즉, 이득은 두 배가 될 것이다.

직업 선택

— 게론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과 똑같은 직업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며, 종종 이를 매우 집요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 아니요, 그들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부모의 뜻대로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부에 진학해 사제가 되고 싶어 했던 한 청년을 알고 있었습니

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반대했고, 의대에 가라고 고집했습니다. 그 청년은 비잔틴 성가를 배워 성당에서 노래했다. 그는 직접 악기를 만들어 그 악기로 교회 성가를 연주하기도 했다. 많은 교회 성가를 외우고 있었다. 그는 상당한 재능을 지녔으며, 트로파리를 짓고 예배 순서를 구성하기도 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이 청년은 신학부에 입학했다. 그의 어머니는 심적 고통으로 인해 신경 쇠약에 걸렸다. 그 후 그녀는 나를 찾아와 이렇게 부탁했다. “신부님, 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 주세요.” 그러나 건강을 되찾은 후, 그녀는 다시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신학부를 그만두고, 성가 부르기를 포기한 채 헛되이 자신을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청년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어떤 직업이나 학문이 마음에 드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타고난 소질이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청년이나 소녀들이 자신에게 소질이 없는 길을 택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자신이 소질을 느끼는 일에 마음을 쏟으라고 조언합니다. 즉, 나는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도록 돕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누군가 음악에 소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훌륭한 음악가나 훌륭한 성가대원이 되어, 자신의 노래로 듣는 이들이 교회와 기도를 사랑하게 되도록 돕게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회화에 대한 소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화가나 성화가가 되어 경건한 마음으로 기적을 일으킬 성화를 그려내게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과학에 대한 소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과학에 전념하여 열정을 다해 연구에 매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이 어떤 소명을 가졌는지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어느 날 스토미온 수도원에 한 남자가 두 명의 어린아이, 즉 자신의 조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여섯, 일곱 살쯤 되어 보였는데, 우리 옆에 앉더니 쉬지 않고 온갖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커서 뭐가 되고 싶니?”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요!”라고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 갔지?”라고 제가 아이의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절벽으로 떨어지진 않았나요?” 우리는 아이를 찾으러 나갔다가 목공소에서 망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공소에 들어가 보니, 그 꼬마가 도끼로 매끄럽게 다듬어진 작업대 덮개를 아주 멋지게 망가뜨려 놓아서, 그 후로는 난로에 넣는 것밖에

쓸모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커서 뭘 할 생각이니?” — 내가 그에게 물었다. “목수, 특히 고급 가구 장인이 될 거야!” — 꼬마가 대답했다. “그렇게 될 거야, — 내가 말했다. — 그렇게 될 거야. 판자를 망가뜨린 건 상관없어! 뭐, 그게 대수겠어.”

일에 대한 사랑

— 계론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동안 지루함을 느끼나요?

—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일을 좋아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일하는 동안 끊임없이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종종 일부 생산 현장, 예를 들어 창문과 문을 만드는 공장에서, 한 기술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판자를 서로 접착하고, 다른 기술자는 끊임없이 그 안에 유리를 끼우고, 또 다른 기술자는 매일 그 틈을 퍼티로 메우는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단조로운 작업만 반복하고, 사장님은 돌아다니며 그들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계속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지루해지기 마련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수는 건축업자로부터 네 면의 벽을 넘겨받아, 주인에게 완공된 집을 ‘열쇠만 돌리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깔고, 창문과 문을 설치하고, 유리창에 실리콘을 바르는 등의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나선형 계단과 정교하게 깎은 난간을 만들었고, 이 모든 것을 칠한 뒤에는 옷장과 선반을 만드는 차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야 가구 제작에 착수했죠. 설령 한 명의 장인이 이 모든 일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필요할 경우 목수는 지붕에 기와를 얹을 수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그들은 시계를 쳐다보며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오기만을 조바심하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에게 책임감과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다면, 일을 더 많이 할수록 그 열정은 더욱 불타오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에 온전히 몰입하게 되고, 퇴근 시간이 되면 놀라워하며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라고 묻습니다. 그는 식사도, 잠도,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더라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았더

라도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졸음이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잠을 자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배고픔이나 수면 부족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은 축제이자 환희입니다.

— 게론다, 가령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합시다. 왜 한 사람은 그 일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영적인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까?

— 모든 것은 그들이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와 그들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겸손과 사랑으로 일한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깨달음과 정화, 기쁨과 은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그 자신도 내면에서 힘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한다는 교만한 생각을 품으면, 사람은 일종의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만족감은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사랑을 담지 않고 일을 하면 지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일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일을 끝내기 위해 산을 올라야 한다면, 그 산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력이 닳아버립니다. 반면, 같은 일을 진심을 다해 하는 사람은 산을 오르는 것도 모르게 가볍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진심을 담아 밭을 갈거나 채소밭의 잡초를 뽑는다면, 뜨거운 햇볕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 일해도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진심을 담지 않고 일한다면, 자꾸만 멈춰 서고, 하품을 하며, 더위를 탓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 게론다, 일이나 학문이 사람을 너무나 사로잡아 가족이나 다른 의무에 무관심해질 수도 있습니까?

— 일을 단순히 사랑해야 합니다. 일에 폭 빠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두 배로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영혼이 지쳐버리면, 육체적인 휴식으로도 기력을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정신적 피로야말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일하며 기쁨을 느낄 때, 사람은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으며 육체적인 피로도 사라집니다. 저는 심지어 병사들의 일까지 직접 하는 장군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병사들을 얼마나 아껴 주는지 아십니까? 마치 아버지처럼요. 그리고 그가 어떤 기쁨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며 기뻐합니다.

어느 날 자정, 그는 유로스⁽⁷¹⁾를 떠나 라리사(Larissa)로 향했습니다. 성 아킬리우스⁽⁷²⁾를 기리기 위해 신성한 전례에 제시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비록 나중에 와서 기도회만 참석해도 되었지만, 그는 성인을 공경하기 위해 일찍 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진심을 다해 행합니다.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느끼는 기쁨은 선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이 지치지 않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는 피로를 통해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각자는 자신이 가진 은사를 영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으니, 그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지성은 [그에게 주어진] 능력이지만, 각자가 자신의 지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발명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능력을 잘못 사용한다면, 사람은 예를 들어 이웃을 약탈하는 방법을 고안해 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신문이나 잡지에 자신의 그림을 게재하는 화가들을 예로 들어 봅시다. 한 편의 풍자 만화나 한 장의 그림 속에는 온갖 사건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만약 이 화가들이 자신의 유연한 사고력을 유익하게 사용했다면, 그들은 그 능력을 고귀하게 만들었을 것이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현재 많은 이들은 선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뻔뻔한 사람이라면 더욱 뻔뻔한 짓을, 우스꽝스러운 사람이라면 더욱 우스꽝스러운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⁷¹ 에우로스 – 터키 국경에 인접한 그리스 북동부의 강. – *역자 주*.

⁷² 성 아킬리우스 라리시우스(† 약 330년)의 기념일은 5월 15일이다. – *역자 주*.

즉, 재능이 뛰어나고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거나, 아니면 그들을 파멸로 이끈다. 반면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큰 선을 행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큰 악을 저지를 수도 없다.

일과 마음의 불안

— 게론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 저는 남성분들께 퇴근 후 어느 성당에 들러 촛불을 켜고, 10~15분 정도 예배에 참석하거나 공원 어딘가에 앉아 복음서 한 구절을 읽으며 마음을 가라앉히기를 권합니다. 그 후 평온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짜증 난 채로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다투게 될 테니까요. 직장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집으로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집 문 밖에 두고 와야 합니다.

— 게론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짊어지고 있는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져 과민해지고 긴장하게 되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 그 일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불안감을 안겨주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일에서 하나님을 도우미로 삼는 것을 잊기 때문이다. “괜찮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라고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게으름뱅이조차도 그런 사람들보다는 낫다. 제 생각에는, 기업주가 되어 “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끊임없이 되뇌는 것보다,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며 올바르게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삶을 단순화하며 필요한 것만 챙기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대개 그런 거물급 인물들은 빚도 많이 지고 있죠. 게다가 거기에는 교만까지 섞여 있습니다. “자, 대출을 한 번 더 받으면, 이것도 짓고 저것도 마련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라고 그런 사람들은 말하지만, 결국 계산 착오를 범하고 파산하여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곤 합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머리를 쓰지 않고 일합니다. 그들은 헛되이 기력을 소진할 뿐,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눈에 평가가 떨어지고,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특정 예술이나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여 수년 동안 스승에게 다니거나 교육 기관에 다니지만, 부주의한 탓에 머리를 쓰

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일에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 예를 들어, 세속에서 목수로 일할 때, 내가 만드는 가구에 선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선반 장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 했던 말인가?

아니요. 저는 선반을 구입해서 직접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자, 나선형 계단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앉아서 기하학과 산수를 떠올린 뒤, 그런 계단을 만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 고생하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사람은 머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동안 종종 수많은 문제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써서 일하면 사람은 훌륭한 장인이 될 것이며, 각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머리는 모든 일에서 생산적인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미성숙한 상태로 남게 되고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게 됩니다.

노동의 성화

모든 사람은 각자의 기도와 [기독교적인] 삶을 통해 자신의 노동을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만약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그가 그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는 그들에게도 영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내면적으로 선한 상태에 있다면, 그 역시 자신의 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장인에게 자신의 기술을 배우러 온다면, 장인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사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사 자신은 물론, 부하 직원들과 고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노동을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⁷³ 예를 들어, 의사는 다음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학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의사는 신

⁷³ 물론, 기독교인이라는 칭호와 양립할 수 없는 직업들은 제외된다.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직업들이 특히 많아졌는데, 예를 들어 갱패, 도둑, 부도덕을 조장하는 자, 고리대금업자, 주술사, 낙태를 행하는 의사, 사진 모델, 광대 등이 있다. 이러한 직업들은 거룩하게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해 치유되어야 한다. — *번역자 주*.

성한 은총의 그릇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의사는 훌륭하고 선한 기독교인이자 동시에 뛰어난 전문가로서, 자신의 선함과 믿음을 통해 환자들을 돕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환자들에게 질병을 용기 있게, 그리고 믿음으로 대하도록 고무하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질병의 경우, 그러한 의사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학이라는 과학은 지금 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교사는 기쁨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아이들의 영적 부흥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영적 부흥은 부모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모든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동시에, 교사는 그들이 진정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배운 지식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회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잘 해낼 올바른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교사는 수업 내용을 잘 배웠는지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 친절함, 정직함 같은 학생들의 다른 미덕이나 긍정적인 면모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시는 평가는 선생님들이 주는 평가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2점’인 것이 하나님께는 ‘5점 플러스’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5점 플러스’인 것이 하나님께는 ‘2점’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 게론다, 일하는 동안 사람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 어쩌면 그 사람이 자신의 일에 선한 마음을 품지 않고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자신의 노동을 올바른 태도로 대한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 그에게 있어서는 축제이자 경사가 될 것입니다.

— 게론다, 만약 어떤 사람이 힘들거나 더러운 일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낙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일하거나, 구내식당에서 보일러를 닦거나, 그와 비슷한 일을 한다면요? 그런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사실,⁷⁴ 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듯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가마솥을 닦든, 냄비를 닦든, 흙을 파든—기뻐해야 합니다. 어차피 어떤 사람은 다른 일을 찾을 수 없어서 하수도를 청소하기도 하니까요. 그 불쌍한 사람은 하루 종일 오물과 세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란 말입니까? 한 가정의 가정은 하수구 청소부로 일하면서 높은 영적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결핵에 걸렸지만,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대신해 다른 누군가가 고통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경멸하는 천한 삶을 사랑했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직업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나는 죽은 사람을 되살린 항구 하역공을 알고 있었다. 제가 이베르스키 스키투에서 디케오스⁷⁵ 로 있을 때, 어느 날 55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에 도착한 그는 수도사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문을 두드리지 않고 길거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스키투의 형제들이 이를 보고는 그를 안으로 데려와 저에게 알렸습니다. “왜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까? —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 우리가 문을 열어 드리고 숙소를 마련해 드렸을 텐데요.” — “신부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그가 대답했습니다. — 제가 감히 형제들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를 보고, 저는 그가 매우 영적으로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결혼한 후 장인을 무척 사랑했다고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일을 마친 뒤 그는 먼저 장인과 장모 댁에 들른 다음, 그제야 자기 집으로 갔다. 하지만 장인이 입이 거친 사람이라 그는 매우 속상해했다. 그는 장인에게 욕을 그만두시라고 여러 번 부탁했지만, 장인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어느 날 장인이 중병에 걸렸다. 병원으로 이송된 지 며

⁷⁴ 요한복음 13장 4-14절 참조.

⁷⁵ 디케오스 — 성산(聖山)의 스키투에서 스키투 거주자들 간의 생활을 조율하기 위해 1년 임기로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수도사. — 역자 주.

칠 뒤, 장인은 세상을 떠났다. 장인이 임종을 맞이할 때, 그 하역 노동자는 곁에 없었다. 그 시간 그는 항구에서 배의 화물을 하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병원에 도착해 장인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자, 영안실로 가서 큰 슬픔을 안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 하나님, 제발 그를 다시 살려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후에 다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자 죽은 장인이 눈을 뜨고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본 영안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하역공은 장인을 집으로 데려갔고, 장인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 후 그는 회개하며 5년을 더 살았다. “아버지, — 하역공이 내게 말하길, —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이 사람은 매우 소박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게다가 그는 너무나 겸손해서 자신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말 그대로 흠으로 돌아갈 지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명성을 얻지 못하거나 헛된 재물을 쌓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명성과 부가 저 세상, 즉 진정한 삶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것들을 저 세상, 즉 진정한 삶으로 가져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이곳, 지상에서 다가올 위대하고 영원한 여정을 위한 ‘해외 여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일들만을 그곳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제3장.

일상생활에서의 절제

금욕을 통해 사람은 육체가 없는 천사들과 닮아갑니다

— 헤론다, 한 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투쟁에서는 [적을] 봉쇄해야 한다.” 무슨 뜻이셨습니까?

— 전쟁 중에는 적을 봉쇄하려고 합니다. 적을 포위하고 성벽 안으로 몰아넣은 뒤 굶주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물까지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적이 물과 식량, 탄약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금식과 기도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귀와 싸운다면, 마귀는 무기를 버리고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와 경건함으로 하늘의 은총을 받자...*”⁷⁶ —라고 찬송가 작사가가 말합니다.

금욕과 고행을 통해 사람은 무형의 힘과 닮아간다. 물론, 더 높은 영적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절제해야 한다. 만약 사람이 건강에 해로운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절제한다면, 그는 [오직] 자신의 육체의 안녕만을 돌보는 것이다. 이 경우 그의 금욕은 요가를 수련하는 사람들의 금욕과 비슷하다.

안타깝게도, 금욕과 수행에 관한 문제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조차 뒷전으로 밀어두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라고 그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먹어야 하고, 이것저것 즐겨야 하잖아... 어차피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우리를 위해 마련된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한 수도원장이 제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평소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눈치챈 아르히만드리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훼손하시리라!*”⁷⁷ “혹시,”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언가를 혼동하신 건 아니십니까? 이 성경 구절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금욕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음탕하고 방탕한 삶을 말하는 건가요?” 성경은 음행과 방종으로 [자신의 몸인] 하나님의 성전을 타락시키고, 즉 파괴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금욕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보시다시피, 자신의 생각을 달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금욕으로] 하나님의 성전[—우리 몸]을 ‘타락’시키지 않기 위해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수도원을 방문하고 나서 나에게 소감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갔던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들이 너무 심하게 금식하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기름이 든 가죽 주머니는 손도 대지 않았더군요. 신부님, 금식과 기도가 도대체 이 지경

⁷⁶ 성인들을 위한 공동 트로파리에서: “*사막의 거주자요, 육신 속의 천사...*”

⁷⁷ 고린도전서 3, 17.

까지 이르게 하는군요!” 이럴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점심과 과일, 과자를 다 먹어치운 뒤,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금욕적인 수행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금욕과 절제가 주는 영적 기쁨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우유를 몇 잔이나 마셔야 해,”라고 그런 성향의 사람이 말한다. “아니, 금식 기간에는 물론 절제할 거야. 하지만 그 후엔 금식 기간 동안 내 몸이 박탈당한 그 부족한 우유 잔 수만큼을 보충할 거야! 어쨌든 나는 그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니까.” 문제는 그의 몸이 실제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아니요, 그는 [그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단순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만 해도, 그것은 이미 죄가 됩니다. 인간의 논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사람은 교회에서 정한 금식을 [어떻게든] 지키면서도, 그 금식 기간 동안 잃은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어, 그럼 [그런 사람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머무르실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떤 기혼자들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아홉 명의 자녀를 둔 아주 소박한 한 남자가 고해성사를 하러 왔고, 고해신부는 그에게 성체를 영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신부님,”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성체를 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식사에 기름을 곁들여 먹잖아요. 저도 일하잖아요.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요.” “자녀가 몇 명이나 되나요?” — 고해 신부가 물었다. “아홉 명입니다.” “음식에 기름을 얼마나 넣으시나요?” — “식물성 기름 두 숟가락요.” “그럼 네게 돌아가는 기름이 얼마나 되겠니, 이 불쌍한 사람아?” — 고해 신부가 외쳤다. — 가서 성체를 받아라!” 열한 식구가 먹는데 고작 식물성 기름 두 숟가락뿐이었다. 게다가 그는 죄책감까지 괴롭히고 있었다!

나는 자신이 실천한 고행으로 인해 성화된 평신도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 성산에서 한 평신도가 아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폰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그러다 고향에서 좋은 일자리가 생겨 아버지는 온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 아이도 데리고 성산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아들은 수도사들의 금욕적인 삶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세속 생활의 마음의 불안함을 떠올리며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는 다른 자녀들도 계시잖아요. 한 명만 성모 마리아의 정원에 남겨 두세요.” 그는 아버지의 설득에

굴복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성산에 남겨두어야 했다. 이 소년은 문맹이었지만 매우 예민했고, 호기심이 많으며 순수했다. 그는 수도 규칙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일을 감당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도자의 서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예전에 짐을 나르는 동물들의 마구간으로 쓰이던 아주 작은 오두막을 하나 찾아내어, 문과 창문을 돌과 고사리 가지로 막아 버리고, 자신의 거처로 기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작은 둥근 틈—구멍 하나만 남겨 두었다. 안쪽에서는 어딘가에서 주워 온 낡고 찢어진 코트로 그 구멍을 막았다. 그는 불조차 피우지 않았다. 새들의 둥지는 그의 보금자리보다 더 나은 거처였고, 짐승들의 굴은 그가 살던 그 집보다 더 나은 집이었다. 그러나 이 영혼이 느꼈던 기쁨은 부유한 궁전에 사는 사람들조차 누리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했고, 그리스도는 그의 오두막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 집, 즉 그의 몸과 마음 속에서도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낙원에서 살았던 것이다. 가끔 그는 자신의 굴에서 나와 형제들이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 어느 수도원으로 향하곤 했다. 그는 형제들의 노동을 도왔고, 그 대가로 약간의 마른 빵과 올리브를 받았다. 만약 일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는 마른 빵과 올리브를 받지 않았다. 그가 받은 축복에 대해, 그는 자신의 노동으로 두 배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의 영적 삶에 대해 아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었는데, 그는 알려지지 않은 채, 소박하고 조용히 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중에 알려지게 된 한 가지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날 그는 한 수도원에 들러 대사순절이 언제 시작되는지 물었는데, 사실 그 사람에게 있어 대사순절은 거의 일 년 내내 이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굴’로 돌아가 안에서 문을 잠갔다. 거의 세 달이 지났지만, 그는 그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칼리바에서 나와 어느 수도원으로 가서 부활절이 곧 다가오는지 물었다. 그는 예배에 참석해 신성한 전례 중에 성체를 영한 뒤, 신부님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갔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붉은 달걀을 보았다. 그날은 부활절 후 첫 주일⁷⁸⁾이었습니다. 그는 놀라 한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봐, 설마 벌써 부활절인가?” “부활절이 뭐야, — 그 수도사가 대답했습니다. — 내일이면 이미 승천절이잖아!” 즉, 이 사람은 사순절

⁷⁸ 부활절 후 39일째 되는 날로, 성당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도다”와 다른 부활절 찬송이 마지막으로 불려지는 날이다. — 역자 주.

내내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승천절까지 40일을 더 금식한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수행에 매진했다. 사냥꾼이 그가 죽은 지 두 달 후에 그를 발견하고, 일어난 일을 경찰과 의사에게 알렸다. “그에게서 시체 냄새는커녕,” 의사가 내게 말하길, “오히려 그의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어린이의 금식

— 게론다, 5~6세 어린이들도 성체성사 전에 금식해야 합니까?

— 적어도 성체를 모실 날 전날 저녁에는 기름이 들어간 금식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영적 지도자의 소관입니다. 아이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 우유를 마셔야 할 수도 있으므로, 어머니께서 영적 지도자에게 자녀의 금식 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게론다, 어린 아이는 얼마나 오랫동안 금식해야 하나요?

— 아이가 체격이 튼튼하고 건강하다면 금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시중에 금식용 식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도 금식하면서도 하루 종일 뛰다니며 놀곤 했습니다. 파라사에서는 대사순절 기간 동안 아이들과 어른 모두 오전 9시까지 금식했습니다.⁷⁹ 부모들은 아이들을 요새에 모아두고,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장난감을 남겨두었다가, 오후 3시에 성당에서 미리 축성된 성찬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성당으로 가서 성체를 영했습니다. 성 아르세니우스 카파도키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놀고 있으면 음식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금식을 도와주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지금, 과연 아이들이 금식을 견디지 못할까요?”

그리고 금식하지 않는 어른들도 아이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스승님과 같은 집에서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 점심도 먹곤 했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점심을 먹지 않고 집으로 가서 밥을 먹곤 했는데, 그분들은 금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수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들이 케이크를

⁷⁹ 즉, 오후 3시—비잔틴 시간으로 9시—까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

가져와 저에게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고맙지만, 전 금식 중이에요.”라고 제가 말했죠. “이봐, 이 꼬마 녀석은 금식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뭐든지 다 먹네.”라고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게시물

사람은 금식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그는 위업과 고행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을 억지로 몰아세우며 “어쩌겠는가? ‘또 금요일이 왔으니 금식해야지’라고 말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금식을 실천한다면, 그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오늘은 — 그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다. 그분께는 물 한 모금조차 주지 않고 식초를 마시게 하셨다.⁸⁰ 그래서 나도 오늘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가장 훌륭한 청량음료를 마시는 사람보다 더 큰 기쁨을 마음속에서 느낄 것이다.

그리고 보라, 많은 세속적인 사람들은 성금요일에 금식을 견디지 못한다. 하지만 어떤 부처 앞 인도 위에서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고집과 집요함으로 항의 단식을 선언하며 앉아 있을 수 있다. 악마가 그들에게 그런 힘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자살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부활절이 되면 기쁨에 차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큰 소리로 노래하며, 그 순간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 했던 유대인들과 비슷합니다.⁸¹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⁸² 사람이 금식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먹지 않으면 다리가 떨리거나 넘어지는 등의 이유로 금식할 수 없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⁸⁰ 마태복음 27, 34; 마가복음 15, 36; 루카복음 23, 36 및 요한복음 19, 29 참조.

⁸¹ 요한복음 6장 5-15절 참조.

⁸² 예레미야 48, 10.

즉, 그의 체력과 건강 상태는 그가 금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체력이 있는데도 금식하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한 마음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반면, 금식하고 싶지만 실천할 수 없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수많은 고행을 대신하며, 그 사람 스스로가 힘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 힘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오늘 55세쯤 되는 불쌍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금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했고, 유일한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그녀에게는 머물 집도, 먹을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그녀의 지인들 중 이 사람이면 저 사람이면 번갈아 가며 이 여성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면, 그녀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합니다. “신부님, 제 양심에 무거운 짐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여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제가 금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먹습니다. 가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 음식을 주지만, 종종 비금식 음식을 주기도 해서, 먹지 않으면 기력을 잃고 제 발로 설 수 없게 되니 어쩔 수 없이 비금식 음식을 먹게 됩니다.” “먹으세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기력이 없으시니.”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힘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좀 더 많이 먹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분량을 정하라,”라고 니일 금식자가 말한다.⁸³

— 게론다, 옛날에 시골의 어떤 여성들은 ‘깨끗한 월요일’부터 성 페도르 티론의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하는데요?⁸⁴ 집안일, 아이들, 가축, 텃밭 등 할 일이 산더미인데, 그런 금식 기간 동안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었을까요?

— 이 여성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정으로 금식했다면, 성토요일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았어야 했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지, 첫 주 토요일까지라도 금식해 보자 — 어차피 그 토요일은 곧 올 테니까. 아니면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

⁸³ 참조: 우리 성자 닐로 시나이스의 저서. 모스크바, 2000. 130쪽.

⁸⁴ 즉, 5일 동안 음식과 물을 금했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⁸⁵ 그렇다면, 내가 고작 일주일만 금식할 수 없겠는가?” 게다가 이 여성들은 순수함을 지녔기에 그런 금식을 견딜 수 있었다. 사람에게 순수함과 겸손함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금식하며 신성한 양식을 섭취한다. 그때 그는 신성한 힘을 갖게 되며, 장기간의 금식 중에도 큰 “인내의 비축량”을 갖게 된다. 호주에서는 한 스물일곱 살 청년이 28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고해 신부가 그를 내게 보내어 이 이야기를 들려주게 했다. 이 청년은 매우 경건했고 수행자의 정신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고해성사를 보고, 교회에 다니며, 교부들의 저서를 읽었고, 무엇보다도 신약성경을 많이 읽었다. 어느 날,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야기를 읽던 중, 청년은 마음이 감동받아 이렇게 생각했다. “주님께서 신이시면서도 인간으로서 죄 없는 분이셨음에도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면,⁸⁶ 나처럼 죄가 많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그는 영성 지도자에게 금식에 대한 축복을 청했으나,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영성 지도자에게 털어놓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대사순절 첫 주 월요일부터 금식을 시작하여 십자가 경배 주간까지 물 한 모금조차 입에 대지 않고 금식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상자를 하나씩 쌓아 올리는 힘든 일을 하고 있었다. 금식 28일째가 되었을 때, 그는 일하는 도중 약간의 현기증을 느껴 잠시 앉았다. 그 후 차를 조금 마시고 작은 크래커를 하나 먹었다. 그는 만약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다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금식으로 기진맥진한 것을 알아차리고 “이봐, 이 기독교인들은 금식하다가 죽어가고 있네”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론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렇게 며칠이나 금식하다 보니 음식에 혐오감이 듭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먹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청년은 자신이 시작한 40일간의 금식을 채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마음에 걸렸고, 그 생각을 영성 지도자에게 털어놓았다. 영성 지도자는 이치에 맞춘 말로 대답했다. “네가 금식한 그 기간 만으로도 충분했으니,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라.” 그 후 영적 지도자는 그를 내

⁸⁵ 마태복음 4, 2 및 누가복음 4, 2 참조.

⁸⁶ 같은 곳.

게 보냈는데, 혹시라도 그를 괴롭히는 생각이 남아 있다면 내가 그 생각을 떨쳐내도록 도와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 청년의 동기가 순수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나는 그에게 물었다. “너, 40일 동안 금식하겠다고 서약이라도 했니?” “아니요,”라고 그가 대답했다. “고해 신부님께 금식 축복을 받을 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네 속마음을 그분께 털어놓는 것을 단순히 생각하지 못했던 건가, 아니면 네 의지로 40일 동안 금식하기 위해 이 — 겉보기에는 선한 — 속마음을 의도적으로 숨긴 건가?”라고 내가 다시 물었다. “아니요, 신부님,” — 그가 다시 대답했다. 그러자 내가 말했다. “물론 저도 당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당신이 금식했던 그 날들에 대해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기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40일 간의 금식을 끝까지 해내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다만 다음 번에는 영성 지도자에게 당신이 품고 있는 선한 생각들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선한 점들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영적 지도자가 네가 그와 같은 수행을 감당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 청년은 자신 안에서 가꾸어 온 겸손한 생각들 덕분에 깊은 겸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이 금식을 감당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한 은총으로 그를 굳건히 세우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겸손함이 없고]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이 했으니 나도 왜 똑같이 할 수 없겠는가?”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그런 금식을 하려고 한다면, 그는 고작 하루나 이틀만 금식하고는 그 후로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떠나기 때문에 그의 마음도 어두워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간신히 견뎌낸 그 금식에 들인 노력조차 아깝게 여길 것이다. 심지어 “이 금식이 나에게 뭘 주었던 말인가?”라고 말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금식을 통해 사람은 어린 양, 새끼 양으로 변모한다. 만약 그가 야수로 변한다면, 이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한다. 하나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고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고행을 하고 있어 신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야생 동물이나 짐승들조차도 금식을 통해 때로는 길들여지고 온순해진다. 보라, 동물들이 배고플 때면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는가.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굶주림으로 죽을 것임을 깨닫고, 사람에게 다가가면 먹을 것을 찾아 살아남을 수 있음을 안다. 한 번은 굶주림

에 시달려 어린 양처럼 순해진 늑대를 본 적이 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그 늑대는 산에서 내려와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형과 저는 가족에게 먹이를 주러 나갔고, 저는 손에 랜턴을 들고 있었습니다. 늑대를 본 형은 집게를 집어 들고 늑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늑대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의 힘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금식하면서도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만심을 품고 있다면, 그의 모든 금식은 헛수고가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담아둘 수 없는 구멍 난 물통과 같아진다. 구멍 난 물통에 물을 부어 보라. 물은 서서히 모두 새어 나갈 것이다.

가벼운 배의 즐거움

사람이 절제하지 않으면 온몸에 [지방]을 잔뜩 쌓아두게 된다. 하지만 절제하며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몸은 섭취한 음식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몸에 지방이 쌓이지 않는다.

다양한 음식은 위를 늘리고 식욕을 자극하지만, 그 외에도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육체적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식사 때 단 한 가지 요리만 제공되고 그 맛이 별로라면, 사람은 아마 다 먹지 못할 수도 있고, 맛이 좋아서 과식에 빠져들게 된다면 조금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눈앞에 생선, 수프, 감자, 치즈, 달걀, 샐러드, 과일, 그리고 디저트가 놓여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먹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더 달라고까지 요청하게 된다. 식욕은 이것저것에 불타오르며, 한 가지를 먹으면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것도 먹고 싶어진다. 그리고 보라, 사람은 이웃의 단순한 말 한마디도 참아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다. 이것도 소화하지 못하고, 저것도 소화하지 못하고... 그런데 불쌍한 위는 우리가 그 안에 던져 넣는 모든 것을 참아내고 순순히 받아들인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게 ‘이걸 소화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즉, 이성이 없는 위가 덕목 면에서 우리를 능가한다는 말이다! 위는 모든 것을 소화하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런데 우리가 먹은 음식 중 하나가 다른 음식과 어울리지 않으면, 위장에 들어가자마자 서로 “다투기” 시작한다. 그러면 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소화불량이 시작되는 것이다.

— 헤론다, 많이 먹는 습관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 자신을 조금 자제해야 합니다. 식욕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조금씩, 서서히 ‘식욕의 늪’이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바 마카리우스가 말한 것처럼, 위는 사악한 ‘세리’처럼 끊임없이 더 먹고 싶다고 조릅니다. 무언가를 맛보면 즐거움을 느끼지만, 그 후에는 잠이 오고 일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한 가지 종류의 음식만 먹으면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게론다, 만약 식탁에 다양한 요리가 올라가 있지만 양이 적다면, 사람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 음, 어려움은 똑같습니다. 다만 정당 파벌들이 작아서 정부를 구성할 수 없을 뿐이죠!.. 음식 종류가 다양할 때는 마치 배 속에 수많은 정당이 모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정당이 다른 정당을 자극하고, 서로 얹히고 싸우다 보면 — 위장 장애가 시작되는 것이죠...

적당히 먹는 즐거움은 가장 맛있는 음식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큼니다. 어렸을 때, 저는 숲으로 들어가 하루에 베이글 한 조각만 먹곤 했습니다. 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죠! 아무리 맛있는 요리라도 제가 느꼈던 그 정신적인 즐거움을 대신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속이 가벼운 기쁨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처음에는 맛있는 것을 먹으며 즐거움을 느끼지만, 곧 탐식과 과식이 이어지고, 많이 먹게 되며 —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 속이 무거워진다. 그렇게 그들은 속이 가벼운 기쁨을 스스로 박탈해 버리는 것이다.

제5부.

우리 삶의 시련에 대하여

“달콤한 낙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생에서 많은 쓴맛을 맛보고, 시련을 헤쳐 나간 후에 여권을 손에 쥐어야 한다”

제1장.

“불과 물을 뚫고 지나가리라...”⁸⁷

시련의 십자가

— 게론다, 저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축복해 주신 작은 십자가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이 십자가는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큰 힘이 되어 줍니다.

— 있잖아, 우리 각자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작은 십자가들이야.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며, 우리 삶을 지켜주는 작은 십자가들과 비슷하지. 설마 우리가 무슨 위대한 십자가를 지고 다닌다고 생각하니?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자신을 위해 신성한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그분은 모든 사람의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지셨고, 지금도 짊어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짊어지실 것이며, 그분의 신성한 도움과 달콤한 위로로 시련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각자에게 그 사람의 능력에 맞는 십자가를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고통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늘로 올라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고통을 견디며 우리가 [천상의] 보물창고에 어떤 풍요로움을 쌓아가고 있는지 깨닫는다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이미 이 생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적인] “연금”과 “일시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소유와 몫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구하면, 그분은 그 소유와 몫을 다른 이들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잃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인내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이자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⁸⁷ 시편 65:12.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생에서 더 많이 고통받을수록 내세에 더 큰 유익을 얻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련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보다 더 높습니다.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라 다섯 개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고통이나 순교는 순수한 상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시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구원을 위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게론다, 제 가족들의 고통이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에 언젠가 끝이 올까요?

— 인내하십시오, 자매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족에게 닥친 모든 시련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온 가족이 영적으로 정화되도록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세속적인 시각으로 당신의 가족에게 닥친 시련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불행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내세에서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 모든 시련을 견디는 동안, 당신의 부모님은 [마치] 영적 수행을 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방식, 즉 고귀하고 영적인 수행의 방식 [즉, 자신의 의지에 따른 수행]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쨌든, 네 가족과 몇몇 다른 가족들에게 닥친 시련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 네 가족을 위해 그토록 많은 기도가 드려지고 있으니!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뻗어 시련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를.

— 게론다, 사람들이 슬픔과 시련을 겪지 않고도, 다른 어떤 방식으로 정신을 차릴 수는 없는 것입니까?

—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허락하시기 전마다 항상 상냥한 방법으로 [사람을 깨우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썽꾸러기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처음에 아버지는

상냥하게 아이를 바로잡으려 하며,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아이가 고쳐지지 않으면, 아버지는 자식을 바로잡기 위해 상냥함을 엄한 태도로 바꿉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때로는 사람이 상냥한 방법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도록 시련을 주십니다. 만약 사람들이 약간의 고통이나 질병, 그와 비슷한 것들을 겪지 않았다면, 그들은 짐승처럼 변해버리고 하나님께는 전혀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삶은 허망하고 짧습니다. 그리고 짧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쓰디쓴 약처럼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는 그 쓰라린 슬픔들이 금세 지나갈 테니까요. 보세요, 의사들도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쓰디쓴 약을 처방하잖아요. 환자들은 달콤한 약이 아니라 쓰디쓴 약을 통해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쓴맛이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구원을 모두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플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시련을 겪지 않고, 아픔을 느끼고 싶지 않으며, 슬픔을 견디고 싶지 않고, 실망하거나 지적받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도 편안하게만 살려고만 하는 사람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주께서 우리를 불과 물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를 안식처로 인도하셨나이다,*”⁸⁸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보라, 우리 주인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께서도 고통을 겪으셨고, 우리 교회의 성인들이 또한 고통을 겪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통을 겪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인데, 단지 이 생에서 약간의 고통이나 슬픔을 겪음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빛을 갠고 구원에 이르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도 고통을 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⁸⁸ 시편 65편 12절.

사람에게 고통이 닥칠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반면, 사람이 아무런 슬픔도 겪지 않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영적인 저축도 쌓아두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겪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해,”라고 그런 사람은 말한다. “식욕도 아주 좋아. 배불리 먹고, 즐겁고 평온하게 살고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만약 그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했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것이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라고 그런 사람에게 말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대하십니다.” 성 암브로시오의 행적에는 어느 날 성인과 그의 일행이 한 부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곳에서 헤아릴 수 없는 부를 본 성인 암브로시오는 그 사람이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슬픔을 겪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아니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자가 대답했다. “제 재물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밭에서는 풍성한 수확이 나며, 저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고 병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러자 성 암브로시오는 눈물을 흘리며 동행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수레를 준비해서 둘러 이곳을 떠나자. 이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인과 그의 일행이 거리로 나서자마자, 부자의 집이 무너져 내렸다! 그 사람이 누리던 그 평온하고 근심 없는 삶은 사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삶이었던 것이다.⁸⁹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⁹⁰

— 게론다, 오늘날 사람들은 왜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수녀인 당신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수도 규칙을 지키고, 묵주를 짚으며 기도하고, 절을 올리는 등의 수행을 합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있어 그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바로 그들의 규칙이자 규범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사람들

⁸⁹ 참조: ‘Ο Μέγας Συναξαριστής της Ορθοδόξου Εκκλησίας, 12권, 243—244쪽.

⁹⁰ 잠언 3, 12.

은 정화됩니다. 이러한 고통은 그들에게 세속적이고 평온한 삶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줍니다. 세속적인 삶은 그들이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데도, 하늘의 계좌에 영적 저축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슬픔과 유혹을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에,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시련을 통해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나 세속적인 율법주의적 정의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신성한 자비로 인해 이렇게 하십니다. 즉, 자신의 피조물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늘나라를 상속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투쟁하고, 용기를 내며, 고통 속에서 인내의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마귀가 이렇게 말할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도대체 왜 그에게 상을 주시거나 어떻게 그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그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에는 관심이 없으시며, 오직 미래의 삶에만 관심을 두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의 미래 삶을 먼저 돌보시고, 그 다음에야 이 땅의 삶을 돌보십니다.

— 게론다, 그런데 왜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시련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⁹¹ 예를 들어, 어떤 아버지에게 여덟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다섯 명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살고, 세 명은 집을 떠나 아버지를 잊어버립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녀들이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면, 아버지는 그들의 귀를 잡아당기거나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고, 혹은 그들이 분별력이 있다면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거나 초콜릿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애정 표현도, 뒤통수를 톡 치는 것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행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과 그분께 호의를 품은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면, 그분은 “뒤통수를 톡 치는” 방식으로 벌을 주시며,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혹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머리를 톡톡 치는” 벌을 더 많이 주신다면, 그들은 천상의 상을 쌓아

⁹¹ 잠언 3, 12.

두게 됩니다. 반면 그분과 멀리 떨어져 사는 이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도록 긴 수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중대한 죄를 짓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슬픔 없이 오랫동안 사는 것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으로, 이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세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들을 보시고 가슴이 아프십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이들은 2분 동안, 지나가며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고 약간의 위로를 얻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한 지친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론다, 더 이상 참을 힘이 남아 있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그리스도여, 잠시만 쉬게 해 주시고, 그 후에 다시 고통이 오게 하소서.’”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모든 시련은 또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는 다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가산점’입니다. 내세에서의 보상에 대한 이 희망은 저에게 기쁨과 위안, 그리고 힘을 주며, 수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그 슬픔의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다양한 유혹과 시련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의 아픔을 지켜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닦친 시련, 혹은 더 정확히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인한 이 작은 고난을 인내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 게론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프지 않으십니까?”

— 질병과 악령, 야만인들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 속에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천상의 보상에 대한 기쁨도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겪는 사람이 천국에서 받게 될 보상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내세에서 무엇을 맞이하게 될지 알고 계시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통

을 “참아내실 힘”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그토록 많은 범죄를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셨으니까요!⁹² 헤로데는 1만 4천 명의 갓난아기와, 군인들이 자신의 자녀를 죽이는 것을 막으려 했던 수많은 부모들을 학살했습니다! 결국 그 부모들도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야만적인 군인들은 상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갓난아기들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그 갓난아기들이 겪는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큰 기쁨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에서 누리게 될 그 지극히 큰 영광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순교자 대열에 합류하게 될 이 작은 천사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순교자들로부터 나온 천사들!

슬픔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겪는 슬픔을 보시고, 자비로운 아버지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마 그분이 자신의 자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세심하게 헤아리시고,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슬픔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삶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영혼을 괴롭히는 시련 속에서 그분의 자비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절망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항상 무력하고, 위로받지 못한 채, 고통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자신의 영혼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자신만의 슬픔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을 그리스도 곁에 머물며 극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타인의 슬픔에서 오는 많은 괴로움을 짊어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많은 사랑도 받아들입니다. 제가 “*전능하신 여주님, 저를 인간의 중보에 맡기지 마소서*”라고 노래할 때, 가끔은 “...그러나 주의 종의 기도를 받아주소서...”라는 구절에서 멈춰 서곤 합니다. 제게 슬픔이 없다면, 어떻게 “...슬픔이 나를 사로잡아,

⁹² 마태복음 2, 16 참조.

참을 수 없나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내뱉을 수 있겠는가?⁹³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시련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을 올바르게, 영적으로 다스린다면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통의 쓰라림으로 달콤하신 예수님께 다가가면, 그의 모든 쓰라림과 고통은 꿀로 변합니다.

영적 삶의 신비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신비로운 방식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쓴 약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의 기도의 결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련을 세속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돌보신다면, 우리 각자는 온전히 그분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삶은 고통으로 변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사람이 배부르든 굶주리든, 칭찬을 받든 부당한 대우를 받든, 그는 기뻐하며 모든 일에 겸손과 인내로 임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내려 주실 것이며, 그의 영혼이 그 축복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영혼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수록,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녹아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른 유혹과 고난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주시는 항생제와 같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우리에게 큰 영적 도움을 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볍게 “뒤통수를 한 대” 맞고 나면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도] 각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시지만, 우리가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⁹³ 『시간기도서』, 모스크바, 1990. 288쪽.

가 스스로를 깨닫고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정욕을 발견하며, 최후의 심판 날에 과도한 주장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욕을 눈감아 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해도, 천국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당혹감과 불만을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이곳에서 유혹을 일으키도록 허락하시는데, 이 유혹들이 우리 안에서 [정욕이라는] 먼지를 털어내어, 고난을 통해 우리 영혼이 겸손해지고 정화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은총을 채워 주십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쓴맛을 맛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이 기꺼이 그 쓴맛을 맛볼 때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특히 자신이 그 시험을 자초한 것이 아닐 때 더욱 기뻐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를 단순한 사람으로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이상의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와서 저를 유혹하고 괴롭히도록 허락하십니다. 지금 암으로 투병 중인 저는 마귀의 속임수를 보며 웃음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 마귀가 참으로 어떤 존재인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시련을 겪게 하시려고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도록 허락하실 때, 마귀가 어떤 비누로 사람을 씻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자신의 악의 거품으로 사람을 씻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비누가 아니겠습니까! 분노에 차서 거품을 내뿜는 낙타와 마찬가지로, 악마도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람을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는 악의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마가 사람의 더러운 얼룩이 지워지고 그가 깨끗해질 때까지 사람을 문지르게 허락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마가 빨래할 때 옷을 문지르듯이 사람을 문지르게 허락하셨다면, 악마는 사람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을 테니까요.

— 게론다, 우리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닥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유혹자가 가져오는 모든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마에게 일정 시점까지 사람을 유혹할 자유를 주십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선택할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저지르는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책임이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 유다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가 배신자가 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유다 자신이 마귀가 자기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제에게 이렇게 청했습니다. “부디, 신부님, 유다를 위한 위령 미사를 집전해 주십시오.” 이는 마치 “그대, 그리스도여, 불공평하십니다. 유다가 그대를 배반한 것은 그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일부 사람들이 시련을 겪게 하심으로써, 타락한 삶을 사는 누군가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련을 겪으며 평생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음에도 고통받으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이들의 인내를 본보기로 삼아,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경건한 사람들은 두 배의 상을 받습니다. 아주 착하고 경건한 가장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집이 무너지고, 온 가족이 잔해에 깔려 끔찍한 고통을 겪은 끝에 모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죄가 있어 벌을 받는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이 짊어진 거대한 십자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소한 시련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자신의 삶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들보다 덜 고통받고 있음을 깨닫고, 따라서 현명한 강도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⁹⁴” “이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도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고통을 받아야 마땅하겠는가?” 그러나 불행히도,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왼쪽에 십자

⁹⁴ 누가복음 23, 39 및 그 이하 참조.

가에 못 박힌 그 강도와 닮아 있다.⁹⁵ 그런 사람들은 고통을 겪은 의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것 좀 봐, 평생 십자가에서 손을 떼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무슨 불행이 닥쳤는지!”

비록 매우 드물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해 선택받은 몇몇 수행자들에게 큰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입니다. 보십시오: 성녀 싱클리티키아가 권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마귀는 그녀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했고, 그 결과 성녀는 3년 반 동안 병으로 인해 침묵을 지켜야만 했습니다.⁹⁶

반면 다른 경우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에 내맡기지 말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그 사람들 대신 자신을 벌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청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주는 위대하고 고귀한 사랑은 하나님을 깊이 감동시키고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간구하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즉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간절한 간구에 따라 그에게 순교적인 죽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훨씬 더 큰 영광이 가득한 최고의 천국 왕궁을 마련해 두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부당하게 판단하며,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를 벌하시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은망덕

— 게론다, 시련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 그것은 사람이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닥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그런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저 사람은 모든 게 다 잘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일

⁹⁵ 같은 책.

⁹⁶ 성녀 싱클리티키아의 기념일은 1월 5일이다. 『러시아어 성자전』 1월 편(모스크바, 1904년) 189쪽 참조.

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괴로워합니다. 반면 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련이 저를 그분께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유익을 위해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전혀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 시련을 겪은 후에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영합니다. 또한, 종종 매우 완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련의 어느 순간에 깊은 회개의 상태로 이끌어, 그들 스스로가 180도 태도를 바꾸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느끼는 고통으로 인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 게론다, 우리에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해야 하나요?

—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슬플 때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설마 슬플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쁠 때는 감사드리고 싶지 않다는 말인가? 하지만 물론,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인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평합니다. 그 앞에서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잘못입니다. 제 고향인 파라스에서는 달콤한 간식으로 포도즙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소녀가 포도즙이 먹고 싶다는 이유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찌겠습니까? 어머니께서 이웃집에 가서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즙을 조금 먹은 소녀는 다시 울기 시작하며 바닥을 발로 쿵쿵 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사워크림도 먹고 싶어요!” — “애야, 이 시간에 내가 어디서 사워크림을 구해 오겠니?” —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 “사워크림 먹고 싶어”라고만 할 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불쌍한 어머니는 이웃집으로 가서 사워크림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사워크림을 맛본 딸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자, 이제 왜 또 우는 거야?” — 어머니가 물었다. “엄마, 이걸 섞어서 줘!” 어쩔 수 없이 엄마는 발효유와 사워크림을 가져다가 섞어 주었다. 하지만 딸은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엄마, 이걸 같이 먹을 수 없어요! 따로 나눠 주세요!” 이쯤 되니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딸의 뺨을 마음껏 때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발효유와 사워크림은 분리되었다.

제 말은, 이 소녀와 마찬가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자신의 배은망덕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에 대해 밤낮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비겁한 마귀의 뒤통치를 밟게 될 것이며, 마귀는 자신의 부하들을 모두 모아 검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배은망덕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마귀의 약점을 정확히 공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시련과 이웃들이 겪는 큰 시련

우리가 겪는 모든 유혹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제는 바로 우리 이웃에게 닥친,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시련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시련을 우리 자신에게 닥친 시련과 비교해 보고, 그 둘 사이의 큰 차이와, 우리에게 작은 시련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게 될 것이며,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가슴 아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진심 어린 기도로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다리 한쪽이 절단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제가 말할 것입니다. “적어도 제게 다리 한쪽은 남아 있으니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양쪽 다리를 모두 절단당했으니까요. 설령 제가 팔다리가 모두 잘려 절름발이가 된다 해도, “하나님,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움직일 수 없는 불구자로 태어났으니까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가장이 11년 동안 출혈로 고통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 사람에 비하면 뭘! 세속적인 사람이 11년 동안 출혈로 고통받고 있는데, 게다가 아이들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하는 반면, 나는 그 출혈로 7년도 채 고통받지 않았는데!”⁹⁷ 그런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내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고통받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살고 있다는 사실, 밤마다 장 문제로 인해 30분마다 일어나야 해서 잠을 잘 수 없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평온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⁹⁷ 1988년부터 장로께서는 지속적인 장출혈을 겪으셨습니다.

시작하면, 불평을 하더라도 스스로를 정당화하게 된다. 자매님, 헤르페스로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가요?⁹⁸

— 8개월입니다, 게론다.

— 보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병으로 두 달 동안 고통받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열 달,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열다섯 달 동안 고통받게 하신다. 네 마음을 이해해. 네가 정말 고통스러울 거야. 어떤 이들은 이 병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해. 하지만 세속적인 사람이 헤르페스로 한두 달 고생하다가 심한 통증에 절망에 빠졌다가, 영적인 사람이 같은 병으로 벌써 일 년이나 고생하면서도 인내하며 불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즉시 위로를 받게 될 거야. “이것 좀 봐,”라고 환자가 말합니다. “나는 두 달 전에 병에 걸려 이미 절망에 이르렀는데, 저 불쌍한 사람은 일 년 내내 고통받고도 아무렇지 않잖아! 게다가 나는 죄까지 짓고 있는데, 그는 영적으로 살고 있잖아.” 이처럼, 이 사람은 아직 아무도 깨우쳐 주거나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이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

— 헤론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들로 부터 슬픔과 불의를 참아낸다면, 그 인내가 그를 정욕에서 깨끗하게 해 주는 것입니까?

— 아직도 묻는 거야! 그건 단순히 정화하는 게 아니라, 증류하는 거라고! 그보다 더 높은 인내가 어디 있겠어? 이런 식으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갚을 수 있다. 보세요: 체포된 범죄자는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작은 ‘카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그는 영원한 어둠에서 구원받습니다. 지상의 고통을 통해 사람이 영원에서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하찮은 일일까요?

어떤 슬픔이든 기쁜 마음으로 견뎌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슬픔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먹이는 그 달콤한 “시럽”보다 더 달콤합니다. 보십시오, 그리

⁹⁸ 대상포진은 홍반과 부종이 동반된 피부에 물집이 군집을 이루며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심한 통증과 신체에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 *번역자 주*

스도의 복된 계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할 때 복이 있도다...”⁹⁹ 라고 하셨으며, 게다가 “거짓으로 너희를 비방할 때”라고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부당한 모욕을 당할 때, 그는 하늘의 보물창고에 영적인 저축을 쌓아 두는 것입니다. 반면, 그가 당한 모욕이 마땅한 것이라면,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을 불평 없이 참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사랑과 겸손, 인내 안에서 수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방하는 자들은 탕갈라슈카와 손잡고 활동합니다. 하지만 보통 강한 바람은 뿌리가 얇은 연약한 나무들을 부러뜨리거나 뽑아 버립니다. 반면 뿌리가 깊은 나무들에게는 강한 바람이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방하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와 깨달음, 그리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 증오의 흔적조차 마음속에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유혹에서 얻은 교훈만을 마음에 간직하고, [상처와 원한]으로 인한 모든 쓴맛은 버리며, 성 에프라임 시리노스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만약 네가 비방을 참아내고 그 후 네 양심의 순결함이 드러난다면, 교만해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너를 인간의 비방에서 구해 주신 주님을 섬기라. 그래야 네가 비참한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다.”¹⁰⁰

⁹⁹ 마태복음 5, 11.

¹⁰⁰ Ὁσίου Εφραίμ του Σύρου. 『Έργα』. 제1권. 테살로니키, 1988. 253쪽.

제2장.

질병에 대하여

질병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 게론다, “천국에서 평안하소서”라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 천국으로 가는 길에 복이 있기를.

— 게론다, 혹시 이 표현은 “네가 선한 낙원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뜻일 수도 있나요?

— 누군가 낙원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니? 하지만 어쨌든, 달콤한 낙원에 가기 위해서는 사람은 이 생에서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겪은 시련을 증명하는 ‘여권’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인지!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수술을 받으러 가는 불쌍한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아이들을 생각하며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워하죠! 암에 걸려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이 사람들은 일할 수 없는데, 집세도 내야 하고 지출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한편, 저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건강이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병에 걸려 기진맥진한 채로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든 꾸려가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인간의 비통함이 저를 몹시 짓누릅니다. 매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는지요! 끝없는 고통과 어려움!.. 하루 종일 사람들의 비통함으로 인해 제 입안은 쓰라림으로 가득 차 있고, 저녁이 되면 배고픈 채로 잠깐 쉬기 위해 누워 있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엄청난 피로를 느끼지만,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안식을 얻기도 합니다.

— 게론다, 병은 항상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 네, 병은 언제나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줍니다. 병은 미덕이 없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달래는 데 도움을 줍니다.¹⁰¹ 건강은 중요한 일이지만, 병이 사람에게 가져다주는 그 선한 것

¹⁰¹ 정교회 신학에서 하나님의 “화해”라는 개념은 서구 신학의 법적 성격을 띠지 않으며, 죄를 지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분께서 베푸시는 자비로운 징계를 의미한다.

은 건강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질병은 사람에게 영적인 선을 가져다줍니다. 질병은 참으로 위대하고도 위대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죄에서 정화시키며, 때로는 그에게 [천상의] 상을 “보장”해 줍니다. 사람의 영혼은 금과 같고, 질병은 그 금을 정화하는 불과 같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드러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¹⁰² 사람이 병으로 인해 더 많이 고통받을수록, 그는 더 순수하고 더 거룩해진다 — 단, 그가 인내하며 기쁨으로 병을 받아들인다면 말이다.

일부 질병에 있어 필요한 것은 오직 약간의 인내심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작은 교훈을 얻도록 질병을 허락하시며, 이 질병을 통해 사람의 결점을 정화해 주십니다. 육체의 질병은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사람에게 겸손을 가져다주며, 이를 통해 영혼의 병을 중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선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에 따라 우리에게 병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병을 통해 보상을 얻게 하려는 것이거나,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하늘의 보응

—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 안 좋으세요, 게론다. 가끔씩 열이 아주 심하게 올라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십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상처로 뒤덮여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 알다시피, 그런 분들은 순교자나 다름없습니다. 완전히 순교자는 아니더라도, 반은 확실히 순교자죠.

— 게론다, 어머니께서는 평생이 온통 고통 그 자체입니다.

— 그렇다면 그녀가 받게 될 보상도 그만큼 더 클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게 될지 아십니까? 천국은 그녀에게 보장되어 있다. 사람이 무거운 병을 견딜 수 있음을 보

¹⁰² 고린도전서 12, 9.

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그 병을 주시는데, 이는 지상의 삶에서 조금의 고통을 겪는 대가로 사람이 하늘의 영원한 삶에서 많은 상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는 이곳에서 고통받지만, 저기 다른 세상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고, [고통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년 동안 혈액투석을 받아오고 있습니다.¹⁰³ “신부님,” 그녀가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제 팔에 십자가를 그려 주세요. 제 정맥에는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어서, 제대로 혈액투석을 받을 수도 없어요.” “당신 손에 난 이 상처와 궤양들은,” 제가 말했습니다. “다른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다이아몬드로 변할 것입니다. 혈액투석을 받은 지 몇 년이나 되었나요?” “12년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답했다. “당신은 [영적] ‘일시금’과 ‘최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른 손의 상처를 내게 보여주며 말했다. “신부님, 이 상처는 아물지 않아요. 그 사이로 뼈가 보여요.” “그래,” —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사이로 하늘도 보이네. 참아라, 너에게 인내심이 넉넉하기를 바란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그분의 사랑을 배가시키시고 당신이 고통을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당신에게 다른 것을 빌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고통이 가라앉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 많은 보상이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에 당신에게 빌어드린 것이 더 낫습니다.” 이 말에 그 불행한 여인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몸이 시련을 겪을 때, 영혼은 거룩해집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우리 흠으로 지은 작은 집인 몸이지만, 그로 인해 이 집의 주인인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하늘의 궁전에서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비논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영적 논리에 따라 나도 내 몸에 있는 질병과 결점들을 기뻐하며 자랑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내가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뿐입니다. 저는 [제 고통]을, [그것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과 은혜에 마땅히 보답하지 못한 제 배은망덕함을 갚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결국 제 삶의 모든 것은 — 제 수도 생활도, 제

¹⁰³ 혈액 투석 — “인공 신장” 기기를 이용한 혈액 투석 및 한외여과. — 역자 주.

질병도 — 온통 [영적인] 잔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저를 자비롭게 대하시며, 모든 일에서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단지] 이 생애의 몫으로만 기록하지 않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그분의 사랑을 위해 제가 더 큰 고통을 겪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저에게 큰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분이 저를 굳건히 세워 주셔서 제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차라리 무언가 앓고 있는 편이 낫다. 나는 병을 앓으면서, 병에 걸리기 전까지 행했던 모든 고행에서 얻지 못했던 이득을 얻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타인에 대한] 의무가 없다면, 건강보다는 병을 택하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건강할 때 사람은 빛을 진 채로 남아 있지만, 병을 인내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대가를 얻게 될 것이다. 제가 공동 생활 수도원에 살 때,¹⁰⁴ 어느 날 이레오페이라는 이름의 아주 연로한 성스러운 주교 한 분이 그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은 은퇴하신 후 성 안나 은둔소에서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떠나시며 말에 올라타시던 중 바지가 말려 올라가자, 모두가 그분의 꿈쩍하게 부어오른 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에 올라타도록 도와주던 수도사들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주교는 이를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그분께 이 선물들을 제게서 빼앗지 말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통 속의 인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우리 영혼이, 우리가 위대한 육체적 위업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강철 같은’ 몸보다 훨씬 더 인내와 찬양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위업들로 인해 우리는 자만과 자랑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자신의 ‘기병 돌격’으로 천국을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¹⁰⁴ 1953–1955년 에스피그멘 수도원에서.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는지 아세요? 때로는 견딜 수 있지만, 때로는 참을 수 없을 정도예요. 견딜 수 있는 고통은 일정한 상태죠. 제가 기관지확장증¹⁰⁵ 과 수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 후 장 관련 문제들이 시작되었죠. 그 뒤 반년 동안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고생하며 심한 통증을 겪었습니다. 예전처럼 많이 절을 할 수 없었고, 스스로 몸을 돌보는 것조차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 후 제 배에 딱딱한 것이 생겼고, 의사들은 그것이 탈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피곤해지면 그곳이 아프기 시작하고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성 대순교자 판텔레이몬 축일 전날, 탈장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판텔레이몬 수도원 스킵트로 가서 밤샘 기도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가자,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결심했다. 왜냐하면 나는 반드시 그 축제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이다. 밤샘 기도 중에 잠시 앉고 싶었지만, 내가 스타시디아의 좌석을 내리고 앉으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앉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예 앉지 않고 서 있기로 했다. 12시간 동안 이어진 밤샘 기도회가 끝난 후, 나는 내 상태가 훨씬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막 내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누군가 대문 옆의 쇠방망이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 주세요, 신부님!” —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끝이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정신 차릴 틈도 없겠군.” 그리고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방문객들이 찾아왔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이 찾아왔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방문객들을 돌려보낸 후, 나는 내 탈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다음 날,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후로 그 탈장은 저를 방해하고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기쁨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 상태를 아셨고, 무엇이 제게 유익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에게 이 탈장을 5년 동안 남겨두셨습니다. 제가 그 탈장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 게론다, 예전에 다리에 문제가 있으셨던 때 기억하시나요?

—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발을 딛고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올 때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후 다리의 통증은 사라졌지만,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의

¹⁰⁵ 기관지확장증 — 장기간의 염증이나 세기관지의 폐색으로 인한 기관지와 세기관지의 확장 — 역자 주.

사들은 그것이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7년 동안의 출혈과 고통...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제 영혼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존중해 주시고 이 은사를 주셔서 기쁘며, 그분이 제게서 그것을 빼앗아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은 제가 질병을 통해 유익을 얻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내의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인내를 가져야 하리니.*”¹⁰⁶ 어쨌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조차 인내하지 않는다면, 세속적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많은 평신도들이 우리 수도사들보다 덕행 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것을 봅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파라시오토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곧바로 하지펜디에게 달려가 치유를 청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은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심과 인내심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참아냈는데, 고통을 겪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 그들이 말하곤 했습니다. —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큰 고통을 겪으셨으니,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 내 영혼을 조금은 괴롭혀 보겠다.” 그들은 병이 일을 방해하고 가족들이 고통을 겪기 시작할 때 비로소 치유를 구하기 위해 하지펜디¹⁰⁷에게 찾아갔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평신도인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인내했다면, 수도자인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⁰⁸ 보십시오. 욕이 모든 복을 누리던 시절의 자선 행위는, 그에게 닥친 시련 속에서의 인내만큼 하나님께 기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¹⁰⁹

— 게론다, 사람이 고통을 참는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아픈 기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¹⁰⁶ 히브리서 10:36.

¹⁰⁷ 파라스 주민들은 아르세니우스 카파도키아스를 이렇게 불렀다. — 역자 주.

¹⁰⁸ 누가복음 21, 19.

¹⁰⁹ 욕기를 참조하라.

— 최악의 경우,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조금은 알릴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할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는 말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완전히 숨긴다면, 그들은 그의 어떤 행동에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승려가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법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신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선한 마음을 품지 않은 누군가가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태도

— 게론다, 어떤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부르시나요?

— 눈물이 흐르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것은 회개의 눈물도 아니고 기쁨의 눈물도 아닙니다. 이 눈물은 어떤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쩌면, 게론다, 순교의 범주에 속할까요?

— 물론입니다. — 순교의 범주에 속합니다.

— 게론다, 제가 심한 고통을 겪을 때면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 왜 그 말을 하기 힘든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일을 생각해 보아라. 구타, 모욕, 채찍질, 십자가 처형!¹¹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아들*”로서 모든 것을 참아 내셨다.¹¹¹ 그리고 너도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말하라. “나의 그리스도여, 당신의 사랑을 위하여 내가 참아내겠습니다.”

— 게론다,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니까?

— 용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요?

¹¹⁰ 마태복음 27, 26—44; 마가복음 15, 15—32; 누가복음 23, 23—43 및 요한복음 19, 1—23을 참조하십시오.

¹¹¹ 이사야 53, 9 참조.

—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세속적인 노래로,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적인 찬송으로... 어느 날 우리 아버지께서 고열이 나시고 끔찍한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소금에 절인 청어를 배불리 드시고, 와인 한 잔을 마신 뒤 “일어나라, 나의 불쌍하고 억압받는 백성아”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 몇 곡의 파티잔 노래도 더 부르시니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도록 우리도 영적인 찬송가를 부를 것입니다! 한 번은 감기에 걸려 머리가 터질 듯이 끔찍한 두통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찬송가 한 곡을 부르기 시작했더니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시편 찬송과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경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영혼을 부드럽게 하고 달래줍니다. 끊임없는 슬픔과 고통은 영혼을 짓누르고, 영혼은 차가워지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도 저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새벽이 오기 전에 죽는다면, 그 후 저에게는 긴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에는 해질녘도, 새벽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 나는... 진통제 ‘알약’을 먹었다. 바로 “성인들이 주님을 위해 병으로 고통받았으니, 주님, 그들을 통해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소서...”라는 트로파르를 불렀다.¹¹² 이 알약의 효과는 오래 지속되어, 밤새도록 효과가 이어졌다! 의사들에게도 이런 알약이 있을까요?

— 게론다,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더군요.

— 네, 밤이 되면 환자의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낮에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환자들은 자신의 고통을 잊게 됩니다. 밤이 되면 환자들은 혼자 남게 되고, 마음이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병중에 겪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정신적] 조율의 손잡이를 다른 주파수로 돌려 그 고통을 잊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취하면 고통이 두 배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고통에 대해 생각하면 고통은 더욱 심해집니다. 하지만 선한 생각을 품고, 예를 들어 자신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거나, 교회 찬송가를 부르면 고통은 잊혀집니다.

¹¹² 세바스티아의 40위 순교자들을 위한 트로파리; 기념일은 3월 9일이다.

— 게론다, 통증은 대개 몸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통증에 대해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 네 체력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해 보고, 그에 맞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노인의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여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낡은 자동차를 새 차였을 때와 같은 속도로 계속 몰아간다면, 차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바퀴는 한 쪽으로, 기화기는 다른 쪽으로 날아갈 테니... 허리가 아팠을 때, 나는 서서 염주를 짚으며 기도할 수 없었다.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을 보고 일어나 보았다. 서서 염주를 짚으며 기도하고 땅에 절을 했다. 그러자 허리가 다시 아파왔다. 저는 살짝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자.”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허리가 다시 아팠습니다. 그 후로는 서 있거나 절하는 것을 자제했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 게론다, 제 통증이 신체에 다른 어떤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 통증은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을 통해 심각한 질병이 드러난다는 것을 안다면, 그 통증은 저를 괴롭힙니다.

— 보세요,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은 신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통증은 사람을 묶어두고 “마비”시켜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반면 다른 종류의 통증은 몸이 견딜 수 있습니다.

— 게론다, 고통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듭니까?

— 사람이 고통에 영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그를 잔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영적으로 대처할 때, 그는 평화를 얻고 신성한 위로로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 병은 축제가 되고, 환희가 된다. 사람은 자신이 고백자들과 순교자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성스러운 순교자들은 고통을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사랑이 고통보다 더 강하여 그 고통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정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 세속적인 사람은 정화되지만, 승려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기

사람이 이웃을 위해 아파할 때, 이는 어떤 면에서 하느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느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이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사랑으로 하느님과 한 가족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며, 이것이 그에게 신성한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신성한 위로가 없었다면], 사람은 이웃을 위한 그 아픔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 게론다, 어떻게 타인의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까?

— 너도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 즉, 너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네 자신의 고통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된다. 하지만 물론, 누군가가 아프다는 사실을 단순히 알게 되는 것과 직접 아파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때 비로소 환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예전에는 “화학요법(химиотерапия)”이라는 말을 들으면¹¹³ ‘히모요법’이라고 생각했었다. 즉, 암 환자들에게 약으로 주스나 자연식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내가 ‘화학요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이제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깨달았다.

— 게론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중 어느 쪽이 더 힘들까요?

— 더 힘들어?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지 — 방사선 치료도, 항암 치료도...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이 모든 치료가 식욕을 뺏어간다는 거야. 잘 먹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의사들은 “잘 먹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잖아. 먹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 모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식욕을 뺏어가고 나를 시체처럼 만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내가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온몸이 타는 듯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전혀 마실 수 없었다. 물조차도 나를 역겹게 만들었다. 물을 마시면 토할 것 같았다.¹¹⁴

— 게론다, 수술을 조금만 더 일찍 받으셨더라면...

¹¹³ 그리스어 “χυμός”(즙)에서 유래함. — 역자 주.

¹¹⁴ 1994년 6월, 서거 한 달 전에 낭독되었다.

— “예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는 제 병이 낫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암으로 앓고 있는 지금, 저는 고통을 겪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합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병은 영적으로 나 자신에게도 유익합니다. 나는 오직 스스로를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네게 병이 있는데도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면 [즉, 그 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말하자면, 네가 다른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나아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아무 통증도 없는 사람이라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함께 아파해 주어야 한다. 파라시오인들이 말했듯이: “내가 네 짐을 지겠다,” 즉 내가 네 고통과 고뇌, 슬픔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뜻이다.

— 게론다, 그들은 어떻게 그 일을 맡게 되었나요?

— 사랑으로요. 누군가 사랑으로 “내가 네 고통을 떠안겠다”고 말한다면, 그는 그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그 고통을 떠안게 되면,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용기, 그리고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게론다, 제가 당신의 고통을 떠안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정으로 용기를 내어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겁쟁이들은 자신이 무슨 소리를 지껄이는지조차 모릅니다. 정작 그들은 사소한 일에도 의사에게 달려가곤 하고, 금세 절망에 빠집니다. 자신들의 사소한 고통조차 견디지 못하면서, 하물며 제 고통을 떠안겠다고 하다니! 차라리 그들이 자신의 고통을 참아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슬픔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마치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남의 병을 떠안아 달라고 청하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는데, 그때쯤이면 그들은 이미 무엇을 구했는지 잊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환자 간호

어제 저녁, 밤기도를 드리러 성당으로 가던 중, 한 구석에서 휠체어를 탄 어린 아이와 함께 계신 신부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다가가 아이를 안아주고 입맞춤을 해주었습

니다. “네가 천사라는 걸 알고 있니?”라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께는 “천사를 돌보는 것은 당신에게 큰 영광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두 분 모두 천국에 가실 테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위로를 느꼈기에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사랑과 인내로 병자나 장애인 등을 돌보는 이들은, 그 희생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냅니다. 만약 그들에게 죄가 없다면, 그들은 거룩해집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제게 자신의 삶에서 겪은 기적 같은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한 그런 경지들은 성인들의 행적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녀는 평범하고 소박한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인생의 대부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해 주었을 때, 나는 그녀의 온 삶이 온통 희생 그 자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처녀였을 때부터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부모님 댁에 병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이다. 그녀가 결혼했을 때는 시부모님도 함께 사셨는데, 그분들 역시 병이 있으셨다. 그 후 남편도 병에 걸렸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그녀는 그를 간호했다. 즉, 이 여성은 평생 병자들을 돌보며 보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영적인 책을 읽고, 성당에 가서 밤샘 기도회에 참석하고 싶어 했지만, 그럴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하느님께서는 그간 모아두신 모든 은총을 그녀에게 내려주셨습니다.

— 게론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 네, 정말 그런 일이 있죠.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도 환자들의 불안, 불평, 투덜거림, 혹은 기이한 행동을 적어도 조금은 이해해 줘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특히, 본래 아픈 적이 없는 사람은 환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은 딱딱해져 있는 법이죠.

병자나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이들은 매우 세심해야 하며, 돌보는 사람이 불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년 동안 그 사람을 돌볼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단 한 번이라도 그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든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만약 사람의 영혼이 불평을 품은 채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불평의 원인이 된 사람들은 중대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들의 양심을 ‘예민하게’ 만들어 [그들이 그 사람을 불평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그가 죽었다는 기억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 게론다, 환자를 돌볼 때 피곤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힘을 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서히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죠.

— 보세요, 가족 중 한 명이 아프면 온 가족이 그 사람을 위해 아파합니다. 만약 아픈 사람이 아버지이고 일을 할 수 없다면, 온 가족이 고통을 겪고 궁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모두가 불안해하며, 아버지가 살아남을지 말지를 걱정합니다. 본인은 고통받고,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습니다. 아버지가 쇠약해지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그야말로 막중한 부담이 짊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병원에 다니며 환자를 간호해야 하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환자 본인만이 고통받고, 기진맥진해져 죽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그를 돌보는 가족들도 의기소침해지고, 괴로워하며, 기진맥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유대가 깊을수록, 서로를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병이 끝날 무렵 환자 자신과 그를 돌보는 사람들이 큰 고통과 아픔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어 편히 쉬게 해 주시기를”이라고 말할 지경에 이릅니다. 하지만 환자 사망 후 그들 자신도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됩니다. 보세요, 아주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님이 별다른 병세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부모님도 자녀들도 부모님을 간병하며 고통을 겪지 않았을 때, 자녀들이 느끼는 상실의 아픔, 부모님과의 이별의 아픔은 매우 큼니다.

— 게론다, 사람의 정신 상태가 신체 건강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 사람이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면 육체적 고통이 완화됩니다. 반대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면, 그 불안한 상태가 [육체적]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의사들이 치료를 포기한 암 환자를 생각해 봅시다. 신을 믿고 기쁜 영적 분위기 속에 있다면, 그는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몇 주 만에 생명이 다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건강해 보이고 검사 결과도 양호할 수 있지만, 내면에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실제로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질병은 정신적 고통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적 고통이 위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머리를 “타격”하기도 합니다.

질병에 대한 최고의 약은 신성한 은총이 영혼 속에 아낌없이 부어주는 영적 기쁨입니다. 영적 기쁨은 모든 질병에 대해 가장 위대한 치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신성한 연고인 반면, 불안은 그 상처를 자극합니다.

환자의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 헤론다, 중병에 걸려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기로 결심한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까?

— 만약 그에게 [타인에 대한] 의무가 없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두면 된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의무가 있다면, 그가 의사의 도움을 구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지는 이미 타인에게 달려 있다. 나도 결국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의사를 찾았으니까... 만약 내가 의사가 말한 대로 “단순한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종양이 장을 완전히 막아버렸을 것이다. 나는 액체만 조금 마실 수 있었을 테고, 그러면 모든 게 끝났을 텐데... 보시다시피, “단순한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이런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고 말았다... 이때는 CT 촬영을 하고, 저때는 심장내과를 찾아가고; 혈중 단백질 수치는 때로는 떨어지고, 때로는 올라가고. 절개하고, 봉합하고, 패치를 붙이고...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었나요? 결국 저는 이곳에 영원히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환자들은 인간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인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지만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고초를 겪어야만 합니다. 수많은 검사와 수술, 장기 이식,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견뎌내야 하죠... 수액 주사를 놓기 위해 팔에 구멍을 뚫고, 불쌍한 이들은 정맥이 터지기도 하며, 코를 통해 튜브로 영양을 공급받고,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걸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처에 고름이 차올랐을 때, 그 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상처를 절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죠. 아니요, 여기서는 사람을 그야말로 회오리바람 속

에 휘말리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괜찮아, 이 환자는 훌륭한 의사들의 손에 맡겨졌으니”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달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다음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사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인내를 주시고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아픔을 담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 특히 겸손함이 없다면 —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라. 집이 무너질 때 주인은 그 안에 머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몸의 주인인 영혼도 몸이 무너진다면 자신의 집인 몸 안에 머물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은 철과 강철, 비타민 A, B, C 등을 이용해 주인을 그 집 안에 붙잡아 두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즉, 과학을 통해 환자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환자가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그저 고통 속에서 계속될 뿐이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고통이 계속될 뿐입니다. 과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기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곳 수도원에서도, 세속에서 의사였던 수녀들이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기도보다는 의학적인 지식을 통해 환자에게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기도는 이 수녀들을 최고의 의학 학위 소지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얻음으로써, 그들은 인간적인 과학에 대한 의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모든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고통이 깃들어 있다면, 신성한 힘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마음속에 깊은 겸손이 깃들어 있어,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고 그 힘이 자신의 것이라 여기며 하느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의사들도 치료할 수 없는 병조차도 치유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개입을 위해서는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깊고 그리스도께 지극히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 게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의료적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아니, 내가 그런 뜻이 아니야, 내 형제여! 예를 들어, 환자에게 산소를 주지 말고 질식하게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야. 나는 환자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기도하여 그분이 환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이 고통받지 않

도록 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병이 심하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자비만으로 이 병을 씻어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환자들의 손을 살짝 어루만져 주시면, 그들의 모든 병이 사라지고 그들은 회복되니까요! 그러면 약도, 독약도 필요 없게 됩니다.

만약 그분이 사람의 얼굴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신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게다가 그분을 안아 주신다면, 사람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환자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는 낫지 못합니다.

아픈 아이들

— 게론다, 오늘 부모님이 데려온 그 아픈 아이는 정말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 괜찮아요, 서서히 병은 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평생 그 예민함이 남을 것이고, 자신의 병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 예민함이 그 아이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거예요.

— 게론다, 백혈병을 앓는 아이들도 정말 많이 고통받습니다.

— 그런 아이들에게는 성체 성사가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성체 성사를 통해 병에서 치유되었습니다. 출혈로 고통받는 이들의 출혈을 멈춰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편 145편을 읽으며,¹¹⁵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한 탈라세미아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병원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기를 기도합시다.¹¹⁶ 이 아이들은 헤롯이 학살한 그 아기들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¹¹⁷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 아이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세에서는 순교자이자 천사 같은 베들레헴의 아기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을 만나게 될까요! 생후 두 달 된

¹¹⁵ 성 아르세니우스 카파도키아스는 이와 같은 경우에 시편 145편을 읽곤 했다.

¹¹⁶ 탈라세미아 — 글로빈 단백질 합성 장애를 동반하는 유전성 용혈성 빈혈로,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질환은 진행성 빈혈, 간과 비장의 비대, 황달 등을 유발한다. — 역자 주.

¹¹⁷ 마태복음 2장 16절 참조.

아기들에게 수술을 하고, 주사를 놓으며, 링거를 꽂습니다! 그토록 작은 손에서 정맥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주사를 놓습니다, 놓습니다... 한 아기에게는 뇌종양이 있어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작은 머리가 굽은 전기선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조차도 그런 것을 견딜 수 없는데, 하물며 아기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 게론다, 이 아기들은 결국 회복되나요, 아니면 죽나요?

— 음, 물론 많은 아이들이 죽지만, 부모들은 어떻게 의료적 도움 없이 아이들을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 게론다, 소아과 의사들이 조산아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데는 의미가 있을까요?

— 의사들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 아기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님,” 의사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만약 이 아이가 살아남아 남은 생애 내내 고통받게 된다면, 부디 주님께서 이 아이를 주님 곁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아기들이 성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기들은 천국에서 쫓불을 들고 의사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의사들은 진단을 전달할 때 아이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8살 아이에게 의사가 “너는 눈이 멀게 될 거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저를 찾아와 아이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검사받으러 해외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아이가 실명하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건강한 아이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이미 아픈 부위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아픈 아이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환자가 건강해지려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면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간구는 값이 헐값입니다. 내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오 하나님, 제발 이 사람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그저 좋은 말만 늘어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바람에 날려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내게 사랑

이 있고, 희생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 물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때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병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 그들에게 스스로도 기도하거나, 적어도 자신의 결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라고 말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저를 고쳐 주세요. 당신이 저를 도울 수 있다고 들었어요”라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단 것을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이 희생을 치르세요.”라고 말하면, 그들은 “왜요? 하나님께서 이 희생 없이도 저를 도와주실 수 없으신 건가요?”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조차 무언가를 희생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습니까! 하지만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그리스도가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단 것을 먹지 않거나,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잠을 조금이라도 주기를 바라며 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군가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그 환자를 위해 희생하라며, 자신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조언한다.

어느 날 독일에서 한 남자가 제 칼리바를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마비된 딸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 소녀를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불쌍한 아버지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녀의 건강을 위해 당신도 뭔가 희생해 보세요.”라고 제가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절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겠지.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하루에 담배를 몇 개 비나 피우시나요?” “네 개비 반 정도요,” 그가 대답했다. “한 갑만 피우세요,”라고 내가 그에게 말했다. “나머지 세 갑 반에 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으로 베풀어 보세요.” “신부님,” 그가 내게 말했다. “제 아이가 낫기만 하면, 담배를 완전히 끊겠습니다.” “아니요,”라고 내가 말했다. “아이가 나았을 때는 이미 소용이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 담배를 끊어야 해요. 담배를 끊으세요. 설마 자기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제가 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아이 때문에 6층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라고 그가 대답했다. “6층에서 뛰어내리라

고 하는 게 아니라,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거야. 만약 네가 미친 짓을 해서 6층에서 뛰어내린다면,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네 영혼까지 잃게 될 거야. 난 네게 좀 더 쉬운 일을 하라고 조언하는 거야: 담배를 끊는 거지. 당장 지금 당장 끊어!” 하지만 그는 도저히 담배를 끊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내 곁을 떠났어! 도대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네 말을 듣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게 될 거야.

또 다른 날에는 걸어서 오느라 숨이 턱턱 막힌 남자가 찾아왔다. 나는 그가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상한 사람, 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나요? 병에 걸릴 텐데요.” 그는 숨을 조금 고른 뒤 말했다. “제 아내가 아주 아파서 죽을지도 몰라요. 제발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의사들도 어쩔 도리가 없어 손을 놓았어요.” “그럼 아내를 사랑하나요?”라고 내가 물었다. “사랑해요.” “그럼 왜 직접 아내를 돕고 싶어하지 않나요? 아내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의사들도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했잖아요. 당신은 지금 이곳에 와서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즉 하나님께서 아내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 스스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게론다?” — 그가 놀라며 물었다. “만약,” 내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담배를 끊으면, 당신의 아내는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내의 회복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신다면, 적어도 이 사람이 담배를 끊음으로써 흡연이 가져오는 해악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기쁜 마음으로 나를 찾아와 감사를 표했다. “게론다,” 그가 내게 말했다. “제가 담배를 끊었더니 아내가 회복되었어요.” 얼마 후 그는 다시 나를 찾아왔는데, 매우 낙담한 모습이었고, 를 통해 몰래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더니 아내가 다시 중병에 걸렸다고 털어놓았다. “글쎄요,”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치료법은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요. 담배를 끊으세요.”

병자들을 위한 기도

— 게론다, 아픈 아이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회복될 수 있을지 묻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장로님은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이를 사랑하시며, 아이에게 유익한 일은 무엇이든 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아이가 자라서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임을 보신다면,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영적으로 선한 상태에 있지 않음을 보신다면, 그분을 지금 당장 그 아이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아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구하라, —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 그리하면 내가 네게 주리라.”¹¹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를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만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왜 나에게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가 회복될 때도 기뻐하고, 그가 죽을 때도 기뻐합니다.

— 게론다,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정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병에서 치유해 달라고 구하는 것은 우리의 천상 유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가져오는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치유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더 유익한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 게론다, 환자 본인이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 환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 만약 환자가 오직 자신만 낫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다른 환자들도 치유를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매님, 세속 생활에 계실 때 병원에서 일하셨잖아요. 환자가 ‘예수 기도’를 드릴 수 없을 때, 자매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 제가 직접 기도해 드렸어요, 게론다.

— 네가 물론 잘 했지만, 환자 본인도 기도했어야 했어.

¹¹⁸ 마태복음 7장 7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누가복음 11장 10절 및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참조하십시오.

— 그분도 기도하셨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 나의 여왕이시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게론다, 고통을 참는 것, 그것도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 참 잘했어요! 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누군가 특정 날짜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다면, 그 사람이 부탁하는 즉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사람을 수술실로 데려갈 그 날과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 중에 사제가 “*병든 자들을 위하여*”라고 말할 때, 아픔을 담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를 노래하십시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를 더 음악적으로 부르기 위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튜닝 포크를 따라 “우-우-우” 하고 웅얼거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그 “우-우-우...” 소리와 온갖 헛소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반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불쌍한 환자들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바라고 있을 텐데 말이죠! 환자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고통으로 신음하지 않고, 병원 침대 위를 굴러다니며 신음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환자들을 위한 기도 속에서라도 한숨이라도 내쉬십시오. 만약 건강한 사람들이 환자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건강했을 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¹¹⁹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병은 자연스러운 경과를 밟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병의 자연스러운 경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¹¹⁹ 마태복음 25장 12절 참조.

제3장.

신체적 장애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신체적 장애에 대한 올바른 태도

— 헤론다, 신체적 장애가 사람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까?

— 아, 그건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 하지만, 헤론다, 장애인들에게는 때때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잘못된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장애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을 올바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열등감에서 해방됩니다. 영적 도움을 받지 못해 그 신체적 장애를 기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가 열등감으로 고통받을 때 이를 감경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나도 열등감이 남아 있다면, 이는 그 아이가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한 9살 소녀의 눈에 종양이 생겨 의사들이 그 눈을 적출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그 불쌍한 소녀를 놀렸고, 그녀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제 칼리바를 찾아와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게론다,”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저는 딸이 저에게 달라고 하는 건 뭐든지 다 사주면, 딸이 기뻐하며 자신의 장애로 인한 슬픔을 잊을 테니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은 해봤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아직 다섯 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부러워하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 제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 당신이 말하는 그 위로는 거짓된 위로입니다. 그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네가 딸이 달라고 하는 어떤 드레스든 사준다면, 몇 년이 더 지나면 딸은 ‘메르세데스’를 사 달라고 할 거야.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할 건데? 그리고 나중에 딸은 어떤 목장 주인들은 자기 전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너에게 비행기를 사 달라고 요구할 거야. 그때 넌 어떻게 할 건데? 차라리 아이가 눈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노력해라. 아이가 자신을 순교자라고 생각하게 하라. 많은 성스러운 순교자들은 눈을 뽑히고, 귀와 코가 잘렸지만, 세상은 그들을 비웃었다. 그러나 성도들은 질병과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고난을 견뎌냈다. 만약 그 소녀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고백자들의 반열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아프지 않게 눈을 제거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아이를 고백자들 가운데 두실 것이라고요! 이것이 당신 생각에 하찮은 일입니까? 어차피 그 소녀에게는 자신의 장애로 대가를 치러야 할 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장애를 통해 그녀는 순수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행한 아버지는 저에게 감사를 표하고 기분 좋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딸이 자신의 장애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딸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그 소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자라 대학 문과대학에 입학해 학업을 마치고, 지금은 교사로 일하며 다른 여자들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있다. 다른 여자들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다.

사람들이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주신 축복과 유리한 기회들조차도 고통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에 기뻐합니다. 절뚝거린다고요? 그는 그것조차 기뻐합니다! 머리가 별로 좋지 않다고요? 그는 그것조차 기뻐합니다! 매처럼 마른가? 그것도 기뻐한다.

물론, 저는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특히 여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에게 있어 장애나 신체적 결함은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원하는 여성에게 신체적 결함은 건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불쌍한 이들은 스스로를 돌볼 수조차 없습니다. 걸을 때면 비틀거리며 넘어지기도 하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적어도 약간의 빛이라도 주시어, 그들이 자신의 필요를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 역시, 게론다, 시력이 너무 나빠서 복음서에서 단 한 장이라도 읽을 수 없다는 사실에 속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매일 복음서 한 장씩 읽으면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왜 그런 일로 속상해하는 거야? 네 생각에, 복음서에서 한 장을 다 읽지 않고 몇 구절만 읽거나, 그 안에서 단 한 단어만 읽거나, 아니면 그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서를 입맞추기만 해도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게다가, 넌 어제야 그리스도께로 온 게 아니잖아. 왜 지금까지 읽고 들은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가?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상태에 있기를 원하신다. 몇 년 전에는 다른 상태에 있기를 원하셨다.” 경건한 한 변호사가 늙어서 시력을 잃었다. 어느 날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성스러운 장로님, 제가 적어도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에 관해서는... 당신은 수년 동안이나 읽어 왔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드려라. 아마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네게 원하시는 것일 테니.” 그 대화가 끝난 후, 그 불쌍한 사람은 예전에 볼 수 있었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다.

신체 손상에 대한 천상의 보복

만약 우리가 장애를 안고 있으면서도 인내하며 불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장애인들은 자신만의 [영적] 저축을 쌓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천상의 저금통에는 청각 장애인에게는 듣지 못하는 귀 하나당, 시각 장애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눈 하나당, 절름발이에게는 절름거리는 다리 하나당 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이는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 만약 이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에 맞서 아주 작은 위업이라도 이룬다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까지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전쟁 장애인들은 특별 연금을 받으며, 게다가 훈장까지 수여받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미모와 용맹, 건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결점을 고치려 애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네게 주어진 축복, 즉 용맹과 그와 같은 것들을 마음껏 누렸구나! 내가 너에게 또 무엇을 더 해줘야 하겠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 즉 태어날 때부터 그랬든,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든, 아니면 나중에 얻게 되었든 간에, 그는 기뻐해

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세상에서 그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 장애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이 경우 그는 “공제”나 “감액” 없이 순수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예를 들어, 다리를 쪽 뺀지 못하고, 앉을 수 없고, 절을 할 수 없는 등 그런 상태라면, 이는 결코 작은 [시련]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 생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리 오라, 내 자녀여, 이제 영원히 이 보좌에 앉아라.” 그래서 저는 제가 정신지체자나 맹인, 또는 귀머거리로 태어났더라면 천 배는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저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만약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산다면, 그들은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자신의 손과 발을 바친 고백자들과 순교자들과 함께 두실 것이며, 지금 천국에서 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 게론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귀머거리로 고통받으면서도 끊임없이 투덜대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어린 아이들도 징징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보십시오, 훌륭한 부모들은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면서도, 특히 연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들에게 더 큰 보살핌을 베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한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하십니다. 다만 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

정신지체 자녀를 둔 불쌍한 어머니들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은 끊임 없이 시끄러운 소동을 피우고, 온통 더럽히기 일쑤입니다... 그야말로 고행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정신지체 자녀를 둔 한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다 자라서 건강한 청년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아이가 상상도 못 할 짓을 저지르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는 오물로 벽과 가구, 침대 시트를 뒤덮어버립니다... 어머니는 집안을 정

리하고, 닦고, 씻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아두지만, 그는 모든 것을 뒤집어엮고 오물로 더럽힙니다. 불쌍한 여인은 그에게서 세제를 숨기지만, 그는 그것을 찾아내어 마셔버립니다! 옷장 통째로 발코니에서 아래로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그는 지금까지 아직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하루나 이틀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 게론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겸손과 친절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 어떻게 그럴 수 없겠습니까! 적어도 부모님이 자주 이곳 수도원으로 데려오는 그 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아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현명한 사람이 그 아이에게 있는 그런 자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절을 하는지 보세요! 제가 탈장으로 고생하며 절을 할 수 없었을 때,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신부님이 아프셔서 절을 못 하신다”고 말했더니, “제가 대신 해 드릴게요!”라고 말하며 그 아이가 제 대신 절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계속 제 대신 절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너그러움이 있었는지! 어느 날 이웃집 아이 중 하나가 그 아이를 때렸는데, 그는 맞고도 그에게 손을 내밀며 “건강해라!”라고 말했답니다. 보셨죠? ‘현명한’ 사람들 중 누가, 설령 복음서와 수많은 영적 서적을 읽는다 해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며칠 전, 그 소년의 온 가족이 그가 나를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내 옆에 앉았고, 그의 어린 여동생은 조금 더 멀리 앉았습니다. 여동생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앉아 있는 것을 본 그는 그녀에게 “가서 신부님 곁에 앉아라”라고 말하며, 그녀를 자신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감동시켰고, 저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커다란 상아 십자가를 축복의 선물로 주었습니다. 십자가를 손에 든 아이는 “할머니, 할머니!”라고 말하며, 이 십자가를 할머니 무덤 위에 놓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상이나 가세요! 이 꼬마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온통 남들을 위해만 원하네요! 그 아이는 스스로도 “시험 없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천국으로 데려갈 거예요.

정말 그 아이의 입장이 되고 싶구나! 비록 내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다 해도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모든 축복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축복을 감사함 없이 낭비해 버렸다. 이 어린아이와 비교하면, 신학자들조차도 한 발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천국에서 성스러운 신학자들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 이런 아이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이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들은 많은 것을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정신 질환

— 게론다,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 그 위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 사람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사실 자애심은 종종 이기심과 얽혀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사소한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큰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마음이 여린 사람은 우연히 새끼 고양이의 발을 밟기만 해도 괴로워하며 속상해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글썄요, 만약 이틀이나 사흘 밤을 잠을 못 자면, 그 후에는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겠지요.

— 게론다, 심리학자들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실제로 존재할 때만 말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에 휩싸여, 일어나는 일이 자연스럽고, 말하자면 타당할 때조차도 정신을 잃을 지경에 이르기도 하니까요. “혹시 나에게 유전적인 정신 질환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아픈 건 아닐까?” —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시달립니다. 저는 학창 시절 하루에 11시간씩 책을 읽던 한 청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학금을 받으며 아픈 아버지를 도와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학업이 끝날 무렵, 그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 탓에 기진맥진해졌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두통에 시달렸고, 엄청난 고생 끝에 졸업 논문을 통과했습니다. 그 후 그는 마치 유전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이라니, 무슨 말

이죠? 하루에 11시간씩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기력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공부를 하면서 부모님을 돕고, 게다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요!..

— 게론다, 한 아이가 아버지가 자살한 후 우울증과 낙담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유전적인 것일까요?

— 아마도 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유전적 요인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아이의 아버지가 어떤 상태였는지, 무엇이 자살의 원인이 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내성적인 성격이라면 아이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역시 내성적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유전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항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하지만 시련의 무게에 더해 사람들의 조롱이라는 무게까지 얹히다 보니, 영혼은 이 추가적인 무게에 짓눌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조롱을 통해 미친 사람들을 더욱 미치게 만듭니다. 사실 처음에는 광기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정신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미쳐버리면 방에 가두고 쇠빛장으로 잠갔습니다. 페리스테라라는 이름의 한 미친 여성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집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창문으로 돌을 던지고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불쌍한 그녀는 광란에 빠져 빛장을 마구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손에 잡히는 대로 집 안의 모든 것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다른 면을 들여다보면, 페리스테라가 많은 ‘똑똑한’ 사람들과 ‘이성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일이 생각납니다. 어떤 가정의 큰딸은 정신이 조금 지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씨가 무척 착했습니다. 나이는 마흔이었지만, 마치 다섯 살짜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그녀를 얼마나 유혹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부모님은 그녀에게 밥을 준비하게 하고, 자신들은 밭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이 소녀의 오빠는 밭에서 돌아와 옥수수를 가져오고, 준비된 점심을 밭으로 가져가 부모님과 일꾼들이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불쌍한 소녀는 텃밭에서 호박, 가지, 강낭콩을 따서 모두 삶으려 준비했는데, 그녀의 여동생—소녀라기보다 그야말로 유혹 그 자체인—이 당나귀의 귀를 잡고 따놓은 채소 쪽으로 데려가자, 당나귀가 모든 것을 먹어치워 버렸다. 불쌍한 소녀는 아무에게

도 말하지 않고 다시 채소밭으로 가서 채소를 따러 갔다. 그녀가 다시 채소를 따고 있을 때, 밭에서 오던 오빠가 도착했는데, 그녀는 막 음식을 불 위에 올리고 있는 참이었다. 오빠는 노새에서 짐을 내리고, 음식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고는 그녀를 때리기 시작했다! 매일 그녀에게 닥치는 고통은 얼마나 컸던가! 불쌍한 어머니는 딸이 먼저 죽고 자신이 그다음에 죽게 해 달라고 하느님께 빌었다. 딸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딸이 먼저 죽고 어머니가 그다음에 죽었다.

하지만 어쨌든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요구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 없이 다른 삶으로 넘어간다.

자녀의 장애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태도

임신 중에 아이가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낙태를 하고 자신의 아이를 죽이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이가 불구가 될 거라고요? 왜 하느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느님께 얼마나 뻔뻔한지, 얼마나 고집스럽고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 해도 오히려 더 나빠질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아버지와 함께 제 칼리바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과도한 생각으로 인해 정신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 청년은 전기 충격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그는 집에서 상당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경건함이 남달랐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그는 머리를 땅에 부딪쳤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땅을 불쌍히 여기실지도 모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 땅을 때린 저를 불쌍히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즉, 그는 자신의 타격으로 아파하게 된 땅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자신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일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청년은 스스로를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다. 상태가 나빠지면 그는 성산으로 찾아왔다. 나는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었고, 한두 달 동안은 그럭저럭 잘 지냈지만, 그 후 모든 것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지인들이 자기 아들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그것이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고

통받고 있었다. “내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구기고 있어,”라고 그는 내게 말했다. 이를 들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봐, 차라리 받아들이는 게 낫지! 난 미친놈이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거야! 어쨌든, 나를 예의라는 좁은 틀에 가두려는 거야? 네 아이는 미친 아이라는 걸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해. 미친 아이를 가진 건 너뿐인 줄 아나?” — “와, 이거 참! — 나는 생각했다. — 도대체 이 둘 중 누가 미친 걸까?”

보세요, 이기심이 종종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심지어 자기 아이의 죽음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속에서 살 때, 지적 장애가 있는 한 아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손님 집에 갈 때, 아이 때문에 창피할까 봐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 아이는 그를 비웃던 사람들보다 더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4장.

영적 법칙에 대하여

영적 법칙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 헤론다, 어떤 법칙들을 영적 법칙이라고 합니까?

— 내가 설명해 주마. 자연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인 삶에도 영적인 법칙이 존재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무거운 물건을 위로 던진다고 가정해 보자. 더 세게, 더 높이 던질수록 그 물건은 더 큰 힘으로 아래로 떨어지며 부서질 것이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그리고 영적인 삶에서, 사람이 자신의 교만에서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의 영적인 추락은 더 심해질 것이며, 그 교만의 높이에 따라 그는 [영적으로] 산산조각 날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어느

한계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추락하여 완전한 실패를 겪기 때문이다. “*높이 올라간 자는 낮아 질 것이다.*”¹²⁰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이다.

그러나 자연법과 영적 법칙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연법은 “무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람은 이를 바꿀 수 없다. 반면 영적 법칙은 “자비롭다”고 할 수 있으며, 사람은 이를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영적 법칙의 경우] 사람은 자신의 창조주이자 지어주신 분, 즉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교만 때문에 얼마나 “높이” 치솟았는지 재빨리 깨닫고,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 주님, 저에게는 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자랑스러워하는 겁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될 것이며, 즉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그 사람을 받아 올려 부드럽게 아래로 내려놓아, 그의 추락이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추락으로 인해 상심하지 않는데, 그 추락에 앞서 진심 어린 회개와 내면의 참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¹²¹ 즉, 내가 칼로 누군가를 치면, 영적 법칙에 따라 나 자신도 칼로 맞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양심이 마치 “칼로 치는” 것처럼 나를 책망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영적 법칙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게 되고, 나는 마치 치유의 향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심연 속에서 — 그분의 심판은 심연과도 같으니 — 우리는 사람들이 변할 때 하나님도 “변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썽을 부리던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 아이를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네가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네 뒤통수를 때리신다.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느냐? 그분은 네게 축복을 내려주신다.

¹²⁰ 누가복음 18, 14. 마태복음 23, 12도 참조.

¹²¹ 마태복음 26장 52절 참조.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영적 법칙들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잊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생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아 그 대가를 치르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를 고집하므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직한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늘의 저금통인 낙원에서 그들에게 갚아야 할 대가와 그 대가에 따라 쌓이는 영적 이자를 저축해 두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분께서 가장 정직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입니다.

『영적 초원』¹²²에는 목동이었던 아바 피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를 찾아와 아바에게 자신의 방에서 하룻밤 묵게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별도의 공간이 없었던 아바는 방문객을 자신이 잠을 자던 곳에 재우고, 자신은 동굴 중 한 곳으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어 그가 거처로 돌아오자, 방문객이 물었다. “아바, 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추위 타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아바 피멘이 대답했다. “밤을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동굴 하나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자고 있는 사자를 보았습니다. 저도 누워서 등을 사자의 갈기에 기대었죠. 사자의 숨결 덕분에 동굴 안은 난로처럼 뜨거워서 추위를 타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당신을 잡아먹을까 봐 무섭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바가 대답했다. “두렵지는 않았지만, 야생 짐승들이 나를 잡아먹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세상에 있을 때 저는 목자였습니다,” 아바가 대답했다. “어느 날 제가 양 떼를 치고 있었는데, 제 개들이 지나가던 한 사람을 찢어 죽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었지만, 무관심하게 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야생 짐승들이 나를 잡아먹게 해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 아바는 짐승들에게 잡아먹혔습니다. 그러나 내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선택받은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¹²² 참조: 복자 요한 모스크. 『영적 목초지』. 세르기예프 포사드, 1915. 197쪽.

— 게론다, 어떤 성부들의 저서에 대한 해설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신이 저지른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읽었습니다.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회개하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부들의 저작에 대한 주석을 읽을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그의 해석은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석가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차라리 교부들의 원문만 읽는 것이 낫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예언자 이사야가 나무 톱으로 잘려 죽었다고 말했습니다.¹²³ 이는 그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잘려 죽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언자 자신이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잘려 죽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고, 예언자가 사람들에게 보인 이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 간청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톱으로 예언자의 몸을 자른 횃수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만큼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며, 무언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아바 피멘은 예언자 이사야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똑같지는 않았지만, 예언자 이사야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위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게론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 네, 물론이죠. 제가 필로페이 수도원에 살던 시절에 있었던 일 하나가 기억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터키인을 화로에서 태워 죽였습니다. 그 후 그는 회개하고 성산에 와서 수도사가 되어 열성적으로 수도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낮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불에 타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식량 담당 수도사였습니다. 저는 양동이와 다른 용기들에 물을 채우고, 우리 모두는 불을 끄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나니, 그 수도사가 불에 타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제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 수도사는 당시 85세였습니다. 그분을 돌보던 또 다른 스님

¹²³ 『러시아어로 된 성인 전기』 중 ‘5월’ 편에 수록된 성 이사야 예언자의 전기를 참조하라. 모스크바, 1907. 287쪽.

이 있었는데, 그분은 75세였다. 그날 환자를 돌보던 스님은 류머티즘으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그의 다리에 등유를 바르고, 담요로 감싼 뒤 불타는 난로 옆에 노인을 눕혔다. 밤나무 장작에서 불타는 숯덩어리가 튀어 나왔다. 그 숯덩어리가 포대기로 감싸인 수도사의 발에 떨어지자 발이 불타기 시작했고, 그는 온몸이 불타 죽었으며, 수도원에는 화재가 발생했다. 저는 그 일로 인해 매우 상심했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고해신부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스스로 하느님께 이 일을 청하셨습니다. 일어난 일은 하느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영적 법칙과 하나님의 사랑

— 헤론다, 영적 법칙은 항상 즉시 작용합니까?

— 온갖 일이 다 벌어지죠. 종종 그저 놀라울 따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자만심을 품으면 즉시 완전한 실패를 겪게 되는데, 즉 영적 법칙이 번개처럼 빠르게 작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수녀가 창문을 닦다가 다른 수녀보다 더 잘 닦고 있다는 자만심이 떠오릅니다. 바로 그때 무언가에 정신이 팔리거나 [— 실수한 동작] — 창문이 깨집니다. 반면 다른 경우에는 영적 법칙이 즉시 작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 게론다, 영적인 법칙이 즉시 작용할 때는 그게 무슨 뜻인가요?

— 이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이런 경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감싸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실수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 [나중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영적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험한 일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아이이며, 그분의 집에서 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교만하게 행동하면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교만이 너무나 커서 더 이상 인간의 차원을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 교만은 최고조에 달하여, 악마적인 교만, [사탄적인] 자만심에 이르렀다. 그런 사람도 역시 떨어지지만, 이미 정상 반대편에서 떨어진다. 지옥으로 곧장 떨어지는 것이다. 그는 루시퍼적인 타락을 겪지만, 정상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타락을 보지 못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영적 법칙의 적용

을 받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사도의 말씀이 적용된다. “사악한 자들과 마술사들은 더 나쁜 쪽으로 변창하리니, 유혹하는 자요 유혹당하는 자라.”¹²⁴

— 게론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 그것을 만든 사람이 감탄하는 것 때문에 훼손될 수도 있습니까?

— 네, 영적인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누군가에게서 당신의 은총을 거두어 가시면, 그 사람은 그 물건이나 예술 작품 등을 훼손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에 자만했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되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 게론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망가뜨린다면, 그것은 영적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인가요?

— 네, 물론이죠.

— 그런데 사람이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서툴러서 무언가를 망치는 경우는 없을까요?

—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오직 죄뿐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기심이 꺾일 때까지 영적 법칙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니—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까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게론다, 사람이 자신에게 영적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 사람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어떤 것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게론다, 그러니까 영적 법칙은 사람이 겸손해질 때만 그 효력을 멈추는 것입니까?

— 네, 주로 겸손함 때문에, 혹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을 때 그 법칙들이 작용을 멈추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을 끊임없이 때렸는데, 남편은

¹²⁴ 디모데후서 3, 13.

교사였기 때문에 평판을 잃을까 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우 영적 법칙들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은 그는, 미망인인 어머니가 적은 연금으로 아들을 교사로서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하기는커녕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그 불쌍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그가 성장해 결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그를 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 남자가 죽자, 그의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인 과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도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후 그들의 아들도 자라서 결혼했습니다. 그가 결혼한 여자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를 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셨도다!”라고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남자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모든 것을 어떻게 마련해 두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점에서 영적 법칙의 작용은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불쌍한 [정신 나간] 아내에게는 물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 계론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슬퍼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영적 빛을 갉게 되는 것입니까?

—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깨닫고 있는가, 아니면 이기적으로 슬퍼하고 있는가? 만약 그가 자신의 의무를 깨닫는다면, 더 이상 자신의 타락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자신의 의무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 만약 무정한 사람이 자선을 베풀지 않고 돈을 계속 모은다면, 강도들이 그를 찾아와 구타하고 돈을 빼앗아가며, 그렇게 해서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만약 우리에게 [영적인] 빛이 있는데 이 생에서 그 빛을 갉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나쁜 징조이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다. 반면, 어떤 사람이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오직 축복만 받는다면, 그는 분명 선한 일을 행했고, 그 선한 일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이 생에서 두 배, 세 배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 또한 좋지 않다. 가령, 내가 선한 일을 10퍼센트 정도 행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로 20퍼센트를 갚아 주셔서 나는 슬픔도, 괴로움도 겪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이 경우 나는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 이삭 시린이 말했듯이, 이 생에서 겪는 불행은 지옥의 고통을 덜어준다.¹²⁵ 즉, 이러한 경우 그 사람에게 영적 법칙이 작용하여 지옥의 고통 중 일부가 사라지게 된다.

제6부.

죽음과 내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 그분을 슬프게 한다면 정말 배은망덕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뿐만 아니라 작은 새 한 마리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장.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을 기억하라

— 계론다, 사람은 자신의 생일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 사람은 자신의 미래 죽음의 날을 생각하며, 그 위대한 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¹²⁵ S. I. 소볼레프스키의 러시아어 번역본: “여기서 자신의 수치로 인해 벌을 받는 자는 자신의 지옥을 맛본다”. 성자 이삭 시리아인의 『수도자의 말씀』. 모스크바, 1993. 365쪽.

— 게론다, 무덤에서 유해를 발굴했을 때 고인의 유해가 썩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원인은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입니까?

— 아니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원인은 그가 복용했던 약 때문일 수도 있고, 묘지의 토양 성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고인의 유해를 무덤에서 발굴했을 때 시신이 썩지 않은 상태라면, 그는 자신의 죄 중 일부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후에도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 게론다, 죽음은 사람에게 닥칠 가장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 아시다시피, 예전 공동 생활이 이루어지던 수도원에서는 수도사 중 한 명에게 다른 수도자들에게 죽음을 상기시켜 주는 임무를 맡기곤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때, 이 수도사는 그들에게 다가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을 운명의 육신으로 감싸여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신비는 오직 육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죽기를 원치 않고, 심지어 죽음에 대한 이야기조차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중의 죽음이자 이중의 슬픔이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적어도 노인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노년의 몇 가지 징후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젊은이들보다 죽음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희어지고, 예전 같은 활력은 사라지며, 힘은 서서히 빠져나가고, 침이 흐르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그들은 겸손해지고 이 세상의 헛됨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된다. 노인들이 설령 “반항하고” 싶어도,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들을 제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혹은 자신과 같은 나이거나 심지어 더 어린 노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도 죽음을 떠올리게 된다. 시골에서 장례 종소리가 울리면, 찻집에 앉아 있던 노인들이 일어나 십자 성호를 긋고 누가 죽었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묻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 그들이 말합니다. “이봐, 이제 우리 차례가 왔구나!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날 거야!” 그들은 자신의 세월이 지나갔고, 삶의 실이 끝을 향해 가고 있으며,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

다. 어린 아이에게 “죽음을 명심하라”고 말해 보세요. 그 아이는 “트루-라-라”라고 대답하고는 다시 공 가지고 놀러 달려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가 자신이 죽을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 불쌍한 아이는 삶에 환멸을 느끼고 완전히 무기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그 아이의 관심을 끌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아이가 죽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걱정 없이 즐겁게 공놀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날수록 점차 죽음이 무엇인지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막 수도 생활을 시작한 수도사, 특히 젊은 수도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며, 죽음이라는 문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젊은이들을 불러 죽은 아나니아와 삽피라를 치우게 하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¹²⁶ 수도원에서는 보통 젊은 수도사들이 죽은 이를 장사 지냅니다. 깊은 사색에 잠긴 노수사들은 고인의 시신 위에 흙을 조금 뿌립니다. 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한 줌의 흙을 오직 시신 위에만 뿌릴 뿐, 결코 고인의 머리 위에는 뿌리지 않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열린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나는 불쾌한 광경을 목격했다. 고인을 매장하고 흙을 덮을 때, 신부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라고 말했다. 그때 모든 수도사들은 관례대로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고인이 된 형제의 시신 위에 한 줌의 흙을 뿌리고 있었지만, 한 젊은 수도사는 수도복을 집어 들고 삽을 움켜쥔 뒤, 마치 기계처럼 무심하게 삽에 담긴 모든 것— 흙, 돌, 나뭇조각... 그는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했다! 바로 이 순간을 골라 자신의 힘과 일할 능력을 과시하려 했던 것이다! 만약 수도원에서 나무를 심거나 배수로를 메우는 일을 하고, 그가 친절과 희생정신을 보이며 “다른 수도사들은 연로하신 분들이시니, 그분들에게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하도록 하죠.”라고 말했다면 이야기가 달랐을 것이다. 이 경우 그는 조금 더 피곤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을 것이다. 게다가 여기서는 죽은 동물을 보기만 해도 안타까워지는데, 하물며 무덤에 누워 있는 자신의 형제를 본다면... 그런데도 당신은 마치 흙삽처럼 무심하게 그에게 흙과 돌

¹²⁶ 참조: 사도행전 5, 6—10.

을 덮어씌우고 있다니... 이 모든 것은 이 젊은 승려에게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죽고 싶어도 죽지는 않는다

— 게론다, 최종 진단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의 종양은 악성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형태의 암 중 하나입니다.

— 손수건 하나 가져다 주시면, 제가 춤을 추겠습니다! “건강하소서, 이 불행한 세상이 안녕!”이라는 춤을 출 겁니다. 평생 한 번도 춤을 춰 본 적이 없지만, 이제 죽음이 다가온다는 기쁨에 춤을 추겠습니다.

— 게론다, 의사가 먼저 종양을 축소하기 위해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수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먼저 공군이 폭격을 가하고, 그다음에 지상군이 공격을 감행하겠군요! 자, 그럼 제가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노인들조차도, 의사가 “당신은 죽을 겁니다”라거나 “살아남을 확률이 50%입니다”라고 말하면 낙담합니다. 그들은 살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젊은 사람이 살고 싶어 한다면 그나마 이해할 만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노인이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도록 치료를 받는다면 이해합니다. 즉, 그는 생명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적어도 조금이라도 고통을 견디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치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 게론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스승님의 수명을 연장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왜요? 시편에 일흔 해가 우리 생애의 기한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¹²⁷

—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약 힘이 있다면 팔십 년...”

¹²⁷ 시편 89, 10.

— 네, 하지만 그 후 그는 “...그들의 수고와 병을 더하리라.”라고도 말합니다.¹²⁸ 그러니 차라리 내세에서 안식을 얻는 편이 낫습니다!

— 게론다, 사람이 겸손함 때문에 영적으로 다른 삶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준비를 하기 위해 조금 더 살고 싶어 할 수도 있을까요?

—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쩌면 더 오래 살면 상황이 더 나빠질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 게론다, 사람은 언제 죽음과 친해지고, 죽음과 화해하게 됩니까?

— 언제?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면, 죽음은 그에게 기쁨이다. 하지만 삶에 지쳐서 죽게 될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 좋은 의미에서 — 죽음을 기뻐하면, 죽음은 그 사람을 떠나 어떤 겁쟁이에게로 찾아간다!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다.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세속적인 삶이 그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는 죽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런 사람에게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는 “나무 조각을 세 번 두드려 봐!”라고 대답한다. 반면 고통과 아픔 등을 겪는 사람은 죽음을 해방으로 여기며 이렇게 말한다. “나를 데려가기 위해 죽음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참 아쉽구나... 보아하니, 죽음이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을 만난 모양이군.”

죽음을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생에서 무언가를 마무리하고 싶어 하므로 죽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이 성숙해지면 죽게 하도록 정하셨다. 하지만 어쨌든 영적인 사람은, 젊은 늙든, 자신이 살아 있다는 사실에도 기뻐해야 하고, 앞으로 죽게 될 사실에도 기뻐해야 한다. 다만 스스로 죽음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자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과 단절하고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해 전혀 불안이나 두려움, 걱정 따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쁨으로 죽음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 곁에서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는 기뻐하는데, 이 생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아직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¹²⁸ 같은 책.

일부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자신이 땅에서 살며 경험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사랑과 자기 희생으로 수련합니다. 눈앞에 죽음을 두고 매일 그것에 대해 묵상하며, 그들은 영적으로 더 잘 준비되고, 더 큰 담대함으로 수련하며, 헛된 것을 이겨냅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

— 게론다, 며칠 동안 죽음의 문턱에 머물렀지만 영혼이 떠나지 않은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 왜 떠나지 않았나요? 고해성사를 했나요?

— 아니요, 고해성사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론다, 영혼이 떠날 때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은 그의 죄악 때문인가요?

— 아니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영혼이 조용하고 평온하게 몸을 떠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사람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통과 고뇌를 겪는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그들에게 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은 겸손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비참한 최후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즉, 죽은 후에도 아무도 모르게 묻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또는 누군가는 [영적으로] 작은 빛을 갚기 위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생전에 자신이 받을 자격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음의 순간에 다소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허락하셔서 사람들의 눈에는 추락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신다.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순간에 어떤 이들이 고통받도록 허락하시는데, 이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이 이곳에서 자신을 바로잡지 않으면 지옥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영적] 서류가 정돈되어 있다면(즉,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다면), 당신은 이 땅의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넘어갈 때, 탄갈라쉬들이 당신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 게론다, 사람이 죽어가거나 중병을 앓고 있을 때, 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때때로 암에 걸린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헤론다, 제 생각에는 제가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죽을까요?” 만약 그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눈앞에서 —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 바로 죽고 맙니다. 만약 그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용기를 얻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병을 받아들입니다. “성숙해진” 환자는 스스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후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극복할 힘을 찾게 됩니다. 즉, 그는 몇 년을 더 살 수 있고, 가족을 도울 수 있으며, 스스로 죽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천 년을 살게 될 것이라거나 그들의 병이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당신을 돕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지만, 영적으로 자신을 바로잡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 게론다, 때로는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가족들이 그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까 봐 성체를 받아먹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결국 사람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찬을 받지 못한 채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의 가족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면 됩니다. “신성한 성찬은 약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찬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성찬을 받고 도움을 얻으며, 동시에 내세에 대비하게 됩니다.

— 게론다,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성체성사를 집전해야 합니까?

— 하나님께 영혼을 바칠 수 없는 이들에게는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행하는 예식”을 봉독합니다. 성체성사 예식은 임종을 앞둔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병자에게 행해집니다.

— 게론다, 임종을 앞둔 사람이 내뱉는 말들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까?

—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고통이나 무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드러나 주변 사람들이 그가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드러나는 고통의 표정은 분노나 두려움의 표정과 다릅니다. 때로는 사람이 고통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를 마치 그의 영혼을 데려가려는 악마들과 싸우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 게론다, 영적으로 정돈된 상태로 이 생을 떠나는 영혼도 시련을 겪게 됩니까?

— 영적으로 정돈된 사람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면, 탄갈라쉬들은 그 영혼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하지만 영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영혼이라면, 탄갈라쉬들이 그 영혼을 괴롭힌다. 때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에 고통의 시련을 보게 허락하시는데, 이는 아직 살아 있는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어 이 생에서 빛을 갚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복녀 테오도라의 행적을 기억하십니까?¹²⁹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연옥의 고통을 보게 하심으로써, 다른 이들이 도움을 받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 유프로시노스의 행적¹³⁰ 에서는 수도원의 원장이 한 번의 환상을 본 후 손에 사과를 쥔 채 깨어났는데, 이는 다른 이들이 이를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도록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죽어가는 사람 자신이나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다양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천사들을 통해 사람을 도우시고, 또 다른 경우에는 시련이나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 도우십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던 한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모두 때렸습니다. 정작 본인은 이웃집들을 돌아다니며 험담을 퍼뜨리고, 늙은 시어머니는 밭으로 일하러 보내곤 했습니다. 불쌍한 노파는 매일 두 시간씩 밭을 겨우 끌며 밭까지 걸어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서 일하면서도 아무에게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쳐서 기진맥진한 채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며 며느리에게 말했다. “대천사 미카엘이 내 영혼을 데리러 왔어. “피를 닦아줘, 딸아.” “무슨 피요?” — 며느리는 피가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물었다. “바로 여기 있잖아, 딸아, 피, 피가 흐르고 있어! 뉘

¹²⁹ 『관 앞의 심판, 또는 성녀 테오도라의 고난』 참조. 상트페테르부르크, 1995.

¹³⁰ 성녀 에우프로시나의 기념일은 9월 11일이다. 『러시아어판 성인전』 9월 편(모스크바, 1902) 257-260쪽 참조.

아줘, 다했어!” 며느리가 주위를 둘러보며 피를 찾으려 하는 사이, 노파는 하나님께 영혼을 바쳤다.

그 사건 이후 며느리는 정신을 차리고 삶을 바꿨다. 야수 같은 모습에서 양처럼 온순한 사람으로 변한 것이다. 그녀가 시어머니가 그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는 것을 목격하고, 대천사 미카엘이 마치 칼을 빼든 채로 시어머니의 영혼을 데려간다고 믿게 된 일은, 그녀가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정신을 차리도록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마도 이 여성은 선한 성품을 지녔을 것이다.

— 게론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난 친척들을 부른다면, 그건 무슨 뜻인가요?

— 종종 이런 일은 죽어가는 사람 곁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일어납니다. 저는 한 부유한 부인을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성녀와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고 여동생과 함께 살았으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여동생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처남, 즉 여동생의 남편은 그녀보다 나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할 때 그는 그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이리 와, 데스피나, 서로 용서를 구하자. 용서해 줘... 내가 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용서해 줘!” “데스피나가 어디에 보이냐?” —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바로 저기 있잖아, 안 보이냐, 저기!” — 그가 대답하고는 하나님께 영혼을 바쳤습니다.

— 게론다,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런 방식으로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사람은 임종 시에 회개하며,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살

— 게론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곧바로 자살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 이 일에는 이기심이 얹혀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생을 마감하면 겪고 있는 내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속삭이는 악마의 말을 듣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기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저질렀다가 그 사실이 드러나면, 그 도둑은 “이제 끝이다, 내 평판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말하며, 회개하고 겸손해지며 고해성사를 통해 영혼을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시킬 대신,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아이가 마비되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이 마비된 아이를 낳다니?”라고 그런 사람은 말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아이가 마비된 것에 대한 책임이 그 자신에게 있고,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아이를 홀로 남겨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의 죄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 게론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할 경우, 그들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을 완화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됩니다. 하늘에 구름이 모이는 것만 봐도 그런 사람은 이미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정신적 장애가 더해지면, 그 구름은 더욱 짙어집니다. 그러나 정신 질환이 없으면서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교회가 죽은 이단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느님의 심판과 자비에 맡깁니다. 사제는 성찬식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며, 그들을 위해 성체를 떼어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통해 그들은 삶을 거부하고 경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마치 이 선물을 하느님의 얼굴에 내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무언가 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지 모르

고, 그 회개가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님의 천사가 그들의 영혼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시골에 살며 염소를 치러 다니던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초원에 염소를 묶어두고 근처에서 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놀기에 열중해 있는 사이에 염소가 묶인 줄을 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소녀는 염소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염소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서 딸을 때리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가서 염소를 찾아와! —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 만약 못 찾으면 차라리 목을 매는 게 낫겠다.” 불쌍한 소녀는 염소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그녀는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걱정되어 그녀를 찾으러 나갔다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염소가 묶여 있던 밧줄로 올라가미를 만들어 목을 매었던 것이다. 불쌍한 소녀는 순진해서 아버지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묘지 울타리 너머에 묻어 주었다.

물론, 교회는 그녀를 교회 울타리 안에 묻어준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사소한 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도 이 소녀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그것 또한 옳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제2장.

“다른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¹³¹

아이들의 죽음

— 게론다, 9년 전에 아이를 잃은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당신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꿈속에서라도 아이를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 아이는 몇 살이었나요? 어렸나요? 그 점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어렸고, 아이가 나타나도 어머니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을 상태라면 아이는 어머니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이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머니 자신에게 있습니다.

— 게론다, 아이가 이를 요청한 친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나타날 수도 있나요?

— 어떻게 그럴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마련해 주시는 법이니깐요. 어떤 청년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저는 슬퍼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슬픔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투쟁해야 하고, 그만큼 더 많은 죄를 쌓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깐요. 특히 이 세상의 사람들은 더 오래 살수록, 자신의 염려와 불의 같은 것들로 인해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사람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 게론다, 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 아직까지 아무도 하나님과 언제 죽을지에 대한 계약을 맺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오직 그 사람에게만 맞는 특별한 방

¹³¹ 데살로니가전서 4, 13.

식으로 데려가시는데, 이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시면, 그 사람을 살려 두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더 나빠질 것임을 보시면,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죄 많은 삶을 살지만 선을 행할 마음이 있는 다른 이들은, 그들이 선을 행할 기회를 얻기도 전에 그분께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시는데, 이는 그분께서 이 사람들이 유리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선을 행했을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치 “수고하지 마라. 너희가 가진 그 선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 매우 선한 사람 —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천국에는 꽃봉오리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을 떠난 아이의 부모와 친척들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이를 마치 작은 천사처럼 당신 곁으로 데려가시는데, 부모들은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정작 그들은 기뻐해야 할 텐데 말이죠. 그 아이가 자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1924년에 우리가 소아시아를 떠나 배를 타고 떠날 때, 나는 갓난아기였다. 배 안은 난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기저귀로 감싸 안은 채 갑판 위에 누워 있었다. 한 선원이 우연히 나를 밟고 지나갔다. 어머니는 내가 죽은 줄 알고 울기 시작했다. 우리 마을 출신인 한 여성이 기저귀를 풀어헤치고는 제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죽었다면 분명 천국에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나이가 꽤 들었고, 많은 일을 해왔지만, 제가 그곳에 가게 될지 아닐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죽음은 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기도해 줄 이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은 리피드들과 함께 천국의 문 앞으로 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혼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는 실로 큰 일입니다! 게다가 병이나 장애로 고통받았던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으로 와서 그곳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골라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리스도께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기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님. 하지만 저희와 함께 우리 엄마도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아이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어머니를 구원할 방법을 찾으실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들이 다른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죽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믿으며, 그로 인해 미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어머니 중 한 분은 죽은 아들의 물건 중 하나를 저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축복의 의미로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사람들에게 아들의 물건을 축복의 선물로 주는 것이 괜찮을까요?” “아니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건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성목요일에 성당 한가운데 서 있는 십자가상에 독일군에게 살해당한 자신의 아이 사진을 붙여 놓았다. 그녀는 “제 아들도 그리스도님처럼 고통을 겪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전날 밤 성당에 머물던 여성들은 그녀를 방해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그녀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의 영혼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으니까요.

슬픔에 잠긴 이를 위로하며

— 헤론다,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지요!

— 사람들이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면, 죽음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질 힘을 얻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죠.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청소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이들은 오토바이를 뒷바퀴로 세우곤 하는데, 그런 자세에서는 아주 쉽게 넘어져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이 깨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들어 올리는 사람을 영웅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나,” 그런 십대들이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내 오토바이를 뒷바퀴 하나로, 마치 뒷다리로 걷는 것처럼 달리게 했지만, 그 후 넘어졌어.” 보라, 악마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들이 스스로 머리를 부수기를 바라며? 만약 그들이 평소처럼 두 바퀴로 달렸다면, 설령 사고가 났더라도 머리가 아니라 다른 부위를 부딪혀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서 악마가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누군가가 부주의하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악마의 악이나 인간의 부주의에서 무언가 선한 것이 나올 것임을 의미합니다.

— 게론다,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지기를” 기도합니까?

—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는 죽음이 우리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덮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 게론다, 한 어머니가 이곳에 와서 비통해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심부름 보내었는데, 차에 치여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라. “운전자가 악의로 네 아이를 치었나? 아니지. 네가 아이를 심부름 보내서 차에 치이게 하려고 했나? 아니지. 그러니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라. 왜냐하면 차에 치이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잘못된 길로 빠졌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순간에 그 아이를 데려가셨다. 지금 그 아이는 천국에 있으니, 다시 잃을 위험이 없다. 왜 울고 있느냐? 네 울음으로 네 아이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이냐?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 아이가 괴로워하기를 바라는 것이냐, 아니면 기뻐하기를 바라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다른 자녀들을 돕는 데 신경 써라. 죽어버린 아이 때문에 울지 말고, 그 아이들 때문에 울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어제 눈물을 흘리는 한 어머니가 이곳에 찾아왔다. “하나님이 제 외아들을 데려가셨어요,”라고 그녀는 울며, 그 일로 하나님을 탓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제대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분은 작은 천사를 곁으로 데려가셨고, 세례를 받은 아이를 데려가셔서 그 아이가 죄와 정욕에 물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곁으로 데려가셨는데, 당신은 그 일로 인해 그분을 비난하기까지 합니까? 머지않아 당신은 죽은 아들이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후 그 여인은 나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젊었을 때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 여성들은 말합니다. “

제 아이가 구원받기를,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 파멸로 치닫고 있으며, 그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뜻밖의 죽음을 통해 그 아이를 주님께로 데려가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아이를 치게 내버려 두시고, 그런 식으로 아이를 당신 곁으로 데려가십니다. 만약 그 아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아이를 친 사람의 머리에서도 술기운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남은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괴로워합니다. “나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하며, 그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마음의 고통에 시달리며 더 차분하게 살기 시작하고,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내세에 대비합니다. 그렇게 그녀도 구원을 받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도대체 어떤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사물을 대하는 것을 그만두면, 그의 영혼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참된 삶, 즉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삶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스토미온 수도원에 있을 때, [근처] 코니체에 사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는 끊임없이 묘지에 가서 몇 시간씩이나 통곡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묘비에 머리를 부딪치며 울부짖어 온 동네를 뒤흔들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묘지에서 자신의 모든 고통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와서 그녀를 데려가도, 그녀는 어김없이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수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독일군에게 살해당했고, 딸은 아버지가 죽은 지 몇 년 뒤, 겨우 열아홉 살이 되자마자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 불쌍한 여성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겉으로만 본다면 이렇게 말하겠지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성 자신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바로 그런 식으로—겉으로만—대하며 위로를 받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묘지에 갔을 때,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내 남편은 전쟁에서 죽었고, 나에게는 외동딸이 하나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까지 저에게서 데려가셨어요...”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가며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좀 털어놓을 수 있도록 기다린 뒤,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께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전쟁에서 전사하며 신성한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후, 네 남편이 죽은 뒤, 하나님께서는 몇 년 동안 네게 딸을 남겨 주셨다. 그녀는 너와 함께 살았고, 너는 어느 정도 위안을 얻었다. 그러나 그 후 하나님께서는 그 소녀가 [조만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시고, 그녀가 있던 그 좋은 환경에서 그녀를 데려가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과부는, 비록 남편이 매우 온화한 사람이었지만, 본인은 약간 세속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녀에게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고, “당신은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나요?” “저는 누구도,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아요,”라고 그녀가 대답했다. “보시다시피,”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세상은 이미 죽었고,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세속적인 것은 아무것도 당신을 흥미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머지않아 여러분 모두 함께 천국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처럼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신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느냐?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 이 대화를 나눈 후, 그 불쌍한 여자는 더 이상 묘지에 가지 않게 되었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깨닫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마음을 진정시켰다.

— 게론다, 사람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살인자가 그 죄를 떠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 살해당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죄를 경감시켜 줄 정황이 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회개하려 했지만, 그가 나를 죽였다.” 이처럼 [그의 죄]의 무게는 살인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분별력이 부족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은 이렇게 많은 범죄가 자행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범죄자들을 벌하셨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께서 범죄자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수년 동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판의 날에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그들을 살려두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에게 살해당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죽음 — 불과 몇 년간의 이별

우리는 사실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죽음이란 단지 한 삶에서 다른 삶으로 옮겨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는 잠시 동안의 이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해외로 떠난다면, 가족들은 1년 동안 헤어지게 되므로 속상해하고, 10년 동안 떠난다면 10년 동안의 이별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죽음이 가져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년층에게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15년 뒤면 다시 만날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아직 젊다면, “50년 뒤에 다시 만날 거야.”라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영적인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¹³²⁾ 예를 들어, 만약 내 죽은 친척이 살아 있었다면 내가 그를 얼마나 자주 만났을까요? 한 달에 한 번? 그러니 저기, 영원한 생명 속에서 나는 그를 끊임없이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는 죽은 사람이 [기독교인답지 않게] 잘못 살았을 때에만 정당화됩니다. 예를 들어, 그가 잔인한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세에서 그와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¹³² 데살로니가전서 4, 13.

제3장.

사후의 삶에 대하여

정죄받은 죽은 자들

— 게론다, 사람이 죽을 때,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즉시 깨닫게 됩니까?

— 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에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 “파이다 요크”¹³³ — 즉, 그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이미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어머니를 죽인 사람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웃고 노래를 흥얼거린다. 하지만 술기운이 깨지면 울기 시작하고, 흐느끼며 스스로에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라고 묻는다. 죄악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 사람들은 취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을 때, 머릿속의 [세속적인] 취기가 사라지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들의 영혼의 눈이 열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데, 이는 영혼이 육신을 떠나 움직이며,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는 속도로 보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 재림은, 비유하자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의 상태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 헤론다, 지금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 이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들은 생전에 저지른 죄에 따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종 심판, 곧 다가올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엄격하고 특별한 처분을 받은 이들도 있고, 좀 더 가벼운 형벌을 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¹³³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는 뜻의 터키어 표현.

— 그런데 지금 성인과 현명한 강도는 어디에 있습니까?¹³⁴

— 성도들과 현명한 강도는 지금 천국에 있지만, 지옥에 있는 정죄받은 자들이 아직 최종적인 정죄를 받지 못한 것처럼, 그들도 아직 궁극적인 영광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 세기 전에 이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³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미루고 또 미루고 계십니다.¹³⁶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욕과 죄 속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성도들에게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때문에] 장차 올 최후의 심판 후에 누리게 될 궁극적인 영광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인을 위한 기도와 추도 예배

— 게론다, 죄를 지은 고인들도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도움을 청하지만, 이미 스스로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께 단 한 가지만을 원합니다. 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5분만 더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회개할 시간이 남아 있지만, 불행한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스스로 처지를 개선할 수 없어 우리에게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심판받은 죽은 자들 중 고작 10%만이 악마적인 상태에 빠져 지옥에서 악마들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영혼들은 도움을 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도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아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게다가 마지막 말까지 아버지를 모욕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음,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무엇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옥에 있는 다른 정죄받은 자들, 즉 악

¹³⁴ 참조: 루카 23, 32-33 및 39-43.

¹³⁵ 마태복음 3, 2.

¹³⁶ “우리의”라고 말하면서, 스승님은 온 인류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간의 자비심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며,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간청하며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재림이 오기 전까지 이 정죄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이다. 지상의 삶에서 왕의 친구는 어떤 정죄받은 자를 돕기 위해 왕에게 청원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라면,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청하여 정죄받은 죽은 자들이 한 “감옥”에서 다른 “감옥”으로—더 나은 곳으로, 한 “감방”에서 다른, 더 편안한 “감방”으로 옮겨지도록 중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감방”에서 어떤 “방”이나 “아파트”로 옮겨 달라고 간청할 수도 있다.

우리가 수감자들을 방문하여 시원한 음료 등을 건네줌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듯이, 우리는 고인들의 영혼이 안식을 얻도록 드리는 기도와 자선을 통해 그들의 고통을 덜어줍니다. 살아 있는 이들이 고인을 위해 드리는 기도와 그들의 영혼이 안식을 얻도록 거행하는 예배는, 재림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고인들에게 주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도움을 받을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고인들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시기 때문이지만, 그분은 고귀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귀가 “이 죄인은 전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말할 권리를 주지 않으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개입하실 “권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보다 고인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감동”시킨다는 점도 언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고인을 위한 콜리보 축성식과 추도 예배, 장례 미사를 제정했습니다. 추도 예배는 고인의 영혼을 위한 가장 훌륭한 변호자입니다. 추도 예배는 지옥에 있는 영혼조차도 구해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번 성찬예배가 끝난 후 고인을 위해 콜리보를 축성하십시오. 밑에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137)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밑을

¹³⁷ 고린도전서 15:42.

조금 삶는 것도 귀찮아하며, 건포도, 과자, 비스킷을 교회로 가져와 사제들이 이 모든 것 위에 고인의 안식을 위한 기도를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산에서는 늙은 수도사들이 매년 성찬 예식 때마다 고인을 위하고, 기념하는 성인을 위해 콜리보를 축성하여 그분의 축복을 받습니다.

— 게론다,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은 기도가 특히 더 필요합니까?

— 그건 당연하죠! 사람이 감옥에 막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특히 힘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 고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 사람이 냉혹하거나 잔인했다고 알고 있다면—더 정확히 말하면, 잔인해 보였을 뿐인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잔인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람이 죄 많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하며, 성찬식에서 그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40일 기도를 신청하며,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난한 이들이 “그의 유해가 축복받기를”이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 사람이 스스로 하지 못한 일은 우리가 그를 대신해 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 비록 잘 살지는 못했더라도 그 사람에게 선한 마음이 있었다면, 적은 기도만으로도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는 그가 선한 성품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들의 기도가 고인들에게 주는 유익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이 내 칼리바에 찾아와 울면서 말했다. “게론다, 저는 한 고인인 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만뒀더니, 그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그가 말했습니다, ‘이미 스무 날 동안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너는 나를 잊었고, 나는 고통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수많은 걱정거리로 인해 정확히 스무 날 전부터 그를 잊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은 제 자신에 대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시다.”

— 게론다,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사망 후 첫 40일 동안 그분의 안식을 위해 묵주 한 줄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 염주를 짚으며 고인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와 함께 다른 고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기차가 승객 한 명만 태우고 그렇게 먼 길을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승객들도 태울 수 있는데 말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고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불쌍한 이들은 도움을 청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신 친척 중 한 분을 위해 아주 자주 추모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하느님께 그리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조차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그 고인을 위해 그토록 많은 위령 예배를 드렸다면, 동시에 다른 고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 게론다, 가끔은 아버지의 구원에 대해 걱정되곤 합니다. 아버지는 교회와 아무런 연고가 없으셨기 때문이죠.

— 마지막 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언제 결정되나요? 매주 토요일마다요?

— 잘 세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왜 매주 토요일인가요?

— 토요일은 고인들을 위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고인들은 그날에 대한 권리가 있거든요.

— 게론다,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고인들은 어떨까요? 고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의 기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물론입니다. 저는 모든 고인을 위해 기도할 때 꿈속에서 제 부모님도 뵙곤 합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수도실에서 성찬식이 거행될 때마다, 저는 모든 고인을 위한 공동 추모 기도를 드리며, 돌아가신 왕들과 주교들 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고인을 위한 기도를 생략하면, 제가 아는 죽은 이들이 제 앞에 나타납니다. 제 친척 중 한 분은 전쟁에서 전사하셨는데, 저는 그분의 이름을 추모 예식 명단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다른 용사들과 함께 프로스코미디아(성체 성사 전 예식)에서 추모하기 위해 이미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례 미사 중에 그 사람이 내 앞에 온몸을 쭉 펴고 서 있는 것

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성체 성사 때 병자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고인들의 이름도 기도를 위해 올려 주십시오. 고인들은 기도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고인을 기리는 가장 훌륭한 방법

우리가 고인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모든 추모와 위령 예배보다 더 유익한 것은, 우리의 성실한 삶과, 자신의 결점을 끊어내고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치르는 그 투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사물과 마음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결과는, 우리 자신이 안도감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문의 고인된 조상들도 안도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인들은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기쁨을 느낍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상태에 있지 않다면, 고인이 된 부모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모든 조상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후손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보라!”라고 그들은 말하며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상태에 있다면, 그들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협력자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낙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모두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낡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투쟁해야 하며, 그가 새롭게 변하여 더 이상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 있는 사람이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해야 한다.

의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담대한 기도

— 게론다, 수련기 수도자들에게 보내신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진정한 수도사들은 이 생에서 얻는 것이 천국의 기쁨의 일부에 불과하며, 천국에서는 그 기쁨이 더 클 것임

을 이해하지만, 이웃에 대한 큰 사랑 때문에 기도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에 개입하셔서 세상이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서 조금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¹³⁸

— “수도사들은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기도로 그들을 돕기 위해 이 땅에서 살고 싶어 한다.”라고 읽어보세요.

— 게론다, 저 세상에서도 진정한 수도사는 자신의 기도로 사람들을 도울까요?

— 그는 저 세상에서도 기도로 그들을 도울 것이지만, 그때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이며, 지금처럼 그들과 함께 아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행복한 눈빛과 빛나는 얼굴”로 이 땅에서 유유자적하며 살지 않는다! 그러나 수도사가 이웃을 위해 겪는 고통이 클수록, 그에게 주어지는 신성한 위로도 더 커지며, 이 보상은 어떤 면에서 수도사에게 그의 이웃이 유익을 얻었음을 알려준다. 이 천상의 기쁨은 그가 형제를 위해 겪는 고통에 대한 신성한 보상이다.

— 게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성인들이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지 않는 건가요?

— 그래, 내 형제여, — 거기엔 고통이 없잖아! 그들이 어디서 고통받을 수 있겠는가? 천국에서? “*거기에는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다.*”¹³⁹ 천국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게다가 성자들은 이 생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받게 될 신성한 보상에 대해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며, 그 지식은 그들에게 기쁨을 준다. 그렇지 않다면, 그토록 많은 사랑과 연민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거대한 인간의 고통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신성한 보상에 대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를 견디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고통받을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더 큰 천상의 상을 준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람이 고통받는 이들이 내세에서

¹³⁸ *파이지이 스비아토고레츠* 장로. 『서한집』. 성 삼위일체 세르기예프 라브라, 2001. 44쪽.

¹³⁹ “성인들과 함께 안식하게 하소서...”라는 위령 콘다카에서

무엇을 맞이하게 될지 조금이라도 엿보고, 그들이 받게 될 신성한 보상에 대해 안다면, 그의 고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 게론다, 만약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고인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 우리의 기도는 헛되는 건가요?

— 어떻게 그 기도가 헛되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이름)을 안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저 세상에서 하느님 곁에 있다면, 그는 우리에게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그를 감동시킵니다. “이것 좀 보라,” 그가 말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하느님 곁에 있는데, 저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그 사람의 자비심에 작용하여, 그가 하느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더욱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네가 그 어떤 고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물론, 무엇보다 먼저 이 땅에서의 삶으로 하느님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다음에는 그와 비슷한 다른 고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 후에는 모든 고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다가올 최후의 심판

— 게론다, 영혼은 어떻게 정화되니까?

—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는 데 힘쓰며, 자기 수양에 매진하고, 정욕에서 벗어나면 그의 마음은 밝아진다. 그는 관조의 경지에 이르게 되며, 그의 영혼은 원시 인류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과 같아진다. 사람은 죽은 자들의 부활 이후에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욕에서 완전히 정화된 사람은 보편적인 부활 이전에 자신의 영혼이 부활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의 몸은 천사처럼 무형체가 될 것이며, 물질적인 음식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 게론다,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사람의 상태가 순식간에 드러날 것입니다. 각자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곳으로 스스로 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치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자신의 타락한 모습과 타인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웃

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자리로 향할 것이다. 예를 들어, 며느리는 생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지만, 다리가 부러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아들, 즉 자신의 손자를 돌보아 주었다. 만약 최후의 심판에서 이 며느리가 그리스도께서 시어머니를 낙원에 보내시는 반면, 자신은 그곳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을 것이며 그리스도께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묻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장면이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리가 부러진 시어머니가 손자를 어떻게 돌보았는지 기억할 것이며, 감히 천국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그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이다. 반면, 예를 들어 수도사들은 세속 사람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과 시련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수도사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았다면,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스스로 마땅히 받아야 할 곳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수녀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수도 서원을 하지 않았고 수녀들이 가진 축복과 유리한 기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업을 이루고 높은 영적 경지에 도달한 영웅적인 어머니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수녀들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그로 인해 스스로 괴로워했던 사소하고 비열한 행동들에 대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는가! 바로 그렇게 — 내 생각이 말하길 — 최후의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즉, 최후의 심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리 와 봐, 거기서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또는 “너는 지옥에 가고, 너는 천국에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곳으로 스스로 가게 될 것이다.

내세

— 헤론다, 수녀님들께 대접해 주시라고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 자, 보세요, 자매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지요. “우리가 그 하찮은 일들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때는 그 하찮은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설레게 했는지!” 하지만 지금은, 우-우-우, 우리 마음이 이 기쁨들로 인해 펄쩍펄쩍 뛰고 있네요.

— 게론다, [이 기쁨들의 허무함]을 지금 당장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 지금 이 사실을 이해하신다면, 내세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뭐라고 하든, 저 천국에 사는 이들은 행복하게 삽니다. 천국에서 어떤 수공예를 하는지 아십니까? 끊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 헤론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왜 ‘유해’라고 부르나요?

— 왜냐하면 육체는 사람이 죽은 후 땅에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질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다가올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도 부활시키실 것이며, 사람이 영혼과 함께 살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체도 영혼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세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몸, 즉 영적인 몸을 갖게 될 것이며, 키도 모두 같을 것입니다. 작은 사람도, 큰 사람도 모두 키가 같고, 나이도 모두 같을 것입니다. 청년도, 노인도, 갓난아기도 모두 나이가 같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이 같기 때문입니다. 즉, 내세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천사의 나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 게론다, 내세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요?

— 밤에 방 안에 불이 켜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밝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이 될 것이다. 또 한 번 상상해 보라: 밤에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의 길거리에서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죄인들을 본다면, 그들에게는 마음이 아플 것이고, 그들의 비참한 처지를 슬퍼하며 낙원을 만끽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낙원에는 “*고통이 없다....*” 낙원에 있는 이들은 지옥에 있는 자들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제나 아버지, 어머니가 낙원에 함께 있지 않다면 그들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 날에 그의 모든 생각이 사라지리라,*”¹⁴⁰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낙원에 있는 이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친척들을 기억한다면, 그곳이 그들에게 과연 낙원일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낙원에 있는 이들은 [낙원에 있는 이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

¹⁴⁰ 시편 145, 4.

가지로 그들은 지상에서 저지른 죄들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죄를 기억한다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천국에서 각 사람이 느낄 기쁨의 양은 모두 같지 않을 것임을 언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 한 숟가락을, 다른 사람은 기쁨 한 잔을, 또 다른 사람은 기쁨의 호수 한 가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마음이 충만함을 느낄 것이며,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쁨과 신성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천국에서도 [세상에서의 것과 같은] “왜 그는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나는 더 적은 기쁨을 누리는가?”라는 시기심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낙원에 있는 각자는 자신의 영적 눈의 맑음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영적 시력의 예리함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맑음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게론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과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무(無)의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영혼이니까! 하나님은 [본성상] 불멸하시지만, 사람은 은총으로 인해 불멸합니다. 따라서 지옥에서도 그는 여전히 불멸의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우리 영혼은 자신이 처한 상태에 따라 어느 정도 천국이나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두려움, 당혹감, 정신적 불안, 절망을 느끼거나, 혹은 증오와 시기심 등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아직 이 땅의 삶에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사람 안에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선함 등이 있다면, 그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영혼이다. 기쁨도 고통도 느끼는 것은 바로 영혼이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에게 다가가 그에게 가장 기분 좋은 말을 해 보라. 예를 들어: “네 형이 미국에서 왔어,” 또는 이와 비슷한 말을 해 보라.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네가 그에게 달려들어 팔다리를 부러뜨린다고 해도, 그는 역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사람 안에서 느끼는 것은 다름 아닌 영혼이라는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이 지옥과 천국의 존재를 의심

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는가? 아니면, 네가 아름답고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너는 기뻐하고, 심장이 달콤하게 뛰며, 이 꿈이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 잠에서 깨어나면, 깨어난 것이 아쉽다. 아니면 끔찍한 꿈을 꾸기도 한다. 예를 들어, 넘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린 꿈을 꾸면, 꿈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울게 된다. 두려움에 젖은 눈으로 깨어나,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기쁘게 외친다. “다행히도 꿈이었구나!” 즉, 이 모든 것에 영혼이 관여하고 있다. 끔찍한 꿈을 꾸면 사람은 현실에서 겪었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데, 이는 마치 환자가 밤에 낮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어서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면, 그에게 있어 그것은 [지상에서 겪었을지도 모르는 지옥의 고통보다] 훨씬 더 비참한 일이 될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악몽을 꾸며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도 몇 분 동안의 악몽조차 견디기 힘든데, 하물며 — 하느님께서 금하시기를! — [영원히] 슬픔 속에 머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 지옥에는 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게론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이렇게 오랫동안 애써왔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께서서는 우리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우리가 분별력이 없다면, 곤경에 빠질 거야.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이겁니다. 천국에 간다면 모두 함께 가고, 지옥에 간다면 아무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제 말이 맞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해주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옥의 고통에 빠진다면 그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발, 사람이 지옥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새 한 마리조차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를 허락하사, 죽음이 닥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상태에 있게 하시고, 다시 그분의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소서. 아멘.